



시경의 인물



목 차 contents

I. 전근대

1876년 근대 개항 이전

01. 김정서	08
02. 안계덕	13
03. 윤흥신 / 윤흥제	16
04. 정운	21
05. 한광국	26
06. 임중생	30

II. 근현대

1876년 근대 개항 이후

1. 정치 분야

01. 민건호	34
02. 박기종	41
03. 서석재	48
04. 손상영	52
05. 전두만	57
06. 정기원	60

2. 경제 분야

01. 박임봉	70
02. 백제갑	76
03. 이원갑	81
04. 이윤영	87
05. 정주영	91
06. 정태성 / 정해덕	96
07. 채동우	100
08. 최막석	106

3. 사회 분야

01. 강대석	112
02. 김금주	115
03. 양한나	119
04. 이지성	124
05. 정학화	126
06. 조인숙	130

4. 교육·문화분야

01. 강용권	136
---------	-----

02. 구해룡	139
03. 김두행 / 김원선 / 김만이	142
04. 김암우	146
05. 김용옥	152
06. 김윤하	155
07. 김정한	159
08. 박기채	164
09. 백준호	166
10. 서석주	171
11. 서호영	173
12. 손진태	176
13. 신창호	180
14. 안학봉	191
15. 양원국	193
16. 양재일	196
17. 오태균	201
18. 유치환	206
19. 윤필호	210
20. 이유명	213
21. 이유진	217
22. 정수봉	219
23. 조철제	223
24. 최기성	226
25. 최동원	231
26. 최화수	235
27. 한경범	241
28. 한상동	243

부록

● 찾아보기	248
● 『사하의 인물』 선정기준	256
● 『사하의 인물』 인물선정 자문위원	257
● 『사하의 인물』 집필자 명단	257

발간사

우리구를 빛낸 인물에 대한 생애와 유적을 조사하여 '사하의 인물'로
퍼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지역의 역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모습을 담은 사하구지(沙下區誌)와 지역 곳곳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은 사하이야기를 펴냈으며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 새롭게 발굴·조사해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근대, 근현대의 역사적 기록이나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았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물선정자문위원회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치인, 기업인, 교육인 등 모든 분야에서 사하를 빛낸 인물 54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다대진침사 윤희신 장군, 부산포해전 정운 장군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김정한 소설가, 유치환 시인, 최동원 투수가 사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 것입니다.

또한 다이알비누로 유명했던 동산유지공업을 일으킨 박임봉 회장,
부산의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부산방직공업의 설립자 이원갑 회장
등 사하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인들이 많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발굴하는 일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펴낸 사하의 인물은
사하구지와 사하이야기에 이어 사하의 뿌리를 찾는 또 하나의 작업이
였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담긴 인물 외에도 미처 발굴하지 못한 인물이나 흡족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빛
내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사하의 인물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구는 사하의 인물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새롭게 기록해나갈 예정
이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2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사하의
인물로

前 近 武 前 近 武

1876년 근대 개항 이전

전근대

- 김정서 임진왜란 때 동래 의병장이며 왜란 직후 처음 임명된 다대진첨사
- 안계덕 다대동 순흥 안씨 세거지 출신으로, 다대진의 무장
- 윤흥신 / 윤흥제 임진왜란 때 다대진첨사. 1592년 4월 다대진성전투에서 동생 윤흥제와 함께 순절
- 정운 1592년 부산포해전 때 몰운대 앞바다에서 전사한 장군
- 한광국 다대포 어민의 고통이었던 미역세를 덜게 한 다대진의 관리
- 임중생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조카, 의주에서 사하구 신평으로 피난 온 평택 임씨 입향조



김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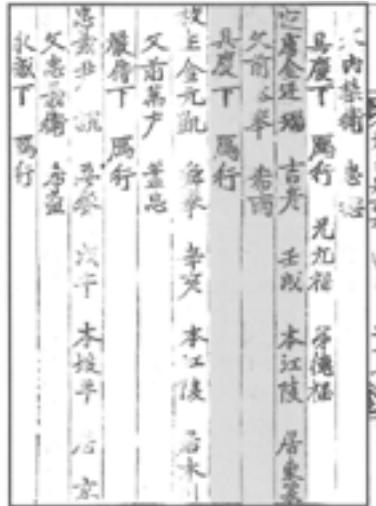
(金廷瑞, 1562~1607)

임진왜란 때 동래 의병장이며 왜란 직후 처음 임명된 다대진첨사

김정서의 본관은 강릉, 자(字)는 길연(吉彦), 호(號)는 백취(栢翠)이다. 그는 1583년(선조 16) 무과 별시(別試)에 급제한 바 있는 무관이였다. 당시의 무과 급제자 명단을 보면 김정서는 동래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버지 김희우(金希雨)는 전 참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급제 당시 부모님 두 분은 생존해 계셨다.

그의 할아버지는 김선(金璿)이며, 김선은 김검의 아들이고, 김검은 김시습의 4촌이다. 강릉 김씨 동래 입향조가 김검이며, 김검과 김선이 서울에서 오늘날 금정구 선동 상현마을에 왔다. 1598년에 작성된 동래 지역 향안인 『만력 무술안(萬曆戊戌案)』에는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김정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그의 집안은 동래지역의 유력 집안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김정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제일 처음 부임하는 다대진첨사였을 것으로



1583년(선조 16) 무과방목(무과급제자 명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다대진선생안(다대진첨사 명단), 부산 총렬사 소장 오른쪽 첫 번째가 김정서

예상된다. 현재 남아 있는 다대진첨사 명단에는 김정서가 첨사로 부임한 날짜는 없지만, 임기를 마친 날짜는 1600년(선조 33) 9월 11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임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교체 이유 등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당시의 기록이 소략하여 다대진첨사로 재임할 때의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가 다대진첨사로 부임한 것은 전쟁 직후 의병장을 관군으로 편입시켰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무과 급제자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동래 지역을 대표하는 의병장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무과 급제자이지만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는 관직 생활을 하지 않고 고향인 동래에 있었기 때문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참전하였다. 1605년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9,060명에 대해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 2등, 3등으로 구분하여 책봉하고, 대대적인 포상이 거행되었다. 동래 지역 출신자는 모두 66명으로 이 가운데 1등으로 기록된 인물이 김기(金琦), 김정서, 송상현, 윤흥신이었다. 2등, 3등에는 그의 휘하에 있던 의병이 다수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가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안눌(李安訥)이 동래 지역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1608년 66명 중 그 공적이 뛰어난 인물을 선정하여 각 인물의 집 문 앞에 「의용(義勇)」이라는 편액을 걸게 하고, 그 집과 후손들에게 각종 역과 조세를 면하게 하는 「복호(復戶)」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안눌은 이를 시행하기 위

해 복호 실시 대상 명단(복호녹권(復戶錄券)을 작성하였다. 복호녹권에 이름이 오른 자는 모두 19명으로, 이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것이 김정서였다. 복호녹권에는 고(故) 첨사(僉使) 김정서라고 쓰여져 있어, 다대진첨사를 역임하고 1608년에는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안눌이 신원이 확인된 의병을 포상하기 위해 쓴 글이 『충렬사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래 변방의 백성들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나라 일이 어려운 날을 당하니 능히 순국(殉國)의 충성을 다하였다. (중략) 그 업적에 의거하여 성명을 모두 기록하고 순찰사(경상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각각 전답 1결(結)을 면제하여 특별히 지급하도록 하고, 따라서 지역(동래)에서는 호(戶)마다 노각 1인씩을 특별히 지급하여 (이들 집안을) 온전하게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무릇 부과되는 모든 역(役)은 일체 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그는 이들 공신에 대해 별도의 포상을 하기 위해 「별전청(別典廳)」이란 기구도 만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안눌은 기초조사만 마친 채로 임기를 마치고, 포상작업은 시행되지 못했던 듯하다. 1674년에 부임한 동래부사 권대재(權大載)는 이안눌이 하려던 일을 국왕과 조정에 알렸다. 왕이 이를 허락하자, 권대재 다음에 부임한 어진익(魚震翼)이 5명을 더 찾아 모두 24명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여, 별전청을 세웠다. 그러므로 24명의 동래 지역 의병을 별전공신이라고 부른다.

1709년 동래부사로 부임한 권이진(權以鎭)은 24명의 이름을 별도로 써서 충렬비각(忠烈碑閣)에 게시하였는데 그 처음 이름을 올린 것도 김정서였다. 김정서 이름 아래 쓰기를 ‘임진 4월 15일 이후로 창의모병(창의를 내세우고 의병을 모집)하여 힘을 다해 싸워, 적을 토벌하고 소산(蘇山)에서 기계(機械)를 설치하여 돌을 실어 와서 밤을 타서 적진에 떨어뜨려 적의 사상자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또 망우당 곽재우를 따라 같이 화왕산성을 지켰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김정서가 동래 지역의 외곽인 소산역(蘇山驛, 현 선두구동에 있었던 조선시대 역)에서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투석전을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래 지역에서는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인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향을 해왔으며, 일제강점기 때도 거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강릉 김씨 집안에는 김정서의 공적을 보다 자세히 기록한 『모충결의록(慕忠結義錄)』, 『기존록(記存錄)』 등이 전해지고 있다.

부산시 금정구 선두구동에 묘소가 있고 그 아래 그를 배향하는 상헌단



임진동래24공신공적비, 부산 충렬사

(上賢壇)이 마련되어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한 현창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도 여러 곳에서 거행되고 있다.

충렬사 경내에는 1988년 5월 14일에 제막식을 한 「임란 동래 24공신 공적 비」가 세워져 있다. 그 비석 뒷면에는 김정서를 제일 먼저로 하여 24명의 별전공신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명단 아래에 '동래부는 나라의 관문이라 임란의 화를 제일 먼저 당한 고장이었다. 당시 부사 송상현공을 비롯하여 왜적을 무찌르기에 값진 피를 흘린 분들은 무수하였다. 대군(大軍) 앞에 성은 함락되었지만 애국지민(愛國之民)의 충의가 목숨을 홍모(鴻毛)와 같이 하였다. 살아남은 목숨조차도 칠년간이나 의병의 대열에서 분전하였고 또는 지조를 지켰다. 난 후 공신녹권(功臣錄券)에 이름이 오른 자 실로 무수하나 그 중에도 가장 공적이 뛰어난 분들이 이십사공신이다. 그러므로 이 고장은 후인들이 일러 충의지방(忠義之方)이라 한다. 임란 칠년은 형극(荊棘)의 세월이자 난을 예상하지 못했음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난을 맞아 순국하였던 선열과 끝까지 항전 저항하였던 의사(義士)를 생각하면 이분들이 남긴 그 교훈의 뜨거움에 가슴이 저려들지 않는 이가 있겠는가. 나라의 위급에 일신을 버려 향토를 지키다 순국한 의열들의 덕행과 전공을 기리며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이십사제공(諸公)의 고명(高名)을 이 돌에 새긴다'라고 하였고, 이 비는 부산시의 지원하에 세워졌다.

안계덕

(安桂德, 1794~1867)

다대동 순흥 안씨 세거지 출신으로, 다대진의 무장

순흥 안씨(順興安氏)의 시조 안자미(安子美)는 고려 신종 때 무관으로 흥위위보승별장(興威衛保勝別將)을 지냈고 신호위상장군(神虎衛上將軍)에 추증되었다. 이후 순흥(영주시 순흥면 일대) 지역을 본관으로 삼았다. 아들로 안영유(安永儒), 안영린(安永麟), 안영화(安永和)가 있는데, 각각 1파, 2파, 3파를 이룬다. 다대동의 순흥 안씨는 1파에 속한다.



순흥 안씨 세거지가 있는 다대동의 전경

안계덕(安桂德)은 다대동 순흥 안씨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선 순조~철종 시기에 다대진에서 무관으로 복무했다. 그의 선대인 준영-해빈-은평의 경우 학생으로 입적되어 있으므로, 순흥 안씨가 다대진의 군관으로 복무하기 시작한 것은 안계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840년(헌종 6) 선략장군(종4품)의 품계로, 다대진의 병무를 총괄하였다. 1855년(철종 6) 고령에 가선대부(종2품)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



참고문헌

- 「동래부지」 (1740),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 (1759)
- 충렬사 안락서원, 「충렬사지」 (2011)

다. 1867년(고종 4) 74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장남과 차남인 혁진(熾璿)·혁규(熹奎)는 다대진의 진무(鎭撫)를, 삼남인 혁홍(熾鴻) 역시 다대진에서 군관을 지냈다. 이후 순흥 안씨 가문은 대대로 다대진에서 무임(武任)의 직역을 담당하였다. 다대진의 첨사는 종3품의 무반직으로 다대진과 부속 군영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900일의 임기가 있었으므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졌다. 순흥 안씨 가문은 대대로 다대진의 군관을 맡으면서 지역의 유지로 성장하였고, 첨사를 보좌하고 지역민을 안무하였다.

안계덕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증손자인 안기주(安麒周, 1863~1934)이다. 그 역시 가문의 전통을 이어 다대진의 병방을 맡았으며, 가문의 증손이자 지역의 유지로서 우리름을 받았다. 1907년(순종 원년)에 군대가 해산되면서 다대진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이 때 안기주는 서울까지 올라가 해산상황 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상경 당시의 일지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더 이상 첨사가 파견되지 않는 다대진 일대는 행정공백 상태에 처했는데, 이때 안기주가 지역민 우두머리 노릇을 하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첨사영에 배속된 토지를 불하할 당시에도 안기주가 주도하였다. 그런데 안기주는 첨사영의 토지를 농민에게 고루 나누어주고, 본인의 잇속을 챙기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그의 부하들이 이익을 보았다고 하며, 이 때문에 후손들에게 원망을 사기도 하였다.



다대 순흥 안씨 준호구(1843년) 상의 안계덕

조선후기 다대진 지역의 유지로서 세거지를 이루었던 순흥 안씨는, 현재 종손 안술호 집안을 제외하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의 집에는 안계덕과 안혁규 시기의 준호구 여러 통과 안기주의 상경일지 등이 전하고 있다. 가첩[족보]은 수십 년 전에 사라졌으나, 자체적으로 계보도를 정

리하고 있다. 또한 다대진 격군들의 격노가(格槽歌)도 전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유실되었다.

순흥 안씨 선대의 묘소는 현재 다대1동 롯데캐슬 몰운대아파트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그 자취를 찾기 힘든 상태이다. 후손의 증언에 따르면 안계덕의 묘는 위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안기주의 묘는 규모가 매우 컸다고 한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 (2012)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사하구의 세거지』, 『다대동 순흥 안씨 세거지』)
- 『다대 순흥 안씨 부사공파계보(多大順興安氏府使公派系譜)』, 필사본
- 후손 안술호 씨 소장 준호구 및 호적
- 후손 안술호 씨 구술(2017. 11. 20.)

윤흥신·윤흥제

(尹興信, ?~1592) (尹興悌, ?~1592)

임진왜란 때 다대진첩사. 1592년 4월 다대진성전투에서 동생 윤흥제와 함께 순절

윤흥신의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아버지는 조선 인종(仁宗) 때 외척으로 권세를 누렸던 대윤(大尹) 윤임(尹任)인데, 명종(明宗) 즉위 후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 할 때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 일파가 일으킨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숙청당했다. 윤흥신이 1582년(선조 15) 진천현감(鎭川縣監)에서 물러났다가 1592년 다대진첩사에 임명되어 부임하여 올 때, 서제(庶弟) 윤흥제도 따라왔다.

1490년(성종 21)에 성곽의 모습을 갖추었던 다대진성은 낙동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으며, 남해안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점령하지 않을 수 없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1592년 4월 14일 부산진성을 점령한 일본군의 선봉부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군은 승기를 타고 인접 지역의 서평포와 다대진을 공격하였다. 두 진영의 전투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서평포와 다대진이 모두 부산의 영역이었지만, 부산진보다 군사적 위상이 낮고 고을 규모가 작으면서도 외떨어진 곳이어서 당시의 전황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대진첩사 윤흥신이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죽은 윤임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대진전투에서 싸운 일본군은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의 일부였다.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는 6명의 성주(城主)들이 거느리고 온 18,700명의 군사들로 쓰시마(對馬島), 히고(肥後), 히젠(肥前) 출신이었다. 반면 윤흥

신이 지휘했던 조선군은 다대진성의 군·관·민이었는데, 조선 초기에 다대진성에는 전선 9척, 군사 723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이들이 윤흥신의 다대진전투 주력 부대였다.

당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4월 14일에 부산진성을 함락한 일본군의 주요 병력은 동래로 향하고, 일본군의 정찰대가 다대포를 접근했으나 조선군에게 격퇴 당하였다. 다음날 15일 다대진성은 동래성과 함께 많은 수의 일본군 공격을 다시 받아 함락되었다. 이때 윤흥신과 아우 윤흥제(尹興悌)는 최후까지 싸우다가 함께 순절하였다. 이처럼 다대진전투의 1차 교전에서는 승리했지만, 2차 본 전투에서는 패배했다.

윤흥신의 순절에 대해서는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 등 여러 기록에 나타나지만, 구사맹(具思孟)의 『조망록(弔亡錄)』에 가장 상세하다. “왜적이 성을 포위하자 역전 끝에 이를 물리쳤다. 그 휘하가 말하기를, ‘내일에 만약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와서 공격하면 그 세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나가서 피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하자, 윤흥신은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어찌 차마 떠나겠는가.’라고 하였다. 과연 이튿날 적군이 크게 닥치니 군졸은 모두 도망쳤지만, 윤흥신은 홀로 종일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어 죽었다.”고 한다 윤흥신과 동생 윤흥제는 1592년 4월 15일 다대진성에서 민·관·군을 독려하며 힘껏 싸우다가 다대포 객사(客舍) 근처에서 전사하였다.

먼저 윤공단(尹公壇)을 마련하여 다대진에서 제향을 올렸다. 1765년(영조



입구의 홍살문과 첩사윤공흥신순절비, 윤공단

41) 다대진첨사 이해문(李海文)은 윤흥신이 순절하였던 객사 옆, 옛 연못 터(현 부산유아교육진흥원)에 윤공단을 세웠다. 1761년(영조 37) 경상감사 조엄이 윤흥신의 기록을 찾아내고 포상을 요청한 지 4년 뒤였다.

한편 1766년(영조 42) 동래의 송공단(宋公壇)이 제 모습을 갖추면서 윤흥신도 추향(追享)하였다. 4월 15일 송공단을 개축하여 위치(位次)를 정하고 비를 세울 때, 동쪽 단에 배열하면서 이름이 송(송상현)·정(정발) 다음에 가게 했다. 동래부사 강필리(姜必履)가 윤흥신을 송공단에 추향하는 제문을 지었다.

1772년(영조 48)에는 조엄의 요청에 응하여 윤흥신을 충렬사(忠烈祠) 정전(正殿)에 추향하였다. 동래부의 충렬사는 임진년에 부사였던 송상현(宋象賢)을 배향한 곳으로 당시 순절한 사람들도 모두 향사(享祀)하는데, 윤흥신은 경내의 관장(官長)으로서 절개를 지켜 죽은 사람인데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청하여 향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1841년(헌종 7)에 홍종응(洪鐘應)이 「첨사윤공흥신순절비(僉使尹公興信殉節碑)」를 세웠다. 임진왜란 때 다대진전투에서 싸우다 순직한 윤흥신의 업적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염려하여 이때에 비로소 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윤흥신의 업적이 알려지게 된 과정과 업적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첨사윤공흥신순절비(僉使尹公興信殉節碑)」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다대진전투에 대한 최초의 확인 기록은 1757년(영조 33) 동래부사를 역임한 부제학(副提學) 조엄(趙臈)의 「윤공전망사적서(尹公戰亡事蹟跋)」였다. 자신이 동래부사로 충렬사를 참배할 때, 윤흥신이 신주(神主)에서 빠져 있음을 의아하게 여겼다. 조엄은 윤흥신의 사적을 찾지 못하고 1761년(영조 37) 경상감사가 되었을 때, 이미 윤흥신의 증직(贈職)이 있었음을 의정부(議政府)에 알렸다.

1763년(영조 39) 조엄이 일본에 통신사로 갈 때, 배를 검사하는 명무군관(名武軍官)으로 동행했던 이해문(李海文)이 다대진첨사가 되자 윤흥신의 사적을 적어 그에게 주었다. 1766년(영조 42) 다대진첨사 이해문은 조엄이 써 준 「다대진첨사 윤공전망사적서(多大鎭僉使 尹公戰亡事蹟跋)」를 벽에 걸어놓



임진전란도(이시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다대진성(아래)

고 비를 세우려 노력했지만, 이해문이 귀양을 가게 되어 순절비를 세우지 못하였다.

1767년(영조 43) 동래부사였던 강필리(姜必履)가 「윤공사절기(尹公死節記)」를 지어 윤흥신의 전공이 밝혀지지 않음을 애석히 여겼다. 강필리는 금정산 범어사 소장의 「국조전망인시식책(國朝戰亡人施食冊)」에서 다대진첨사 윤공(尹公)의 이름이 송·정 두 공의 밑에 쓰여 있음을 확인하고, 다대포의 함락이 4월 15, 16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엄은 순절비에 대한 내용을 아들 조진관(趙鎭寬)에게도 전했다. 순조(純祖) 때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된 조진관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비문은 지었지만, 비석을 세우는 못하였다. 헌종(憲宗) 때 조진관의 아들 조인영(趙寅永)이 영의정이 되자, 그는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동래부사 홍종응(洪鐘應)에게 아버지가 써 둔 비문을 주면서 부탁하여 1841년(헌종 7)에 「첨사윤흥신순절비」가 세워졌다.

비명의 전반부는 이조판서 조진관이 적고, 후반은 1841년 홍종응이 첨가하여 썼다.

한편 임진왜란 때 다대진성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죽음을 당한 의로운 백성들을 위한 순란사민비(殉亂士民碑)가 1834년 8월에 세워졌으며, 윤흥신의 동생으로 위험에 빠진 형을 끌어안고 함께 순국한 의사윤흥제(義士尹興悌)의 비도 건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윤흥신은 1604년 공포된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

券)에 1등 공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윤흥신은 정려(旌閭) 되고, 관직이 병조(兵曹) 참판(參判)으로 추증(追贈) 되었다.

또 시로써 윤흥신을 추모한 사람은 다대진첨사 이해문, 전 봉사(前奉事) 원중거(元重擧), 울산부사 조재선(趙載選), 동래부사 강필리, 관찰사 정존겸(鄭存謙), 성현찰방 강완(姜完), 김제윤(金濟潤)이었다.

1834년(순조 34) 동래부 군기감관(軍器監官) 이시눌(李時訥)이 부산진성전투와 다대진성전투를 그린 「임진전란도(壬辰戰亂圖)」의 하단에는 다대진의 치열한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현장을 위한 비와 단의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

윤공단 아래에는 윤공단의 설치 내력과 제사일을 적었는데, 다대진성 안에 윤흥신이 전사했던 곳인 연못을 그려 놓았다.

철종(哲宗) 연간에는 윤흥신의 시호(諡號)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95년(고종 32)에 다대진이 폐진(廢鎭)되자 소재지의 면장이 제향(祭享)을 맡았다. 1910년(융희 4) 경술국치(庚戌國恥) 후에는 윤공단의 보존과 제향에 일체의 방해가 심해졌다.

1970년에는 도시화 과정에서 윤공단을 다대진영지에서 뒷산 산정으로 옮겼다. 1981년에는 윤흥신장군의 석상을 동구 초량동에 세웠다. 2017년 7월에는 창작 오페라 윤흥신이 공연되었다.



2017년 오페라 윤흥신 포스터

정운

(鄭運, 1543~1592)

1592년 부산포해전 때 몰운대 앞바다에서 전사한 장군

정운의 본관은 하동, 자(字)는 창진(昌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1543년에 태어나 1592년 부산포해전에서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훈련참군을 지낸 정응정(鄭應禎)이다. 그의 부인은 청풍 김씨이다.



「국조인물고」 속 정운

1570년 무과에 급제한 후 웅천현감 등 여러 곳의

지방관을 지냈다. 1591년 전남 고흥 녹도를 수호하는 녹도만호가 되고(『국조인물고』에는 1592년에 녹도만호가 되었다고 함)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참전하였다.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수군을 이끌며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대첩 등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국조인물고』의 '왜란입절인(倭難立節人)'조에 정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의 성품은 젊었을 때부터 강개하고 호방하고 의협한 기풍이 있어 매번 절의(節義)에 따라 죽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공이) 이순신에게 말하기를 "적병이 이미 영남을 파괴하고 승리의 기세를 타고 한없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그 형세는 반드시 수륙으로 모두 전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부산을 빛낸 인물』 (20세기 이전 인물편)(200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 (2012)

진할 것입니다. 공께서는 어찌 이처럼 망설이며 출전할 뜻이 없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이 이내 선봉(先鋒)으로 스스로 청하여 곧바로 바다로 나가 도전하였는데, 적병이 대대적으로 이르자 여러 장수들이 모두 뒤로 달아났다. 공이 큰 소리로 부르기를 “여러 장수들이 임의로 진퇴를 하니,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하고, 적진을 뚫고 돌진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적군의 배를 격파하니 적군이 패배하여 달아났다. (중략) 그때의 적군의 기세가 등등하여 사람들이 감히 그들의 칼날에 맞서지 못하였는데, 감히 수군으로 적병을 공격한 것은 공이 실로 맨 처음 시작한 것이다. (중략)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공이 맨 먼저 전투에 나가 시험해본 공로로 인한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순신장군의 승전 이면에는 정운의 용맹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 1592년 5월 3일 일기에는 왜적이 부산으로 쳐들어온 것을 듣고 ‘녹도만호(정운)가 알현을 청하기에 불려서 물으니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왜적이 점점 서울 가까이 다가가니 통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으니 만약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바로 중위장(中衛將)을 불러 내일 새벽에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장계를 써서 보냈다’고 하였다. 정운의 성품을 짐작하고 남는 일기의 내용이다.

1798년(정조 22) 3월에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물운대에 세운 충신정공은순의비(忠臣鄭公運殉義碑)에는 부산포해전 당시의 그의 활약이 잘 나타나있다. 『충렬사지(忠烈祠志)』에 그 비문이 전하는데 ‘부산으로 진격하다가 다가지 못하고 적을 물운대 밑에서 만났는데 공은 홀연히 마음이 동하여 물운(沒雲)의 운(雲)자가 그 음이 공의 이름과 서로 비슷함을 깨닫고 이에 스스로 반드시 죽을 것을 결심하여 군 안의 일을 처리하고 말하기를 “내가 죽더라도 적이 알고 기운을 내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때마침 날이 저물고 바람이 급하여 장수들이 물러가고자 하거늘 공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 이미 적과 함께 살지 않기를 맹세하였노라”하고 드디어 나아가 힘써 싸우다가 유탄(流彈)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것이 공이 공(功)을 세우고 몸을 죽인 대략의 내용이다. 아아 공이 평소에 스스로 표면에 나서지 않고 관직이 가장 낮았으나

그 난(亂)에 임해서는 분발하여 언사가 장렬하고 의리가 엄하고 곧아 계책을 결단하고 용맹을 불러 일으켜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능히 적의 칼날을 무찌르고 국난을 막아내어 중흥의 위업을 이루는 터전이 되었으니 비록 그 몸은 죽었으나 그 공(功)은 더불어 견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당시 이조판서를 지낸 민중현(閔鍾顯)이 지은 것으로, 비석에는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가 글을 썼다.

이 비를 세우게 된 것은 정조 때 진행된 임진왜란 관련 인물 현창사업과도 관련이 있다. 1796년(정조 20)에 정운의 충용(忠勇)을 표창하고 드러내었고, 아울러 그의 8대손 정혁(鄭赫)을 찾아서 파격적으로 다대진첩사에 임명하였다. 정혁은 조정에서 주도하여 정운을 표창하는 일이 널리 펼쳐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물운대 위에 비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급히 서울에 사람을 보내어 민중현에게 글을 부탁하였고, 비를 세울 수 있었다. 서유대는 현재 해남군에 있는 정운의 충신각에 걸려 있는 충신문(忠臣門)이란 현판을 쓴 인물이기도 하다.



정운공은순의비(사하구 다대동 물운대 내)

그의 묘소는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에 있으며, 묘 앞에는 「증 자헌대부 병조판서 시 충장 하동정공휘운지묘(贈資憲大夫兵曹判書諡忠壯 河東鄭公諱運之墓)」라고 새겨진 비석이 서있다. 묘소 입구에 「충장공 정운장군의 묘」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정운은 1604년에 병조참판에, 1796년(정조 20)에 병조판서 겸 의금부훈련원사로 추증되었다. 그는 전남 고흥군 녹도의 쌍충사(雙忠祠), 전남 순천 해룡면의 충무사에 배향되어 있으며, 전남 해남군 옥천군 대산리 그의 고향에는 충신각(忠臣閣)과 충절사가 세워져 있다.

그가 사망한 곳인 부산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정운은 부산 지역의 임진왜란 공신과 순절하신 분을 모시는 충렬사에 그 위패가 안치되어 있어, 충렬사에서 배향을 하고 있다.



2017년 10월 20일 제425주기 정운장군 향사

무엇보다 그의 순의비(忠臣鄭公運殉義碑,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0호)가 세워져 있는 사하구에서는 순의비가 세워진 후 지속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1894년 편찬된 『영남진지(嶺南鎭誌)』에 수록된 「다대진지(多大鎭誌)」의 제향

소(祭享所) 조항에는 윤공단과 함께 정공단(鄭公壇)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운의 순의비가 있는 곳을 정공단이라고 하여, 정운을 추모하는 제단처럼 여기고 있었다. 정공단을 설명하기를 ‘몰운대에 있고, 매년 9월 2일 군관(軍官)을 보내어 제사를 거행하고 있다. 제사에 들어가는 물품은 다대진의 소속 관리들이 세심하게 마련하여 제사를 거행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제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사하구가 주최하고, 다대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향사(享祀)를 올리고 있다. 2017년 10월 20일(음 9월 1일) 제425주기 정운장군 향사를 몰운대에서 거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독축은 지역 인사, 초헌관은 구청장, 아헌관은 구의회위원장, 종헌관은 다대1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향사는 지역에서 주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사에는 지역주민과 관련 문중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정운이 수군을 통솔하던 장군이었으므로 해군에서 직접 참석하고 있다. 해군은 의례에 필요한 군악대 지원 등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조인물고』 26(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5)
- 『난중일기』
- 「다대진지」 (『영남진지』, 1894)
- 충렬사 안락서원, 『충렬사지』 (2011)

한광국

(韓光國, 1740년경~?)

다대포 어민의 고통이었던 미역세를 덜게 한 다대진의 관리

조선후기 청주 한씨(淸州韓氏)는 동래 지역에서 무관직을 역임했던 가문으로서 동래 땅에 들어와 거주한 시기는 18세기 초로 추정된다. 다대동에 대대로 세거지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청주 한씨는 기장군 반룡리에 거주하던 이들이 1720년경 다대동에 이주하면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다대동 청주 한씨의 입향조는 한도남(韓道南)이다.

한광국은 청주 한씨 문열공파(文烈公派)의 후손으로서, 구체적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1740년(영조 16) 전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족보에는 제사날(忌日)이 3월 3일(음력)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부인은 1748년생이며, 장남 창록(昌祿)은 1766년생으로 되어 있다. 『동래군지』(1937년)에는 한광국에 대한 조



진리 한광국 구폐불망비, 윤공단

금 자세한 기록이 있다. 『동래군지』 무과(武科) 조에는 한광국은 한도남의 손자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벼슬이 부호군(副護軍, 종4품)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무과 급제자 명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증직(贈職) 조에는 한광국과 그와 관련된 인물인 한덕성(韓德成), 한경식(韓璟湜)이 함께 나온다. 한덕성은 한도남의 아들로 중추(中樞, 중추부사)로 증직되었고, 한광국은 한덕성의 아들로 한광국 역시 중추(中樞)로 증직되었다고 한다. 한경식은 한광국의 아들로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고 한다. 중추는 중추부(中樞府)의 2~3품의 지중추부사, 첨지중추부사 등을 의 미한다. 특히 열전(列傳) 조에는 ‘한광국은 한도남의 손자로, 관직이 부호군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겪고 있는 폐막(弊瘼)을 해결하기 위해 누차 격쟁(擊錚)을 시도하였다. 이에 어촌에 사는 백성들이 부담하는 관세(藿稅, 미역세)를 혁파하여 육지와 바다에 사는 백성들이 조세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포구에 사는 백성[浦民]들이 이를 은혜롭게 여겨 비석을 세우고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중추에 증직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비석은 현재에도 남아 있는 「진리 한광국 구폐불망비(鎭吏韓光國祛弊不忘碑)」(1861년)이다. 폐단을 바로잡아 준 것을 잊지 못한다는 의미의 비석이다. 이 비석의 뒷면에도 관세와 관련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날 공덕



진리 한광국 구폐불망비, 원불교 다대교당

이 있는데 보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는 미역밭이 있는데, 미역을 관에 바치는 공납은 실제로 당나라 때 부주(濟州)에서 양귀비가 먹을 여지를 바칠 때의 공납과 같아서 매우 고통을 주었다. 다대포의 많은 호들이 이 때문에 거의 (도망치고 이주하여) 사라졌다. 그래서 한광국이 그것을 근심하여 감영과 서울 관청에 호소하면서 여러 번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다. 비로소 조정의 윤험을 받았는데 1763년(영조 39) 8월이었다. 지금까지 혜택을 본 것이 얼마인가? 다대진은 관방(關防)이므로 예부터 적의 동태를 살피는 후망(候望)의 폐단이 있었는데 이 또한 함께 혁파되었다. 그러므로 한광국의 공덕은 산수(山水) 사이에 다 있으니 거의 현한의 비(峴漢碑, 진한 때 양호의 공덕을 나타내기 위해 고을 백성들이 현산에 세운 비)보다 오래 갈 것이다.'라는 것이다.

한광국이 다대포 어민을 위해 힘쓴 것이 18세기 중엽인데, 비석은 19세기 후반에 세워졌다. 그만큼 다대포 어민들이 보기에는 공적이 많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는 것을 안타까워 1861년에 비석을 세운 것이다. 한광국이 다대진에 근무할 때의 공적인 업무내용에 관한 기록은 이 외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대포 어민들이 미역 공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경상감영과 서울로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동래군지』나 비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품계를 높이는 증직(贈職)이 이루어진 점도 알 수 있다.

한광국과 그의 집안은 『동래군지』의 여러 조항에 나올 정도로 지역의 유지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문에도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능력으로 관아에 근무할 수 있었다.

그의 묘소는 원래 다대동 입구 응봉 자락의 사태골(다대 현대아파트 입구 맞은편 산 언덕)에 있었으며, 「진리 한광국 구폐불망비」(1861)도 묘 앞 언덕에 세워져 있었다. 그 후 묘소는 아미산 자락의 해송아파트 단지에 포함되고, 비석은 윤공단(尹公壇)으로 옮겨졌다. 현재 사하구 다대동 윤공단(尹公壇) 내에 여러 선정비와 함께 보존되어 있다. 그의 공덕을 기리는 비는 1908년(대한

제국 융희 2)에 다시 세워졌다. 세운 사람은 「각 포민(各浦民)」으로 다대포가 아닌 주변의 포구 어민들이 세운 것이다. 이 비는 현재 윤공단 입구 건너편 원불교 다대교당 뒤편에 있다. 어민들이 힘들어했던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은 공덕을 잊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반세기를 전후하여 두 차례나 불망비를 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참고문헌

- 문기주, 『동래군지』(1937)(김동철 외, 『동래사료』 3(여강출판사, 1989)에 수록)
- 한건, 『다대포 역사 이야기』(다대문화연구회, 201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2012)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한광국 구폐불망비』, ‘수안동 청주 한씨 세거지’, ‘다대동 청주 한씨 세거지’)

임중생

(林重生, ?~?)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조카, 의주에서 사하구 신평으로 피난 온 평택 임씨 입향조



임중생 묘소와 비석(사하구 신평동 소재)

임중생(林重生)은 사하구 신평동 평택 임씨 입향조이다. 그의 조부는 황(篋)이며, 아버지는 승업(承業)이다. 승업은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형이므로, 중생은 임경업의 조카이다.

임경업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는 데 선봉으로

공을 세웠으며, 1등 원종공신에 봉해졌다. 후금(청)과의 전쟁인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 당시 임경업은 북방을 지키는 직책을 역임하였다. 이 때 임경업은 만주족이 세운 신흥강국인 후금(청)보다는 임진왜란 때 원조를 해준 명과의 의리를 지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명의 재흥을 원조하여 명으로부터 관직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명이 몰락하면서 임경업은 체포되었다. 그와 행보를 같이 하던 김자점은 자신이 연루될까 두려워하여 태도를 바꾸어 그를 처형할 것을 주장하니, 임경업은 결국 혹독한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역시 9촌까지 반역죄에 연좌되었으니, 죽거나 불뿔이 흩어져 도망하였다.

당시 관직 생활을 하던 임중생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 현재의 사하구 신평동 동매산 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원래 망후(望後, 혹은 망뒤)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다대진의 후망소(候望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혹은 임중생이 추적자가 없나 뒤를 돌아보았다고 하여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도 전한다. 이 지역에 있는 고개의 이름도 그 이름을 따서 망후 고개라고 한다.

이후 평택 임씨 후손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렸는데, 처음에는 도망자 신분이라 다대진 첩사가 길을 지나가도 나가보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동족인 동래부사가 망후 마을의 임씨를 찾아와서 어른 대접을 하자, 그제야 다대진첩사가 이 지역의 임씨들을 높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1937년 편찬된 『동래군지』의 성씨 조에는 평택 임씨가 세거성씨(世居姓氏)로 기록되어 있고 신평에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평택 임씨 대표적 인물로 임중생, 임기진(林基震), 임엽현(林曄鉉), 임순건(林淳健), 임형식(林亨植), 임병택(林炳澤), 임학조(林學祚)를 들고 있다. 임중생을 설명하기로 ‘충민공 경업의 후손으로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 행도호부사이고, 병자년 난 때 충주에서 왔다’라고 한다. 두 번째로 나오는 임기진을 임중생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 평택 임씨 중 임중생의 후손은 번성하여 그 수가 천여 명에 이르며, 4개의 분파를 이루고 있다. 또한 타지로 이주해 나간 사례도 많다고 한다.

임씨 문중묘가 동매산 꼭대기 근처의 체육공원에 있는데, 이는 신평 럭키아파트 주변 등지에 있던 임씨 선조들의 묘지를 근래에 합장한 것이다. 임중생의 묘는 입향조로서 그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묘비에는 「용양위 절충장군 겸 도호부사 임중생의 묘」라고 되어 있다. 비석은 기존에 있던 비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근래에 새로 세운 것이다.

참고문헌



- 사하지발간위원회, 『사하지』 (1986)
- 문기주, 『동래군지』, (1937) (김동철 외, 『동래사료』, 3(여강출판사, 1989)에 수록)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군지』 (1995)
- 『평택 임씨 맹산공파 신평문중 족보』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평택 임씨』, 『망후 마을』, 『사하구의 세거지』)
- 후손 임종기 씨 구술(2017. 9. 15.)

사하의
인물로

近現

1876년 근대 개항 이후

근현대

정치분야

- 민건호 부산 개항장 외교관, 1891-1893년 다대진첨사를 역임한 관료
- 박기종 민간인 철도건설운동의 선구자, 1893-1894년 다대진첨사를 역임한 관료
- 서석재 민주화투쟁에 40여 년간 열정을 바친 정치인이자 낙후된 사하구 발전의 밑그림을 그린 국회의원
- 손상영 사하구 발전을 위해 봉사한 지역활동가이자 시의원, 라디오 <자갈치아지매> 진행자
- 전두만 사하국민학교 출신의 부산시 초대 시의원
- 정기원 1950년 제2대 민의원(경상남도 부산 정(丁)구)으로 한국전쟁기와 직후에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쇄신한 정치인이자 교육자

민건호

(閔建鎬, 1843~1920)

부산 개항장 외교관, 1891~1893년 다대진첨사를 역임한 관료

1843년(헌종 9, 계묘) 8월 27일 전라남도 해남군 마포면 남계리(마산면 장촌리 남계마을)에서 태어났다. 1920년(경신) 1월 19일 별세하였다.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자는 성로(星老), 호는 해은(海隱)이다. 증정공 민신(閔伸)의 후손이다. 증조할아버지는 민백빈(閔百彬), 할아버지는 민경혁(閔敬爨)이다. 아버지는 민치호(閔致琥), 어머니는 삭녕 최씨 최원택(崔元澤)의 딸이다. 형은 민장호(閔璋鎬)다. 아내는 전주 이씨 이병규(李丙圭)의 딸이다. 아들은 민영진(閔泳珍, 민영국), 민영희(閔泳喜), 민영훈(閔泳薰)이다.

민건호는 관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력을 거쳤다. 1876년(고종 13) 수문장(守門將), 1883년 부산항 감리서 서기, 1885년 10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1886년 5월 부산항 감리서 서기관, 1886년 10월 금부도사



다대진선생안(다대진첨사 명단), 부산 총렬사 소장
민건호(왼쪽 첫 번째)

(都事), 1886년 동남포경사(捕鯨使), 1886년 전찰(電察)회사 중역, 1890년 10월 중화부사(中和府使), 1890년 11월 부산항 감리서 방판(幫辦), 1890년 12월 연산(連山)현감, 1891년 4월 다대진첨사 겸 동래 감목관(監牧官), 1893년 4월 친군총어영(親軍總禦營) 기사장(騎士將), 1895년 6월 농상공부 징세서장(徵稅署長), 1896년 9월 나주부 사판(查辦), 1896년 중추원 의관(議官), 1905년(광무 9) 가선대부 등이다.

1881년 박정양(朴定陽) 등 12명의 관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이 일본에 갔다. 민건호는 이현영의 수행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쓴 일기가 『동행일록(東行日錄)』이다. 한편 1876년 부산이 처음 개항된 이후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이 잇따라 개항되었다. 개항장에는 감리서(監理署)가 설치되었다. 1883년 8월 감리서 총책임자인 감리가 파견되었다. 초대 부산항 감리서 감리는 이현영이다. 이때 민건호는 감리를 보좌하는 감리서 서기가 되었다. 1881년 조사시찰단에서 맺은 이현영과의 관계가 1883년 부산항 감리서로 이어졌다. 민건호는 1883년 12월 부산에서 감리서 서기로 개항장 생활을 시작하였다. 중간에 고향 해남이나 서울에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감리서 방판(감리 아래의 실무담당 관직), 다대진첨사 등을 역임하면서 1894년까지 10여 년 동안 부산에 있었다. 이때 쓴 일기가 『해은일록(海隱日錄)』이다.



『해은일록』과 『다대진 각방 중기책(多大鎭各房重記冊)』, 부산박물관 소장

민건호는 1891년 4월부터 1893년 4월까지 2년 동안 다대진첨사로 근무하였다. 그가 다대진첨사로 있을 때, 사하 지역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한 일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청 시설이나 성벽 등을 새로 짓거나 고친 일이다. 이 내용은 재임 기간에 다대진의 색리(色吏, 업무 담당 향리)가 쓴 『다대진 각방 중기책(多大鎭各房重記冊)』(1893년)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중기책'은 1893년 7월 다대진첨사 민건호가 떠나면서, 후임자 박기중(朴琪滄)에게 인수·인계한 다대진 물품 조사서다. 민건호가 첨사로 있을 때 관아의 내삼문(3칸)을 새로 짓고, 혈소청(잠시 쉬거나 기다리는 방, 3칸)을 고쳐 짓고, 동헌의 대문인 진남루(鎭南樓, 6칸), 다대진성의 남문인 장관루(壯觀樓, 6칸), 삼문(3칸)을 다시 고친 것 등이다.

『해은일록』에도 다대진 관청 건물, 성문, 성벽 등을 고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892년 2월에는 객사의 수리비용을 다대포 각 어장에 나누어 담당하게 했다. 3월에는 다대진성 남문·북문 문추(門樞, 문지도리)의 파손된 부분을 점검하였다. 다대진 선창의 남쪽에는 제방이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이곳이 남림(南林)이다. 1892년 남림항 제방공사에는 다대진 주민들이 동원되었다. 민건호는 8월 16일 직접 공사 현장에 가서 점검하였다. 10월에는 객사의 안쪽 대문(내삼문(內三門))을 고쳐 짓는 비용을 다대포 각 어장에 나누어 담당하게 했다.

둘째,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분을 추모하는 일이다. 『해은일록』 1884년(고종 21) 6월 30일자를 보면 추모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민건호는 부산진에 보관되어 있는 『충렬지(忠烈志, 충렬사지)』를 빌려 보았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분들을 생각하면, 해가 바뀌어도 4월 15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 이안눌(李安訥)의 시, 동래부사 홍명한(洪名漢)이 쓴 동래부 순절도 서문, 부산진 순절도 서문 등 많은 내용을 적어 놓았다. 비분강개한 충절은 수백 년 뒤 후배로 하여금 목메어 울면서 감격하게 하므로 이를 기록한 다라고 하였다.

민건호가 다대진첨사로 재직하고 있던 1892년(고종 29, 임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300년 되는 해였다. 『해은일록』 1892년 4월 14일자를 보면, 「오늘 저녁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300년[5주갑]되는 날로, 다대진첨사 윤흥신(尹興信)이 순절한 제삿날이다. 그 동안 객사 동쪽에 비석과 제단을 세우고, 매년 이날 장교(將校)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했다. 하지만 금년은 어느 해와 매우 다르므로 내가 직접 제사 지냈다. 제사 때 큰 깃발을 줄지어 세우고, 군악(軍樂)을 연주하면서 제사를 지냈다. 제물도 갖추어 마련하였다」라고 적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300년이 되는 제삿날을 맞이하여, 다대진첨사로서 윤흥신 등 순절한 분을 기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하단 장시(場市)를 감리서 아래로 옮기는 문제와 관련한 일이다. 1892년 5월에 하단장을 옮기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하면 주민들은 시장이 옮겨가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호소하였다. 민건호는 주민들을 달래는 한편, 감리서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1일 감리서 아래로 하단장이 옮겨 갔다. 그러자 사하면 주민과 다대진 관원들이 다시 호소하고 민건호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6월 16일부터 하단장이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왔다. 사하면 주민들의 소원대로 하단장이 복구되자, 다대포, 괴정리, 장림리, 당리, 평림리 주민들이 하단장 복구를 기뻐하고, 다대진첨사를 칭찬하는 비(碑)를 세웠다. 각 동리 주민들이 세운 비의 내용은 『해은일록』 1892년 윤6월 12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괴정리 주민이 세운 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시장[하단장]이 다시 설치되니, 일천 가구가 그 덕택에 사네. 은덕이 동헌에 가득 차니, 백성들이 어진 정치에 교화되네」.

넷째, 기우제(祈雨祭) 관련 내용이다. 1892년 여름에 가뭄이 계속되었다. 『해은일록』 1892년 윤6월 3일부터 9일까지 일기에는 기우제 관련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비가 오기를 비는 기우제는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다. 윤6월 8일에는 다대진 아랫동네에 사는 무녀(巫女)가 토룡(土龍, 흙룡)을 만들어 기우제를 지냈다. 윤6월 8일에 동래부사 이호성(李鎬

性)이 다대진까지 와서 몰운대에서 제사 지냈다. 9일에 다시 승악산(勝岳山, 승학산)에 가서 제사 지냈다.

민건호도 다대진첨사로서 직접 기우제를 주관하였다. 일기를 보면 가뭄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면서, 술·고기·담배를 금하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윤 6월 3일 다대진 동현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오후에는 제문[기도문]과 제물을 마련하여 장관(將官)과 함께 몰운대 용추(龍湫, 용소)에 가서 제사 지냈다. 다시 삼경(한밤중)에 기우제를 지냈다. 이날 하루에만 3번 기우제를 지냈다. 4일에도 전날처럼 준비해서 당리(堂里) 승악산에 가서 삼경에 제사 지냈다. 승악산 아래에 사는 당리 지사인(知事人,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잘못하여, 다대진에 잡아와서 곤장 10대를 때리고 풀어 주기도 하였다. 7일에는 장관과 서리[향리]를 거느리고 몰운대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 12일 다시 승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 제문은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국역 해은일록』에 번역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울창한 저 승악산이시여! 우리 진(鎭)의 동쪽에 있도다. 그 신령님 제일 영험하시니, 능히 비 내리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도다. 수십일 동안 극히 가물어서 모든 농사 다 가망 없게 되었으니, 사방의 논밭은 타들어 가고, 온 경내 사람들은 경황이 없도다. 첫 번째 기우제 때 폐백 구슬 바쳤는데 흑시라도 성의 부족했는지요. 저의 성의를 말씀하지 마옵실 일이니 백성들의 실정을 잘 표달했사옵니다. 한번 비 내리어 적셔주신다면, 온갖 곡식들은 무럭무럭 자랄 터이고, 농부들은 서로 경하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수령은 백성을 길러주는 관리이고 백성은 길러지는 민이며, 산은 길러주는 산이요 신령은 길러주는 신이시니, 신령께서 백성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백성은 어떻게 신령님을 위하겠습니까. 신령께서는 이를 생각해주시고, 신령께서는 이를 생각해주시고 바라옵건대 제물을 드시옵소서.”

다대진첨사 민건호가 지은 이 제문은 사하 지역 기우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다대진첨사로서 일상적으로 행한 업무는 물론이고, 남립 부방루(浮舫樓)에서 활쏘기 시험을 주관한 일, 성황당에서 제사를 주관한 일, 일본 어민의 어장 침범을 막는 일, 각종 소송을 다스린 일 등 다대진첨사로 있으면서 사하 지역에서 행한 각종 일들이 『해은일록』에 기록되어 있다.



전남 해남에 있는 민건호 묘소

그가 태어나고 살았던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장촌리 남계마을에는 옛집이 남아 있다. 산소는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에 있다. 묘비에는 ‘가선대부 행 중화도호부사 여흥 민건호의 묘(嘉善大夫行中和都護府使 驪興閔公建鎬之墓)’라고 적혀 있다. 비문은 전 비서원 승(祕書院丞) 김영한(金甯漢)이 짓고, 손자 민형식(閔溼植)이 썼다.

민건호는 『동행일록』, 『해은일록』, 『해은만록』 등을 남겼다. 이 책들은 현재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문으로 쓴 이 책들은 부산근대역사관

에서 영인하여 출판하였고, 한글로도 번역되었다. 민건호가 쓴 이 책들은 개항기 부산 지역사는 물론이고, 한국근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다. 특히 개항장 부산을 살아간 한국인, 동양인, 서양인의 모습과 삶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다대진침사로 재임한 기간에 쓴 일기는 사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다. 민건호가 지은 이 책들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 때문에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곧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기종

(朴琪淙, 1839~1907)

민간인 철도건설운동의 선구자, 1893-1894년 다대진침사를 역임한 관료



1887년 관복 입은 박기종
(김재승,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 2005)

본관은 밀성(밀양)이다. 한자 이름은 「朴琪淙, 朴琪琮, 朴琪宗, 朴琪鍾, 朴淇琮, 朴淇鍾, 朴基鍾」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1839년(헌종 5) 11월 29일 지금의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나서, 1907년 별세하였다. 증조할아버지는 박운흥(朴運興), 할아버지는 박춘연(朴春彦)이다. 아버지는 박영순(朴英珣), 어머니는 오씨다. 아들은 박정규(朴鼎奎), 박창규(朴昌奎)다. 직계 선조의 경력은 알 수 없으나, 아버지가 동래부 무관들 기관 중의 하나인 장관청(將官廳)의 초관(哨官)을 지낸 것으로 보아, 대대로 무관을 지낸 집안일 가능성이 크다. 큰아들은 광무국 주사, 동래감리서 주사, 삼화감리서 주사, 함양군수, 밀양군수 등을, 차남은 수륜원(水輪院) 주사를 지냈다.

박기종은 관료 생활 이전에 부산 왜관에서 역관으로 일한 적이 있다. 부산

참고문헌

- 장경준, 「『다대진 각방 중기책』에 대해서」, 『박물관연구논집』, 11(부산박물관, 2004)
- 민건호, 『해은일록』 (1-5)(영인본)(부산근대역사관, 2006)
- 민건호 저, 김동철 외 역, 『국역 해은일록』 (1-6)(부산근대역사관, 2008-2013)
- 민건호 저, 김동철 외 역, 『국역 동행일록』 (부산근대역사관, 2008)
- 김동철, 『근대와의 만남, 말과 몸의 혼동(混動) : 개항장 부산을 산 민건호의 삶』,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 조정민 편(소명출판, 2013)
- 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감리서 방판 민건호와 그의 일기 해은일록』 (2014)
- 송혜영, 『동래지역 음·영·진성의 공간구조와 관아시설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왜관에는 서울에서 일본어 통역관[왜학역관]들이 2명 파견되었다. 이들만으로는 왜관의 많은 업무를 담당할 수 없었다. 이들을 돕는 부산 출신 하급 통역관이 '소통사(小通事)'다. 소통사는 부산 왜관과 거제도 옥포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박기중은 소통사 출신으로 1869년에는 거제도 옥포에서 일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그의 가장 빠른 경력이다. 소통사는 역관이므로 사절단으로 선발되어 외국에 갈 수 있었다. 박기중은 1876년 5월 제1차 수신사[정사 김기수] 때는 '통사' 4명에, 1880년 6월 제2차 수신사[정사 김홍집] 때는 통사 3명에 포함되어 갔다. 두 차례 연속으로 일본에 갔다는 것은 일본어 등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박기중의 관직 진출은 1880년 이후 두드러졌다. 1880년 용양위 부호군(副護軍), 1883년 용양위 호군 경희궁 위장(衛將), 1886년 부산항 경찰관, 1893년 다대진첨사 겸 동래 감목관(監牧官), 1893년 부산항 사검관(查檢官), 1894년 절영진첨사, 1894년 부산항 경무관(警務官), 1898년 외부 참서관(外部參書官), 1900년 증추원 의관(議官), 1905년 판리공사(辦理公使) 등이다. 이처럼 주로 무관직을 지냈다. 이런 경력 때문에 '박경찰, 박경무관, 박첨사, 박참서' 등으로 불렸다.

현재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박기중 유물을 보면, 「1893년 4월에 가선대부로 삼고, 다대포진 수군 첨절제사 및 동래 감목관에 임명한다」는 교지가 있다. 전임 다대진첨사 민건호(閔建鎬)가 쓴 『해은일록』 1893년 4월 26일자 를 보면, 민건호는 다대진첨사로 경찰관 박기중이 임명되었다는 전보를 받았다. 박기중은 7월 27일 다대진첨사로 부임하였다. 이날 오후(신시)에 다대진 장청(將廳)에서 전임과 후임 사이에 업무 인계인수가 있었다. 그리고 1893년에 작성된 『다대진 각방 중기책(多大鎭各房重記冊)』이란 책도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민건호 재임 때 다대진 색리(色吏, 업무 담당 향리)가 작성한 것이다. 1893년 7월 민건호가 후임인 박기중에게 인계한 다대진 물품 조사서다. 당시 다대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1급 사료다.



1893년 다대진첨사 교지(임명장), 부산박물관 소장

1893년 7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는 “부산항 어세(漁稅)에 관한 일은 검찰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다대진첨사 박기중을 사검관으로 임명하여 전적으로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고종의 허락을 받았다.

다대진첨사로서 부산항 어세를 책임지는 부산항 사검관이 된 것이다.

박기중은 1894년 7월 절영진첨사에 임명되었다. 1894년 8월 8일 다대진을 떠나 절영진첨사로 부임하였다. 1895년 군사제도의 개혁으로 절영진이 폐지되면서, 마지막 절영진첨사가 되었다. 박기중이 다대진첨사로 근무하면서, 사하 지역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민건호의 『해은일록』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조금은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부산항 모군(募軍)과 관련된 일이다. 개항장 부산에는 수출입 물품의 운반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도중(都中)'이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도중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흔히 '한산(閑散, 閒散) 모군'이라 불렀다. 1883년 8월에 수백 명의 부산항 모군들이 떼를 지어 하단포(下端浦)에 가서, 객주 집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일이 일어났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객주 집을 부순 것으로 보아, 하역업 등 자신들의 영업과 관련되어 문제가 일어난 듯하다. 박기중은 민건호와 함께 가서 이들을 달래고 해산시켰다. 부산항의 선박 하역 문제는 일본인 업자들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박기중은 일본 영사관에 가서 영사를

만나 모군 문제를 해결하였다.

사하 지역과 관련된 박기종의 역할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하단포’를 중심으로 한 기선업, 철도업 등 운송업과 관련된 일이다. 그는 1889년 4월 ‘통리아문’으로부터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기선회사’를 설립하였다. 부산항 감리서 관원인 정현철(鄭顯哲), 민건호, 마츠오 모토노스케(松尾元之助)도 참여하였다.

기선회사는 1890년부터 운항을 개시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작은 기선 1척을 사서 재래의 판선(板船)을 끌고, 부산항 부근과 낙동강 포구를 왕래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1890년 11월에는 좀 더 성능이 좋은 유노(雄乃)호를 사서, 좀 더 멀리까지 영업하였다. 그런데 1년 뒤인 1891년 11월에 배가 낙동강 하구에서 침몰하여 선원이 모두 사망하였다. 이로써 회사의 경영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선회사는 1893년 무렵 오사카(大阪)상선주식회사, 아사히구미(朝日組)와 협동 계약을 맺었다. 이때부터 영업권이 사실상 두 회사에 속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박기종은 기선회사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박기종은 1898년에 외부 참서관이 되었다. 이때부터 평생의 소원인 철도건설에 주력하였다. 낙동강 하구에 있는 하단포는 구포와 함께 낙동강을 이용한 화물의 집합지였다. 그런데 하단포 부근은 매년 많은 배가 침몰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안전한 육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박기종, 윤기영(尹基永) 등은 부산항-하단포[부하]를 잇는 약 6km의 경편철도[철로 폭이 좁고, 작은 기관차로 운행하는 철도] 건설을 1897년 농상공부에 신청하였다. 서류 문제 때문에 1898년 5월에 다시 신청하여 6월 3일 ‘부하철도회사’ 설립을 인가 받았다. 이 회사를 일반적으로 ‘최초의 민간 철도회사’로 보고 있다. 회사 임원은 대표(都)사장 이재순, 사장 안경수, 부사장 민영철, 경무원(經務員) 박기종 등이었다. 여러 번 측량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자금의 부족, 노선의 부적합, 경부선 건설 계획 등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특히 노선 중간에 있는 해발 130미터의 대티고개가 공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써 부하철도 건설은 실패하고 말았다. 박기종은 그 후에도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1909년 3월), 대한철도회사(1909년 7월), 영남지선철도회사(1902년 6월) 등 여러 차례 철도회사를 건설했다.

이처럼 여러 차례 회사는 건설되었지만, 실제 철도를 건설한 것은 아니었다. 박기종의 철도건설 계획은 근대 문명의 도입 단계에서 어느 나라나 겪는 시행착오의 한 단면이었다. 비록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기종은 민간인 철도건설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박기종의 첫 작품인 부하철도가 만약 건설되었다면, 하단포 부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사하 지역 사람의 이동과 물류의 유통에 크게 이바지했을 것이다.

그의 산소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있다가, 이후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으로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일광면에 있는 산소가 박기종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약하다.

박기종은 『상경일기(上京日記)』와 『도총(都總)』이라는 책을 남겼다. 『상경일기』는 1898년 3월 1일부터 1899년 2월 14일까지의 일기로, 특히 외교 관계의 주요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도총』은 1898년 6월 13일부터 1900년 9월 29일까지의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도총』에는 철도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책은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자료이다. 두 책은 2005년 부산근대역사관에서 출판하였다.

박기종은 부산 근대 교육사에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부산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1895년 설립된 ‘개성(開成)학교’다.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부산항 경무관이었던 박기종이다. 현재 봉래초등학교, 개성중학교, 개성고등학교(전 부산상업고등학교)의 세 학교가 각각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995년 부산상업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우면서, 그 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 앞에 박기종의 흉상을 세웠다.

현재 부산 지역 상공인의 중심 단체인 부산상공회의소의 효시는 1889년 설립된 ‘부산객주상법회사’이다. 1989년 간행된 『부산상공회의소 백년사』에 수록된 역대 회장 사진의 첫머리에 박기종 사진이 실려 있다. 1895년 박기종

은 부산항 경무관으로 있으면서, 객주 등 토착 상인의 조직을 만들고, 그들에게서 영업세를 거둘 목적으로 '부산상무소(商務所)'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의 경력과 관련되어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정공단(鄭公壇) 안에는 1893년 9월 순사청에서 세운 '경찰관 박기중의 영세 불망비'와 1895년 3월 교리군민(校吏軍民)들이 세운 '첨사 박기중의 영세 송덕비'가 있다. 그리고 그는 부산광역시 2005년 발행한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에 경제분야 인물로 선정되었다.

부산박물관에는 박기중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가 관료 생활을 하면서 입었던 관복[단령] 2점, 관모 1점, 대(帶) 1점, 관복 함 1점 총5점이 '박기중 관복 일괄'로 2012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문서류 25점, 전적류 3점, 사진류 5점 총 33점이 '박기중 유물 일괄'로 2013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5호로 지정되었다. 『상경일기』와 『도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2017년 5월 24일, '박기중 기념관' 개관식이 있었다. 기념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62번길(영주2동)에 있다. 중구청에서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박기중의 정신과 업적을 기념하고, 고지대 산복도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박기중 기념관'을 세웠다. 매주 일요일,



다대진선생안(다대진첨사 명단), 부산 총렬사 소장 박기중(오른쪽 첫 번째)

월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박기중은 사하 지역을 포함한 부산 지역 근대사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의 한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기준, 『박기중의 생애와 기업활동』, 『향토문화』 3(대화출판사, 1970)
- 김익환, 「구한외부참서관 박기중유고 「상경일기」」, 『도충』에 대하여, 『한일관계연구소기요』 2집(영남대학교, 1971)
- 윤병용, 「박기중선생의 생애와 유품」 『부산시립박물관연보』 1.2합집(1981)
- 김동철, 「박기중 관계자료 해제」 『동래사료』 4(여강출판사, 1989)
-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 「개항 후의 '회사' 설립을 둘러싸고-박기중과 기선업-철도업-(상)」 『조선학보』 140, 141(1991)
- 김재승, 「자료 : 부하철도회사」 『동서사학』 5(1999)
- 김동철, 「내말리지 못한 '근대의 꿈' 박기중」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근현대편)』, 부경역사연구소 편(선인, 2004)
- 장경준, 「『다대진 각방 중기책』에 대해서」 『박물관연구논집』 11(부산박물관, 2004)
- 김동철, 「박기중」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II)』 (부산광역시, 2005)
- 민건호 저, 김동철 외 역, 『국역 해은일록』 (1-6)(부산근대역사관, 2008-2013)
- 현문수·김동철,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박기중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2013)



서석재

(徐錫宰, 1935~2009)

민주화투쟁에 40여 년간 열정을 바친 정치인이자 낙후된 사하구 발전의 밑그림을 그린 국회의원



서석재(徐錫宰)의 본관은 달성(達成)이며 1935년 2월 15일 경상남도 창원군에서 태어났다. 부인 전순달 여사와의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 장남 서장원(인성GS 대표), 차남 상원(사업)이 있다. 2009년 12월 1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하였으며, 묘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금곡1길 331에 위치한 별그리다 양평 공원묘원에 안치되었다.

그는 1961년에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초에는 법학을 전공하여 법조계로 나가는 게 순리겠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교사직을 택해서 동아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제2세 국민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직업보다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택했다고 한다. 그는 교사 생활 6년 동안 교육자로서 문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지 않으면 바로잡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또한 곧고 착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뜻의 직선봉이라는 매를 만들어 타이르는 자세로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애썼다. 교사 시절의 별명은 '서박사'와 '썸퍼트'였다. 법학을 전공해서 그 당시인 4.19 직후의 사회상에 대해 자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에도 척척 답을 해 주니, 학생들이 '서박사'라 불렀다.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용서를 해도 고의로 하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끝내 고치고야 마는 선생님이었다고 해서 '썸퍼트'라고 불렸다. 40대 초반에 안정적인 교사직을 그만두고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험난한 야당 생활을 시작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1968년에 신민당의 총재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였다. 상도동계의 좌장격인 최형우 전 장관과 함께 2인자로 불렸다. 그는 의리와 담력으로 통하는데, 이는 그의 정치 역정을 통해 드러난다. '작은 거인'이란 그의 별명은 이를 뒷받침 하는데, 164센티미터의 키에 온몸을 던져 YS를 보좌하는 모습 때문에 붙여졌다. 그는 또한 '조직의 귀재'라고 불렸다. 92년 대선 당시에 불교 조직과 함께 '나라사랑실천본부'라는 사조직을 이끌었다. 이에 대해 고인은 "사람을 만날 때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났다"며 "사람과의 의리·인정을 신조로 삼고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을 모셔오다 보니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주민들은 서석재 의원을 늘 우직함 속에서 자상함과 따뜻함이 있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치인이 된 후 예상대로 험난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월급봉투 한번 제대로 가져다 준 일 없고 16년간 29번의 이사를 하는 고단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욱 그의 가족을 힘들게 한 것은 정치적 탄압과 그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항상 가슴 아픈 속내를 드러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11대 총선 때 서구에서 국회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후 제15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5선을 하면서 사하구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서석재 전 의원의 최대 업적은 사하구 지역의 지하철 1호선 유치활동이다. 당시만 해도 사하구는 변두리였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 운행공간이 서대신 동까지만 확정된 것이었다. 그는 당시 관선 부산시장(안상영)을 설득하고, "사하구민의 인구가 얼마인데 그걸 서대신동까지만 운행한다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장관 등을 만나 그 당위성을 설명하며, 지하철 1호선의 종착역을 신평까지 연장시켰다. 그는 내친김에 다대까지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의 예산 사정과 다대구간의

지질문제가 있어 공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늘 말하기를 언젠가는 1호선을 다대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에서 요직을 맡으면서도 늘 지역구를 직접 챙기면서 사하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있어야 할 상황에서도 그는 단 한시도 자신의 지역구를 잊지 않고 챙겼다. 그는 가락1·2·3단지 방음벽을 설치하고 하단로터리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고시했고, 지하철 공사로 교통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괴정천(槐亭川) 복개공사 예산을 확보하고, 을숙도문화회관을 유치했다. 또한 사하가 살아야 부산이 살아난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서부산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정부에서 부산지하철을 관리하는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는 당시 아시안게임과 신항만 건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채를 떠안게 되면 기존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하철 부채 7,300억 탕감,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 신발산업 육성자금 4,130억 확보, 가덕신항만 조기건설, 감천항 물류센터 조기완공 등 5선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힘과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그는 항상 특유의 우직함과 정직함, 굳은 의지로 찾아오는 주민들과 소탈하게 짜장면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1992년 그는 실형을 받고 서도 무소속으로 14대 국회



1995년 총무처장관 취임식, 국가기록원 소장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서석재는 상대후보자들로부터 '재판에 계류 중이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로 보낼 수 없다'고 공격받았으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것은 평소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지역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한 결과였다.

서석재는 1955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 동아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8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90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1994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수료하는 등 학문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1995년 모스크바대학교에서 역사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저술로는 1992년 『영원한 촌놈』(문학사상사)이 있으며, 총무처 장관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공적으로 1996년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참고문헌

- 서석재, 『영원한 촌놈』(문학사상사, 1995)
-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
- 서석재 국회의원 보좌관 구술(2017. 9. 4. / 9. 12.)

손상영

(孫祥暎, 1944~1996)

사하구 발전을 위해 봉사한 지역활동가이자 시의원, 라디오 <자갈치아지매> 진행자



1992년 여성자유대학 1기생들과. 손상영(중앙)

손상영은 1944년 9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서 출생하였다. 부산여자중학교와 부산테레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 졸업했다. 이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를 받고,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녀는 뜨거운 열정과 재능의 소유자였다. 특히 학창시절에는 물론 대학 졸업 이후에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온 실력과 웅변가였다. 그의 웅변 소재는 늘 서민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들의 불평을 양갈지게 호소하면서도 감정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여기에도 몇 만 명의 청중 앞에서 열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열변을 토하는 여성으로서 보기 드문 배짱을 지니고 있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그녀는 전공을 살려 호텔을 경영하는 활동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후 손상영은 지역사회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한국 자유총연맹 등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지역 여성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정신은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에서도 엿보인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에는 참여와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나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회를 조직하여 도움의 손길도 내밀었다.

손상영은 동주대학교에 출강하기도 하였으며, 부산여자대학교 교수직에 있으면서 후학 양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성 교육과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마을유아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녀는 아동들이나 학부모들과 담을 없애야 한다는 신념아래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상담하고 애로 사항은 없는지 살피면서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손상영은 자신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손상영은 투박하고 정감이 넘치는 자갈치 아지매였다. 매일 아침 7시 45분이면 MBC 라디오를 통해 <자갈치 아지매>의 투박하면서도 정감 넘치는 경상도 사투리가 많은 시민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아침식사 준비에 바쁜 주부도 출근길 만원버스에 시달리는 회사원들도 <자갈치 아지매>의 방송멘트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주제로 답답한 서민들의 속내를 시원하게 일갈해 주련지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자갈치 아지매>는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드물게 30년 장수의 금자탑을 세웠고 청취율 또한 최고를 자랑했다. 라디오 프로그램 최고의 영광을 이룩한 그녀의 열정은 다음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방송을 제대로 하려면 방송인으로서의 ‘끼’가 없고서는 안 되지요. 더구나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시민의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자갈치 아지매> 진행자인 나로서는 한시라도 방송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손상영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것은 1980년이였다. 결혼 전에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있어 방송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자갈치 아지매>의 진행을 맡아달라는 방송국 측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간혹 <자갈치 아지매>의 날카로운 일갈로 사회의 부정이나 부조리가 사정 없이 폭로되면 관련인사들이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올 때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속 시원하다’, ‘용기 있는 보도를 했다’는 격려와 칭찬이 쏟아지면 취재나 녹음과정에서의 피로가 일순간에 풀린다고 하였다. 당시 사연 중에 “나이 마흔이 넘는 사람이 독학으로 의대에 합격했으나 학비가 없어 애태운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방송을 듣고 독지가들이 성금을 보내주어 그 학생이 무사히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언론 인터뷰에서 손상영은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였다고 하였다.

한편 손상영의 방송 활동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자갈치 아지매>를 처음으로 경상도 토박이 여성이 맡았다는 점이다. ‘했는기랴요’, ‘캡니께’, ‘아이겠는교’, ‘그라모’ 등등 사투리를 금기로 여기고 있는 방송가의 규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상도사투리를 마음대로 구사하는 이 프로그램을 여태껏 진행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타지방 사람들이었다.

진행자 네 사람이 그동안 자갈치 아지매로 나왔지만 이들은 모두 서울 아니면 이북출신이었다. 손상영은 경상도 여성으로서 자갈치 아지매 역을 멋있게 해내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거리도 사고 방송현장도 살펴볼 겸 자갈치 시장으로 가서 몸소 체험을 하고 방송을 진행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방송 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소재로 사회의 부조리를 정화시키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골라 긁어주는 부산문화방송의 간판프로 <자갈치 아지매>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애청하는 가운데 부산의 명물로 굳어졌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남달랐다. 방송시간을 좀 더 길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부탁이 있었는가하면 앞으로 100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극한 애청자들도 있었다.

손상영은 <자갈치아지매> 라디오 진행과 그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힘입어 199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여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녀는 교육사회위원으로 부산시민의 생명줄인 낙동강 물 보전을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단조성 반대 건의서’ 채택에 앞장섰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복지증진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애쓰는 한편, 시의 행정이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수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의정 활동 중인 손상영

그녀는 언제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짧은 의정 생활 속에서 손상영이 의정 단상에 뿌려놓은 울긋불긋한 목소리는 시민을 위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탁상공론만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시정의 쇄신을

외친 시의원이었다.

부산에 새로운 여성의 별이 탄생했다는 찬사를 아낌없이 받았던 손상영은 1996년 1월 2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하였다. 장례는 1996년 1월 29일

사하구 당리동 자택 앞에서 부산광역시의회장으로 거행되었으며, 묘소는 양산 삼덕공원묘원에 있다. 그녀의 영결식 때 바쳐진 헌시를 통해 그녀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님께서는 남달리 불꽃같은 생을 이루시기 위해 1인 다역의 바쁘신 삶속에 한 지아비의 어진 아내로, 세 아들의 자애로운 어머니로, 부산의 아침을 여는 MBC방송인으로,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자갈치 아지매로, 우리들이 잊을 수 없는 대변자였으며, 대학 강단에서 후진을 위해 열강하신 교수님으로, 부산여성계의 별이 되신 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열정을 바친 일들은 일신의 영락보다는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주변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삶을 일구어내셨습니다.

영결식에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헌시 中

전두만

(田斗萬, 1909~?)

사하국민학교 출신의 부산시 초대 시의원



전두만은 사하국민학교(현 사하초등학교) 제4회 졸업생이다. 그는 1930년에 하단에서 서병수(徐秉洙), 장순혁(張洵爨) 등과 함께 하단노동야학교(下端勞動夜學校)에서 100여 명의 출석자를 회합하여 하단소비조합을 창립했다. 또한 기자로서 언론계에서 일하였다. 『동아일보』 1932년 11월 17일자 3면 11단 지국 소식란을 보면, 전두만이 괴정 주재기자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6년 4월 14일 『동아일보』에 부산부청 출입 일간신문기자들이 기자단을 조직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전두만은 여기서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두만은 1934년 부산지국의 사하분국장으로서 오두석(吳斗錫)과 함께 당시 김해군 대저면 맥도덕두(麥島德斗) 제방에서 재해(災害)로 움집생활을 하는 동포들이 수재(水災)를 당하자 폭우를 무릅쓰고 구호활동을 했다. 또한 그는 사하공립보통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수백 명의 미취학아동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급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사증축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두만은 수재민 구호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참고문헌

- 손상영 영결식 녹화 테이프(부산광역시의회 소장)
- 손상영 관련 자료(가족 소장)



4회 졸업생(1923년) 사진(『사하초등학교 100년사』)

실천하고, 또 한편으로
는 사하의 안정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전두만은
반탁(배탁)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1945년 모스크바 삼상
회의 결과 신탁통치 쪽으로 의견이 기울게 된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에서는
소련의 주장에 따라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으로 보도하였고, 이 오보 기사는
남한에서 광범위한 반탁운동이 전개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12월 28일 김구와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계 대표자들의 회합이 열리
고 이튿날에는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2월 29일 경
남기자회(慶南記者會)에서는 신탁통치 배격운동을 위한 결의문을 작성하기
로 하였다. 이튿날 김철수(金喆壽), 윤일(尹一) 등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은 중
앙동 민주중보사(民主衆報社) 앞에서 신탁통치 반대를 결의하고, 「신탁통치
배격 인민대회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좌우 인사들이 힘을 모아 반탁의 목소
리를 외쳤다. 준비회 구성원 중에는 전두만이 소속된 경남기자회(기자회 경
남지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12월 30일 도청직원이 총사퇴하기까지
하였다.

1946년 1월 1일 「신탁통치절대배격 부산시민대회」가 소개시장(현 국제시
장)에서 개최된다. 3일 서울에서 10만 명이 모여 「조선자주독립 민족통일전
선결성축성 시민대회」가 개최되었다. 같은 날 부산에서는 민주중보사 3층에
서 「신탁통치배격 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 때 선전부 상무
위원으로 전두만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후 타스 통신을 통해 삼상회의에 대한 정확한 기사가 알려지면서, 반탁

운동에서 좌익 세력이 분리되었다. 또한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반탁운동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전두만은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시기 부산시 초대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정부직원록』에 따르면 1952년 경상남도 부산시 의원으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시의회 내에서는 내무 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박철규, 「민주주의 민족전선 연구」 『국사관논총』 96(국사편찬위원회, 2001)
-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2008)
- 「下端消組創立」 『동아일보』 (1930. 9. 11.)
- 「釜山支局: 田斗萬 任槐亭駐在記者」 『동아일보』 (1932. 11. 17.)
- 「음生活하는 災民에게 誠心の 救護品分給」 『동아일보』 (1934. 8. 9.)
- 「沙下公普校 校舍増築運動」 『동아일보』 (1934. 10. 21.)

정기원

(鄭基元, 1899~1986)

1950년 제2대 민의원(경상남도 부산 정(丁)구)으로 한국전쟁기와 직후에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쇄신한 정치인이자 교육자



정기원(鄭基元)은 본관이 해주(海州)이며 1899년(광무 3) 3월 16일 황해도 은율군 남부면 석천리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 선천의 신성중학교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이어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동 대학에서 부교수와 동양도서관의 부관장으로 재직하였다. 미국에 유학하며 공부할 때 유학생들의 친목과 권리 증진을 위해 결성된 재미학생회(在美學生會)의 회장을 맡았다. 이승만(李承晩)이 미국에서 주미외교위원부 협찬부(駐美外交委員部協贊部)를 조직하자 정기원은 이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복 후 귀국한 정기원은 경상남도 군정장관 고문, 미국 정부전시전략정보국의 아시아 정보부장, 동아대학교 학장, 신문학원 원장,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부 위원장, 사단법인 대한군인유족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기원은 경상남도 군정장관 고문 당시 남선대학설립기성회를 후원했다. 남선재단(현 남성재단) 이사장이던 김길창(金吉昌) 목사를 비롯한 기성회원들은 1946년 9월 서대신동 구 입정상업학교(立正商業學校)를 가교사(假校



1974년 부산 영도의 신문학원 제5기 졸업식 정기원(앞줄 왼쪽 일곱 번째)(『경향신문』 1974.2.25.)

舍)로 하면서 그 학교의 총장으로 정기원을 추대했다. 이후 남조선대학(南朝鮮大學)으로 개명하고 남조선법문학원으로 임시 개교했다. 이는 동아대학교의 전신이었다.

그는 1950년 무소속으로 제2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경상남도 부산 정(丁)구(부산시 동대신동1,2,3가·서대신동1,2,3가·부민동·부용동·토성동·괴정1,2동·하단동·감천동·구평동·신평동·장림1,2동·당리동·다대동·홍치동·초장1,2동·완월동·암남동)에 당선되면서 사하구와 인연을 맺었다. 1952년에는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합동파 후보로 부통령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이영준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 후에도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상남도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3·15 부정선거 당시 자유당 서울특별시 동대문 을구 당위원장의 위치에 있었고, 196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 4호 '선거 당시 자유당 핵심

당위원장'에 의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되었다. 1961년 대한 민국 국회에서 관련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정기원은 1958년경 천부교 박태선의 신앙촌과 관련된 천성산업주식 회사(千城産業株式會社)의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의 행적은 알기 어려우나 197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기원은 한국전쟁 중에 국회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예의주시했다. 1950년 12월 24일에 진행되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휴회에 대한 긴급동의안」과 관련한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피땀을 흘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손수 나가서 싸움은 안할 지언정 뒤에 나가 …(중략)… 우리는 휴회를 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해서 매일 매일 모여서 지내 가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만 대구로 보낸다든지 부산으로 보낸다든지 하고 우리는 흠아비몸으로 있다가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휴회라는 말을 찾지도 안하고 우리가 휴회를 하면 휴회했다는 누명을 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원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위치가 어떠한 곳인지 인지해야 하며, 국회의 휴회는 전쟁을 함께 치르는 국민들의 상황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951년 2월 1일 「상이군경의 직업보도기관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서도 청년들이 전쟁에서 고생하는 바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사회부에서 직업보도기관(職業輔導機關)을 두어 상이군경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하도록 도와주자는 발언을 했다. 이처럼 그는 전쟁 상황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두었다.

또한 자신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평소에 가졌던 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당시 청년들이 선진국의 학생들과 같이 꿈을 펼 수 있도록 교육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당시 문교부에서 어떤 식의 행정을 도모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정기원의 1951년 2월 23일 국회 본회의 발언이다.

우리 당면 문제가 무엇이고 하니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 민주주의 정부의 시민답게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기관을 …… 교재라든지 첫째 교육내용을 우리가 고쳐야겠습니다. 교육하는 방식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중략)…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전문가라든지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나 기술전문학교라든지 대학교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원들에게 특별한 기술을 배워 주어 가지고 거기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혹은 기업체라든지 어떤 기관 안에서 직장 교육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단기지만 기술 양성소를 세워 가지고 노동자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이것은 문교에서 할 일입니다.

위의 발언에서 보듯이 정기원은 당시 젊은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운영자로서도 활동했기에 당시 학교재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학생의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경향을 지적하며, 학교재단이 사업 활동을 도모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요컨대 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현실을 꼬집고 적극적인 교육 현실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일선에서 주도적인 행정을 행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특히 1953년 3월 21일에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안」과 관련해 당시 대학에서 학교 구성원인 교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행정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인 형태의 대학 행

정을 피하고, 그로 말미암은 대학 교육의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부산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1951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수개월을 분과 위원회에서 거듭 검토해오던 '부산직할시 승격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부산직할시 승격안'은 1952년 4월 국회에서 85대 39표로 반대표가 더 많아 보류되었다. 그는 1951년 7월 4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산의 1만 명 이상의 중요 인사들이 부산시를 직할시로 승격하자는 청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산시가 직할시가 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1954년 3월 15일의 국회 본회의 기록에 따르면 정기원은 당시 내무위원장 조경규의 발언에 부산시가 직할시가 되면 3천명에서 5천명의 직원을 증원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기에 승격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발언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헌국회 때도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부산시에 없던 경찰국을 만드는 데에 약 5천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처럼 부산과 관련된 회의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는 전쟁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에서 부산이 가지는 위상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던 것이다.

정기원은 국회 외무분과위원장을 지내면서 한국이 국제질서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1955년 12월 8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그는 한국 항해술에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국제무대의 일원으로서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할 것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195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기록에서 그는 1945년 미국정부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하여 유엔총회에 제의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각 나라들과 같이 한국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원자력 과학연구를 위해 청년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에 청년들이 유학을 감으로써, 한국의 원자과학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기원은 그가 외국에서 수학하고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느낀

바를 국회에서 언급하면서 일제강점기에 가려진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1955년 4월 4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의 「문화재 해외 전시에 관한 동의안」 부분에서 '영국의 박물관에서 일본 부분에 한국 문화재들이 갖, 담뱃대, 두루마기, 저고리 등이 있었는데, 이는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을 야만인들의 국가로 인식하게 한다'라며 분개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그 박물관의 관장을 만나 한국의 역사를 모독하는 전시에 항의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관장이 한국이 4천년 역사에 겨우 100권의 책을 전시할 수밖에 없다는 농담식의 조롱을 듣기도 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한국에는 신라시대에 최고도의 문명이 발달했고, 금관과 같은 유물들이 발견되는 문화를 엿볼 수 있음을 세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원은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의 경험들을 토대로 세계가 인식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글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속(速)한 기간에 한글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글을 가지고서 ... (중략)... 또한 우리 문교부에서 적어도 문맹퇴치 하기를 4분의 3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기를 이용해서 한글 보급 시킬려고 기명식으로 한다면 하루아침에 다 배우게 될 이 좋은 글자를 가지고 왜 두 달이나 50일 동안에 가르쳐서 자기 성명, 세 자쯤 쓰도록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위의 활동 사항을 통해 정기원이 국내외의 상황들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요컨대 정기원은 전쟁 시 전투에 참여하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했다. 또한 그는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지니고서 대학과 사회 일반의 교육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밖에도 한국 문화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라 밖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모습을 탈바꿈하고자 애썼다.

정기원은 1986년 6월 14일 오전 10시 미국 뉴욕 맨해튼의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에게는 부인 석신경 여사와 슬하에 3남 2녀가 있었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 (2012)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정기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기원')
- 대한민국헌정회 (http://rokps.or.kr/profile/profile_view.asp?idx=1052&page=1)
- 황해도중앙도민회 (<http://www.hwanghaedo.or.kr/ab-2129-3>)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合法的脫稅를 劃策?」 『경향신문』 (1958. 9. 13.)
- 「公民權制限 自動케이스 該當者名單」 『동아일보』 (1961. 2. 1.)
- 「2.3代민의원 鄭基元씨」 『동아일보』 (1986. 6. 16.)
- 「鄭基元」 『경향신문』 (1986. 6. 16.)
- 나무위키('정기원') (namu.wiki)
- 위키백과('정기원') (ko.wikipedia.org)

사하의 인물

近現

1876년 근대 개항 이후

근현대

경제분야

- 박임봉 하단지역에 있었던 아시아 최대의 생산시설을 갖춘 비누 전문 제조업체 경영자
- 백제갑 접착제 기술개발로 한국신발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주)동성화학의 창업자
- 이원갑 부산의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부산방직공업을 설립·발전시킨 경제인
- 이운영 일제강점기 관리이자 경제인
- 정주영 사하지역 대표적 건설 업체 자유건설 대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제인
- 정태성/정혜덕 성장기업, 반도목재, 다대중양교회를 설립한 경제인
- 채동우 부산의 대표적인 장수 향토기업 오복식품의 창업주
- 최막석 사하변영양지회 회장과 사하양지장학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박임봉

(朴壬鳳, 1911~?)

하단지역에 있었던 아시아 최대의 생산시설을 갖춘 비누 전문 제조업체 경영자

박임봉과 김정관은 우리나라 비누 산업을 선도하였던 동산유지공업(東山油脂工業)을 일으킨 기업인들이다. 박임봉이 동산유지를 설립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그 부흥기인 1950년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에 유지공업에서 나름대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확인하기 어렵다. 1956년 공장명부에서부터 사명 확인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본점이 부평동 4가 24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9년 공장명부에도 본점주소가 부평동 4가 24로 나와 있어 초창기 본사는 시내 중심부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1959년 공장명부에는 경남 마산시 신창동 2에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점과 지점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흔히 동산유지는 범일동에 있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1964년 부산상공명감에는 주소지가 범천동 1261-1로 나온다. 이후 자료에서는 범일동 1561번지로 나오는데 여기가 범일동 공장 자리이다. 초기 동산유지는 화장비누, 세탁비누, 글리세린, 합성세제 등을 생산하였다. 동산유지 생산품은 대부분류로는 화학, 중분류로는 유지약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1964년 부산상공명감에는 대표가 김정관으로 등재되어 있다. 김정관은 1925년생으로 훗날 동산유지공업의 회장을 역임한다. 뒤에 보면 박임봉이 회장을 할 때, 김정관이 대표이사 사장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보아 동산유지공업은 박임봉과 김정관이 함께 경영하며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동산유지공업 제조공장 전경

동산유지가 설립되던 시기는 휴전 직후로 전후 부흥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조금씩 국민생활이 회복되면서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전후(戰後) 부흥을 주도했던 부산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설립되었는데, 특히 생필품이나 건축용 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동산유지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런 점에서 박임봉은 당시의 경제상황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한 시대적 감각이 앞선 사람이었다.

수요가 충분히 있었고 특히 부흥기 대부분의 물자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던 시절이었기에 설립이후 동산유지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누업계를 선도하였다. 종업원 수는 1962년 100명, 1964년 285명, 1969년 272명, 1972년 51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종업원 수가 기업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였는데, 동산유지는 10년 만에 기업규모가 5배로 커졌다.

기업규모만 커진 게 아니었다. 기술개발에서도 다른 기업들을 앞질러 나갔다. 1969년 '코티 스페시 샴푸'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샴푸를 제조 판매하였다. 1970년 고흥세탁비누 즉 흔히 사용하는 빨래비누에 한국공업규격표

시를 허가받았다. 1971년 '다이알 비누' 11만 1400개[44만 4990 달러를 1년에 걸쳐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다. 1972년 10월 30일에는 다이알 투명비누를 개발하여, 인쇄된 합성수지 필름, 셀로판지, 혹은 라벨 등을 매설하는 방법으로 발명특허를 획득하였다. 미국에 모노그램소프라는 명칭으로 4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동산유지의 대표적 상품 다이알비누 광고(『경향신문』 1970. 11. 7.)

회사가 커지자 1974년 사하구 하단동에 새로 대규모 공장을 지어 준공하였다. 현재 하단2동 SK뷰 아파트 자리이다. 그러잖아도 이 시기 부산은 공업용지 부족으로 큰 소동을 겪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공사를 시작한 사상공업지역이 완성된 것도 1974년이였다. 범일동 공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동산유지는 하단에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이전한 것이다. 이로써 동산유지는 두 공장체제로 운영되었다.

새로 지어 이전한 하단 공장에서는 비누원료를 주로 생산하였는데, 1977년 종업원은 373명이였다. 부산진구 범일동 본사에서는 비누와 글리세린을 주로 생산하였고, 종업원은 1,101명이였다. 이때까지는 아직 범일동 본사의 인원이 더 많았다. 그러나 1980년경이 되면 두 공장의 생산규모는 역전되었다. 1980년 부산진구 범일동 공장에서는 화장비누와 샴푸를 생산하였는데,

종사자 수는 422명이였다. 이때 하단 공장의 종업원은 1,507명이였다. 하단 공장의 규모가 더 컸던 것은 1978년 4월 29일 본사를 하단 공장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두 개의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시설을 늘린 동산유지는 1974년 7월 26일 세탁비누도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하루 생산량은 20만 장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총수요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였다. 새로운 제품의 개발도 계속되었다. 1975년 9월 19일 다이알 샴푸를 개발하였다. 1976년 인



김정관 사장의 인터뷰 기사 (『매일경제신문』 1972.7.13.)

삼의 유효 성분을 배합한 인삼 비누를 1976년 5월 7일 시판하였다. 당시 인삼 비누는 일본, 미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초기에는 전량 수출되었다. 일본 후생성 판매승인을 받고, 일본 전역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제일물산과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연 50만 달러 이상의 인삼 비누를 일본에 수출하였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던 1976년 동산유지는 기업을 공개하였다. 1976년 당시 기업공개자료에 의하면 자본금이 11억 원인데, 연간 판매고는 90억 원에 이르렀다. 매출액이 자본금의 9배에 달했다. 전체 판매량 중 화장비누가 49.8%, 세탁비누가 32.05%, 글리세린이 5%, 지방산 유지가 3%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동산유지는 비누에 특화된 비누생산 전문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화장비누의 경우는 국내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누생산의 외길을 걸어오던 동산유지는 1979년부터 다각화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6월 일일생산원료 기준 300톤 규모의 착유시설을 완공하여, 고급 식용유 양산에 들어갔다. 새로운 사업을 벌인 지 6개월이 지난 1980년 1월 21일 하단동 유지공장에서 지방산 정유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330평방미터(100평)가 전소되고 1명이 사망, 15명이 중화상을 입는 큰 사고였다. 그런 속에서도 동산유지는 1980년 7월 홍콩에 채종유 3000톤을 톤당 557달러로 39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비누의 개발도 계속하였다. 1981년 6월 '하이 보리' 비누를 개발하였고, 1981년에는 천연세제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1982년에는 거품이 잘 나고 물에 잘 붙어가는 성질[팽윤성(膨潤性)]이 적으며, 녹아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 연속식 비누봉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세계 8개국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러나 1982년 위기가 찾아왔다. 상공부가 1979년 세탁비누, 가방, 문구류 등 26개 업종을 중소기업 특화업종으로 지정했는데, 이로 인해 동산유지공업이 1981년 11월과 1982년 5월에 증설한 4만 톤의 세탁비누 생산을 중단하여야 했다. 그간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더하여 내려진 상공부의 처분으로 동산유지는 1982년 갑자기 위기로 빠져들었다. 1982년 9월 22일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주식은 관리 대상 종목으로 지정되고 27일부터 주식 매매가 정지되었다. 마침내 1983년 3월 14일부터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1993년 11월 27일 선경마그네틱(SKM)이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선경마그네틱은 동산유지 주식 28%인 11만 3000주를 6억 4200만 원에 인수하였다. 1994년 7월 30일에는 동산 C&G[clean & green life]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1994년 이후 생활 용품 생산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6년 12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고 '썬시 마일드' 브랜드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여 1년 만에 화장품 부문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회생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2차 부도로 다시 위기로 빠져들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1997년 종업원 수 1,000명을 411명으로 줄이고, 생산

제품 품목도 6,000개에서 150개로, 부서도 50개에서 24개로, 12개 지부 34개 사업소를 14개 팀으로, 부채비율 1,100%를 300%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11월 SKM[선경마그네틱]마저도 최종 부도 처리되고, 12월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동산 C&G는 칫솔을 만들던 중소기업인 크리오에 2003년 인수되었다. 이러한 혼동의 과정에서 하단동 공장은 1997년 3월 13일 매각되었고 기업은 천안으로 이전되었다.

동산유지는 부산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 최대의 생산 시설을 갖춘 비누 전문 제조업체였다. 동산유지는 특히 다이알 비누, 인삼 비누로 유명하였다. 집집마다 다이알 비누, 인삼 비누 하나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 비누 하나로 정상에 올랐던 동산유지공업은 사업 다각화와 무리한 확장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부산에서 성장해 전국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갔던 동산유지의 몰락은 많은 아쉬움을 준다. 동산유지가 있었던 하단2동 공장자리에는 현재 SK뷰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참고문헌

- 『全國主要企業體名鑑』 (1956)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연표』 (1-3)(2008)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동산유지공업')
- 크리오 (<http://www.drclio.co.kr>)
- 다음 팁 (<http://tip.daum.net/question/90270103?q=%EB%B0%95%EC%9E%84%EB%B4%89>)

백제갑

(白濟甲, 1927~1994)

접착제 기술개발로 한국신발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주)동성화학의 창업자



부산의 대표적인 장수 향토기업인 동성화학은 한국전쟁 때 월남한 백제갑에 의해 설립되었다. 백제갑은 1927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해방된 다음 해인 1946년에 신의주제일공업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전쟁 중에 월남하여 1951년 당시 전시 수도였던 부산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였다. 그는 부친과 함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가내공업형태의 '건민고무'

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고무장화나 방한화 등에 입히는 도료의 일종인 유성 에나멜 생산을 시작하였다.

1959년 11월 상호를 바꿔 '동성화학공업사'를 설립하여 동성화학의 모태를 마련하였다. 이듬해인 1960년에는 부산진구 가야동에 약 1천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슬레이트 지붕의 가건물 두 채를 지어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백제갑이 사장을 맡았고, 부친인 백성도가 지금의 회장 역할인 총지배인을 맡았다. 이 시기 회사는 이들 부자를 포함하여 총 직원이 7~8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였다. 초창기 시절 동성화학공업사는 가마 몇 개로 도료제품인 유성 에나멜을 생산하여 말(쇠) 단위로 판매하였다. 하루 평균 50~60말

정도씩 팔렸는데, 가끔 매상이 100말 정도로 증가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일을 마치고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곤 했다.

동성화학의 성장은 신발과 밀접하게 이루어졌다. 마침 경제개발과 함께 부산의 주력 산업이었던 신발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신발에 들어갈 케미컬을 대량 공급할 기회가 생겼다. 당시 신발생산에 필요한 케미컬을 모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동성이 이를 국산화하면서 1970~80년대 이른바 동성화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동성화학이 신발부품산업의 주역으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구조나 산업환경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창업자 백제갑의 기술과 연구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집념 때문이었다. 공업학교 출신인 백제갑은 배운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틈나는 대로 외국을 드나들면서 접착제 관련 기술을 하나씩 습득하여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설비증설, 공장신축과 자본투자를 통하여 1966년 정부로부터 수출공산품 생산업체로 지정되는 등 접착제 전문 업체의 면모를 갖추어 1970년대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성화학은 인재의 확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 우수한 연구원들을 많이 영입하고 장학금도 주면서 인재를 길렀다. 나아가 자체 연구소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우리나라에서, 동성화학은 일찍부터 연구소를 만들고 해외와 기술제휴를 통해 꾸준히 기술개발을 해 나갔다. 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백제갑 회장의 '정심최선(正心最善)' 정신은 바로 이러한 기술과 인재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을 개발하여도 좋은 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성화학의 성장에는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애사심도 큰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백제갑회장의 '동성가족'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작은 기업에서 출발하였던 동성화학에는 처음부터 '동성가족'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공장에 큰 불이 났는데, 모든 직원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바가지 하나라도 들고 사력을 다해 불을 꺾던 일화는 그러한 애사심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예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문화가 형성된 배경에는 창업자 백제갑이 언제나 생산라인에서 직원과 함께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식사도 같이 했으며, 작업이 끝난 뒤에는 사내 목욕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친숙함을 보여준 것이 바탕이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 내의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마스크에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탄을 보내주고, 불우한 아이들이 있으면 밤에 데려다가 저녁을 먹이고 공부를 시켜주기도 하였다. 건강보험이 없던 시절 나이 많은 분들의 병원비도 도와드리곤 했다.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였는데, 그런 것들이 애사심의 바탕이 되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인간적인 경영으로 동성화학은 1970년대 들어 접착제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이키, 아디다스 등 세계적 기업들의 운동화의 원료로 채택되게 되었다. 그 결과 동성화학은 198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신발용 접착제 시장의 무려 90%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쇠퇴기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동성화학은 신발산업의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먼저 이미 보유했던 독보적인 폴리우레탄 기반의 접착제, 도료, 수지 관련 기술을 신발산업 영역 이외의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1985년 말에는 본사를 부산 사하구의 신평장림공단으로 옮겼다. 산업용 접착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동성화학은 기존의 도료, 접착제, 수지 사업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 다각화를 통한 다품종 소량체제로 전환하면서 신발산업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는 와중에서 백제갑 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1988년 쓰러진 후 백회장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이때부터 많은 회사의 일을 아들 백정호에게 맡겼다. 부친으로부터 기업을 이어받은 백정호 현 동성그룹 회장은 부친의 창업정신을 이어받아 1980년대 후반부터 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노력하였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다. 창업자의 정신에 스며있는 동성그룹의 진취성과 결단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하였다. 백정호 회장은 이제까지 동성을 키워온 알짜배기 접착제 사업을 매각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금도 외환위기 극복 모범사례로 동성그룹이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력사업까지 매각하면서 강력하고도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 많은 사업을 매각하여 정체를 겪던 동성은 2000년대 후반, 접착제 사업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과 동성하이켐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사업다각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동성화학은 창업자 백제갑 회장이 만들기 시작했던 접착제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지만 산하에 동성코퍼레이션, 제네렐, 동성화인텍, 동성에코어, 동성티씨에스 등의 계열그룹과 해외법인을 둔 지주회사로 성장하였다.



1986년 6월 16일 본사이전 기념식 백제갑(앞줄 왼쪽 세번째)
(동성화학 역사관 홈페이지)

이러한 성장이 창업자 백제갑 회장의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과 도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의 결실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두

려워하지 않는 백제갑 회장의 진취성은 오늘날에도 동성을 움직이는 정신적 자산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경영은 백제갑 회장이 받았던 각종 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981년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시작으로 1991년에는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1997년 산업평화의 탑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한국노사협력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BBS 부산광역시연맹의 회장을 맡아 불우청소년들에게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었던 백제갑 회장은 쓰러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94년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원갑

(李源甲, ?~1989)

부산의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인 부산방직공업을 설립·발전시킨 경제인



부산방직공업은 방모 원단을 생산하는 부산 지역 기업으로,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8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를 잘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어쩌면 부산에서 100년 기업의 영광을 가장 먼저 기록할 수도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이 오늘날의 위치까지 올 수 있게 토대를 닦은 장본인이 바로 이원갑이다.

이원갑은 일본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몸을 담았다. 1940년 말에는 영주동 588번지에서 작업복과 셔츠 생산을 하는 원국피복 공장을 설립 운영하였던 것으로 일제시기 공장명부에서 확인된다. 해방이 후에는 동해철공, 경주흥업, 조선제마방 등의 경영에 관계하여,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53년 귀속사업체인 제마방직을 불하받았다. 귀속사업체가 전신인테서 알 수 있듯이 제마방직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세운 기업이었다. 일본 도쿄(東京)에 본점을 둔 제국제마(帝國製麻) 부산제포공장(釜山制布工場)이 그것으로 1934년 5월에 일본자본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의 위치는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현 가야 유림아파트 자리)이었으며, 공장장은 나가

참고문헌

- 구혜영 외, 「동성그룹 : 성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한국경영학회』 21(2017)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동성화학』)
- 「향토 기업을 찾아서: (주)동성화학」 『부산일보』 (1996. 11. 28)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동성화학 (<http://www.dschem.co.kr>)
- 부산인적자원개발원 (<http://bhrdi.or.kr>)
- 코참비즈 (<http://www.korchambiz.net>)



노 나오지로(長野直次郎)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해방 직후 귀속사업체로 관리되다가 한국인에게 불하되었다. 대체로 관리인들이 불하를 받는 것이 많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원갑은 불하를 받기 전 제국제마의 관리인으로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이원갑이 제국제마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된다. 제국제마를 불하받은 이원갑은 1949년 12월 회사 이름을 부산방직공사로 바꾸었다. 그리고 1953년 3월 31일에 자본금 5억 환으로 법인체를 설립하여 부산방직공사(주식회사)로 개칭하였다.

해방 직후 귀속사업체로 있다가 불하된 기업의 경우 부침이 매우 심하였다. 중도에 없어진 기업들도 많았는데, 부산방직공사는 성공적으로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하였다. 그럴 수 있었던 데에는 사장인 이원갑과 종업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었다. 제국제마는 일본인이 설립했지만 근로자들 중에는 한국인이 많았다. 이들은 부산방직공사가 된 뒤에도 그대로 머물면서 일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켰다.

귀속사업체들이 경영인과 종업원들 사이의 불화로 경영난을 겪었던 것이 비밀비재 하였던 상황에서 부산방직공사는 노사가 일체를 이루어 회사를 살려 나갔다. 부산방직공사가 다른 귀속사업체들과는 달리 회사 설립일을 불하 받은 날로부터 설정하지 않고 원래 일본인이 세웠던 연월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부산의 귀속 섬유업체로서 전국적인 시설규모를 자랑했던 조선방직과 조선견직 등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산방직공사가 이처럼 곳곳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설립자인 이원갑의 경영철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원갑은 '신뢰와 투명경영'의 철칙을 가지고 경영을 하였다. 단 한 번도 가공비용이나 인건비를 미룬 적이 없었다. 이원갑이 사장으로 있는 동안 단 한 차례의 물품대금 지불연장이나 노사분규도 없었다. 회사에서는 담당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소신껏 일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철학에 따른 경영은 술한 화제를 낳으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아 갔다.

정도를 걷는 경영이 외부에 널리 알려지면서 은행과 거래처들도 '부산방직공사는 절대 부도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부산방직공사에 소속된 회사 관계자의 지장만 찍은 어음이 재래시장과 사채시장에서 지불수단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기업들이 발행한 어음보다 인기가 높을 정도로 부산 지역에서 신용을 확보하였다.

이원갑은 선비정신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근면과 검소가 그의 생활 신조였는데, 이러한 정신은 경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원갑은 기업규모가 너무 크면 좋은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기업이 너무 커지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알맞은 경영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이원갑 회장의 철학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양이 아닌 질 위주의 경영을 도모하였다. 이원갑은 항상 무리하여 기업을 키우려 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파면서 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는 경영방식 때문에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부산방직공업의 외형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창립 60주년이었던 1994년에도 종업원 420명에 매출액 3백억 원 규모였는데, 이후 종업원 규모는 오히려 더 작아졌다.



1960년대 초반 부산방직공업

그렇지만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는 과감했다. 꾸준히 시설을 근대화하고 제품을 개발하였다. 8.15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해서는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밀수되던 파일 오바지(털 코트)를 개발하여 외화절약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캐시미어 양고라 특수지, 특수모 이중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잇달아 개발하였다. 1962년 2월에는 모직물 가공설비를 확충하여 방모직물 일관 작업을 시작하였다. 기술개발과 시설개체를 꾸준히 한 뒤 1964년 2월에는 부산방직공업으로 개칭하였다. 기술개발의 성과로 1975년 5월에 IWS(International Wool Secretariat, 국제양모사무국) Wool Mark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이윽고 사업도 확장하였다. 1984년 11월 1일에 부산방직공업 마산 공장(방모기 5대)을 설립하였다.

오랫동안 탄탄하게 기업을 키워오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적 중임도 맡게 되었다. 이원갑은 1976년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에 선출되었으며, 방모공업협동조합 이사도 맡았다. 그러면서 2세 승계와 본사 이전을 준비하였다. 1981년 8월 17일 이원갑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회장에 취임하였다. 경영은 장남인 이동건 사장에게 맡겼다. 이때 부산방직공업 계열기업으로는 삼신상사와 국제전열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간의 공로로 1984년 조세의 날 기념식에서는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사하로의 본사 이전을 독려하면서 아들의 경영을 지켜보고 있던 이원갑 회장은 마무리를 보지 못하고 1989년 타계하였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다. 자신이 부회장을 맡았던 부산상공회의소 사무국 직원들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하라는 유지를 가족들에게 남기고 작고한 것이다. 이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유가족들은 당시 장례식을 치르면서 모은 부의금 5천만 원을 부산상공회의소에 기탁하였다. 상당한 기금이 조성됐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기금 운영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이원갑 회장의 손녀인 이희정 씨가 1999년에 2천300만 원을 추가 기탁하면서 목민장학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아들인 이동건 부산방직공업(주) 회장이 2002년에 2천350만 원을 추

가 기탁하는 등 장학회 설립자 측의 노력과 장학회 운영위원회의 기금 운용을 통해, 2010년에는 2억4천여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다. 목민장학회는 기금이 줄지 않도록 매년 이자 가운데 5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상공회의소 직원들 자녀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해 매년 5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원갑 회장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기업과 장학회는 부산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부산방직 신평공장 조감도



현 부산방직 전경

1993년 5월 이원갑 회장이 타계한지 4년 후 부산방직공업은 사하구 신평공장을 신축 완료하고 본사를 사하로 이전하였다. 이원갑 회장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사하에서 결실을 본 것이다. 부산방직공업은 1995년 3월에 코스닥에 등록하였으며, 장외시장 종목 중 주당순익(EPS)이 가장 좋은 품목으로 등극하기도 하였다. 당시 부산방직공업의 주당순익은 7만7천1백7원에 달했다.

부산방직공업은 모직물 직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여 순모와 캐시미어, 알파카, 양고라, 모헤어, 카멜 등의 특수 모직물 및 기타 소모, 방모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비비 퀸텍스'는 오랜 전통의 상표이다. 1996년부터는 의류 사업부를 신설하여 고품질 의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의류 부문은 방글라데시 등 현지 임가공을 통해 남성복과 여성복, 니트(Knit), 다운재킷(Down jacket) 등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 및 일본 수출을 병행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전성기를 지나 사양 산업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한 목소

리에도 불구하고 부산방직공업은 모직물 제조업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중소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고 작지만 알차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이원갑 회장의 철학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부산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된 기업의 하나로서 부산방직공업은 앞으로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크지는 않더라도 알찬 기업으로 한길을 걸어야 한다는 이원갑 회장의 철학은 많은 부산기업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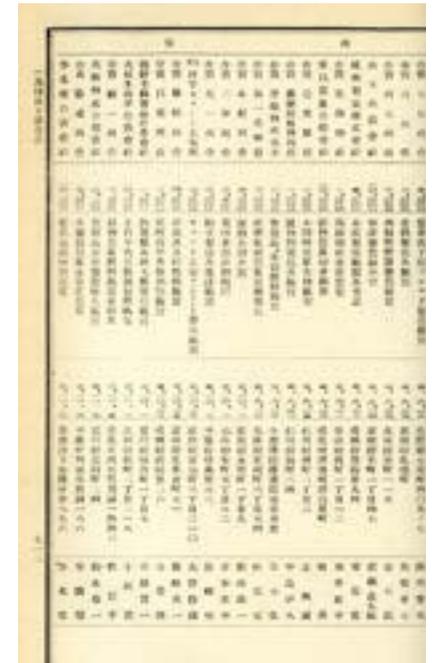
이윤영

(李允榮, ?~?)

일제강점기 관리이자 경제인

이윤영(李允榮)은 일제강점기 사하에 살았던 관리 겸 기업인이었다. 주소가 동래군 사하면 괴정리 832번지로 되어 있는데, 당시 괴정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 부산의 중심지에서 대티고개를 넘어 사하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하지역에는 경지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윤영은 1919년부터 1925년까지 6년간 사상면장을 지낸 것이 확인된다.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서 제1차 산미증식계획이 끝나는 해까지 면장의 지위에 있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윤영은 일찍부터 괴정에 터를 잡고 살았던 지역유지로서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면장에 임명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이윤영은 일본인들이 만든 기업에 감사로 오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41년판) 이윤영(상단 왼쪽 첫 번째)

참고문헌

- 김태현, 『부산기업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4)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부산방직공업』)
- 「産業人脈 (279) 毛紡工業 (7) 紡毛紡 [完]」 『매일경제』 (1976. 11. 4.)
- 「租稅의날 陳총리치사 鄭在恩씨 등 23명에 훈장」 『경향신문』 (1984. 3. 3.)
- 「織物(직물) 한우물파기 60년」 『동아일보』 (1994. 5. 24.)
- 「모직의길 부산방직 창사 60돌」 『한겨레』 (1994. 5. 26.)
- 「부의금이 '증자돈' 부산 목민장학회 10년째 선행」 『부산일보』 (2010. 4. 1.)



기간 참여하였다. 조선은행회사요록(1923년 판)에 의하면 이윤영은 부산자동차(주)의 중역에 선임되었다. 이 회사는 1920년 3월 30일에 설립되었는데, 업종은 운수창고업으로 본점주소는 부산부 본정(本町, 지금의 동광동) 1에 있었다. 자본금 300,000원이었는데, 불입금은 90,000원이었다. 회사설립 목적은 대절 및 정기 자동차의 운전, 화물운반, 자동차 및 부속품의 판매, 자동차의 수선 및 수입(輸入), 자동차용 유류 판매, 자동차 운전, 기타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었다. 1922년의 배당률은 8%였다. 사장 겸 대표이사는 일본인 사야 다키타로(佐谷瀧太郎)이었고, 이윤영은 감사로 참가하였다. 주식 수는 6,000주, 주주 수는 178명이었는데 대주주는 주로 일본인이었다.

조선은행회사요록(1925년판)에 나타난 부산자동차(주)의 자본금과 불입금은 이전과 변화가 없었으며, 이윤영은 계속 감사를 맡고 있었다. 조선은행회사요록(1927년판)에 나타난 자료에도 이윤영은 부산자동차(주)의 감사를 맡고 있었는데, 여전히 대주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이윤영은 면장직을 역임하였고 이후에도 일본인들의 기업에도 꾸준히 관계하고 있었는데, 조선인으로서 이윤영 집안이 지역의 유지(有志)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참여가 이윤영으로서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당시 일본은 자국의 부족한 식량해결을 위하여 한국 쌀을 가지고 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이윤영은 관리를 하면서 시대적 흐름을 익혔을 것이다. 또한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만든 회사에 감사로 참여하면서 비록 경영을 직접 맡아 본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경영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은행회사요록(1931년 판)에 의하면 이윤영은 자신의 이름을 딴 합자회사 '이윤영(李允榮)'을 설립하였다. 설립일은 1930년 11월 10일이었다. 업종은 상업으로 건초, 고곡물류(藁穀物類) 매매로 자본금은 10,000원으로, 본점은 당시 경상남도 사하면 괴정리 896에 두었다. 괴정에 본점을 둔 이 합자회사는 건초, 가마니, 곡물류 등을 매매하는 회사로서 농산물 유통업의 일종이었다. 당시 괴정은 농업이 주업이었는데, 이윤영은 괴정에서 나오는 건초



1964년 대한제빙소(『부산일보』 2017. 3. 27.)

와 가마니 그리고 곡물 등을 외지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해방 후 이윤영은 부산수산회사를 불하받았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기업은 적산(敵産)으로 미군정으로 이관된 후 관리 또는 불하되었는데, 부산수산회사는 한국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20일자로 52만 원에 이윤영에게 불하되었다. 회사는 중구 남포동 1가에 있었다. 부산수산회사는 1889년 조선의 수산물을 매집하여 일본에 수출할 목적으로 당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자본가 10명이 발기하여 설립하였다.

또한 경제연감(1949년판)에 의하면 이윤영은 해방직후 대한제빙소(大韓製氷所)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업종은 화학공업이고 본점 주소는 경상남도 부산부대교로(大橋路)였다. 자본금은 558,340원으로 당시 귀속사업체 가운데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었다. 이 대한제빙은 부산수산조합이 부산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육상 냉동 공장으로 1931년 일본 기업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후 귀속사업체로 접수된 것을 1948년 이윤영이 불하를 받아 초대 사장이 되었다. 이 대한제빙은 우리나라 냉동냉장업의 첫 역사를 연 것으로 부산냉동냉장업의 효시라고 보아도 좋다. 대한제빙은 훗날 (주)대한수산으로 이어진다.

부산수산회사와 대한제빙소의 경영에 관해서는 더 상세한 기록이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수산관련 회사를 이윤영이 불하 받은 것은 바닷가 가까이에 위치한 사하라는 지역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해방직후 적산의 관리 및 불하는 연고권이 가장 우선시되었지만 지역 유지나 자산가들이 대체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윤영이 수산회사를 경영한 경력은 없지만 기업인의 경력 및 지역 유지라는 지위가 수산회사 및 냉동 창고를 불하받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하에 살면서 항상 바다를 보며 사업 감각을 키워왔던 것도 수산회사와 냉동 창고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방직후 이윤영의 기업경영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 같다. 1949년 이후의 기업명부에서 이윤영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사하에 뿌리를 내린 관리 및 기업인으로서 사하지역을 대표하였던 이윤영은 해방직후의 혼란기에 기업인으로 변신하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 같다. 잘 알다시피 해방직후는 엄청난 격동기였다. 이윤영의 정확한 생몰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업을 불하받았던 시기에는 이미 상당히 나이가 들었던 것도 새로운 시대의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정주영

(鄭珠永, 1923~1999)

사하지역 대표적 건설 업체 자유건설 대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제인



자유건설 대표이사를 지낸 정주영은 경남 사천에서 출생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정주영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1942년 일본 남초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해방 전후 시기 정주영의 활동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정주영이 나중에 경영하게 되는 자유건설은 1957년 이만춘에 의해 경남 사천에서 설립되었다. 당시 자본금은 2천만 원으로, 설립자 이만춘은 정주영의 친구였다. 이후 자유건설은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게 되는데, 정주영은 1976

년 1월에 자유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주영은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자유건설을 키워나갔다. 자유건설은 1967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건설업계에 본격 출발하였다. 창립 이후 정주영은 1970년대까지 건축 사업에 주력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동래여전 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대학 캠퍼스 공사를 많이 하였다. 정주영은 동아대학교 정수봉 이사

참고문헌

- 동아경제시보사, 『조선은행회사요록』 (1921 · 1925 · 1927)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19 - 1925)
-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49)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 부산수산회사 ')



장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러한 인연으로 특히 동아대학교 건물을 많이 지었다.

이러한 대규모 교육시설 공사를 맡으면서 자유건설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교육시설 건축은 두 가지 이점이 있었다. 대학이 확장되고 또 활발하게 신설되고 있던 시절이었기에 꾸준한 일감을 제공해 주었다. 주택 건축의 경우 경기변동의 여파를 많이 타지만 대학 건축은 그러한 위험이 적었다. 또한 대학 건축물을 지으면서 지역의 우수한 건설업체로서 이름을 알리고 각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 건물 건축으로 기반을 다진 정주영은 1980년대 들어서 주택사업과 대규모 토목 수주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우암 자유아파트 1천5백여 세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세대의 아파트와 활발한 토목사업을 수주하였다. 정주영은 괴정에 자유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였는데, 당시로서는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아파트였다. 부산에서 돈 있고 조용한 곳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하로 몰려들었는데, 그 바람에 사하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정도였다. 정주영도 이 아파트에 살았다. 이 아파트 부지는 원래 동아대학교 운동장이 있던 곳으로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사용되었던 동아대학교 농대 부지의 일부였다.

이후 관급공사 수주도 호조를 보여 녹산국가공단 조성사업, 지하철건설사업 등 부산에서 벌어진 굵직한 관급공사 대부분에 참여하였다. 그러한 실적으로 1993년에는 부산업체로서는 최초로 1군 건설업체에 진입하여 전국적인 업체로 성장하였다. 또 기술력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1996년에는 부산 건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ISO 9001인증을 획득했다. 1994년에는 도급 한도액 1천2백92억 원을 기록, 1천억 원대를 돌파했다.

1996년에는 1,344억 원을 기록하여, 도급 한도액 전국 순위 99위를 차지하였다. 1997년에는 시공 능력 공시액이 1,392억 원으로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 중 6위를 기록했으나 서울에서 진출한 업체를 제외한 순수 향토 건설업체로는 사실상 1위였다. 1996~1997년의 2년 동안에만 5,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였다. 완벽한 시공을 위한 사전, 사후관리시스템과 하자

보수 기동반을 부산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정주영은 사회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면서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였다. 1981년부터 대한건설협회 부산시 지부장을 지냈으며, 1985년 5월 6일 건설업체의 회장으로서 처음으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였다. 1993년에는 지방에서는 최초로 1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한국 건설업을 이끌기도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12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주영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부산의 숙원이었던 부산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을 1987년에 유치하였는데, 부산의 상공인을 대표하여 많은 지원을 하였다.

부산에 본사를 둔 생명보험사인 한덕생명보험(SK생명에 흡수합병, 미래에셋에 인수 되어 미래에셋생명으로 개명)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산의 기반시설과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으면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역임하였으며, 부산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의 김영삼 후보 부산 지역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처럼 정주영 회장은 다양한 활동으로 부산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러한 공로로 1995년 정주영 회장은 제13회 경영대상부문 부산산업대상을 받았다.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업 진흥을 위해 헌신한 인사를 발굴하여 매년 수상하는 상이다.

정주영 회장은 이전에도 1981년 제15회 조세

◇鄭珠永 자유건설회장(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0일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부산상업의가 수여하는 제13회 부산산업대상 경영대상을 받는다.



부산산업대상 경영대상 수상 기사
(『매일경제신문』 1995. 12. 20.)

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1984년 건설진흥대회에서 대통령 표창, 1992년에는 건설진흥추진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산업훈장을 받은 사실은 당시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래의 인재를 위한 사회적 기부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동아대학교의 승학캠퍼스와 병원 신축 등 해당 대학의 건물을 많이 지었던 정주영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1997년 기숙사를 지어 기증을 하였다. 기숙사가 없어 외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정주영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건물을 완공한 후 현물로 기증하였다. 사하구에 소재한 승학캠퍼스 본관 아래 약 859평방미터(2백 60여 평)의 부지에 지상 5층 연건평 약 2480평방미터(750평) 규모인 이 기숙사는 2백6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식당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당시에는 아직 대학 기숙사가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정 회장의 인재사랑과 앞서가는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아대학교는 이 기숙사의 이름을 정 회장의 아호를 따 "난송관"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1996년에 동아대학교는 정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정 회장이 일으킨 자유건설은 부산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1998년 6월까지 매년 부산 지역 도급순위 10위 이내에 든 탄탄한 업체로 성장하였다. 그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자유건설은 산하에 새부산상호신용금고(옛 자유상호신용금고), (주)자영, 태종대 자유랜드, 자경토건(주) 등 4개의 계열사를 보유하였다. 대그룹은 아니었지만,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다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파고의 전조가 밀려왔다. 탄탄한 성장세를 자랑하던 자유건설도 갑작스러운 위기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부도를 맞았다.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정 회장은 자유건설이 부도를 맞자 다시 회사를 맡아 재기에 총력을 기울이던 중, 투병생활을 하다 1999년 7월 18일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76세로 별세했다.

묘소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에 모셨다. 유족으로는 오복진 여사와 5남 1녀가 있다. 그는 평생 건설업을 해오며 지역현안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지역건설업의 대부였다. 2000년 정주영 회장의 공적을 기리는 추모 공적비가 정 회장의 고향인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에 건립되었다. 공적비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고 정주영 회장의 약력과 공적(功績) 사항 등이 새겨져 있다.

참고문헌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자유건설')
- 『15회 租稅의 날 納稅有功者 등 2百 69명 표창』 『동아일보』 (1981. 3. 12.)
- 『84 建設振興대회 포상자 명단』 『매일경제』 (1984. 6. 18.)
- 『(주)대우 등 3개 회사 대표 건설부, 금탑산업훈장 수여』 『한겨레』 (1992. 6. 18.)
- 『〈항도기업을 찾아서〉 자유건설』 『부산일보』 (1996. 11. 14.)
- 『18일 타계 정주영 (주)자유건설회장』 『국제신문』 (1999. 7. 19.)
- 부산상공회의소 (www.bcci.or.kr)



정태성·정해덕

(鄭泰星, 1899~1986) (鄭海德, 1925~1981)

성창기업, 반도체, 다대중앙교회를 설립한 경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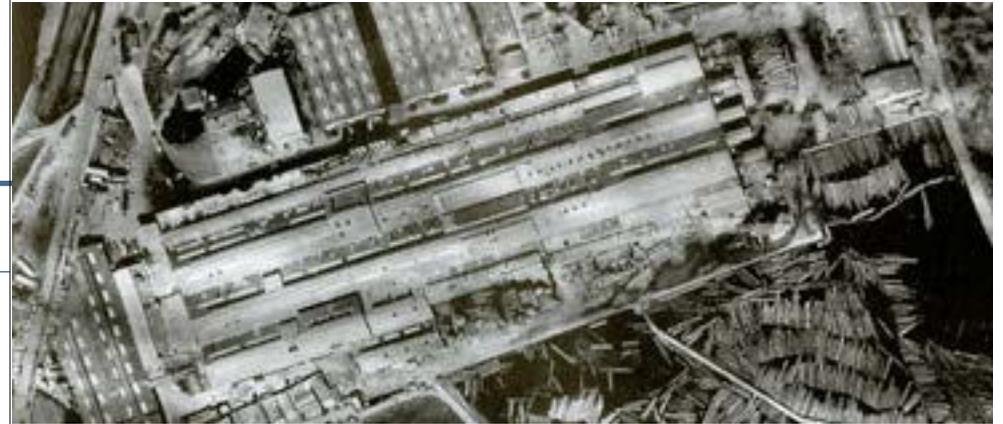


정태성

정태성(鄭泰星)은 본관이 동래(東萊)이며 호는 만오(晩悟)이다. 1899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아버지 정석주(鄭錫周)와 어머니 김사일(金沙一) 사이에서 태어났다. 1910년 영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농림학교에 진학했다. 대구농림학교 재학 때 교사 정한표(鄭漢表)의 애림사상(愛林思想)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18년 임봉은(林鳳隱)과 결혼하여 슬하에 4남[해덕(海德), 해수(海秀), 해찬(海燦), 해린(海鱗)] 3녀를 두었다.

정태성의 지원 아래 장남 정해덕은 1969년 8월에 부산 다대동에서 반도체를, 차남 정해수는 서울에서 선창산업을, 3남 정해찬은 태창목재를 각각 창업했다. 그런데 선창산업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반도체는 1987년 3월에 성창기업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태창목재는 1983년 1월 말에 폐업되고 말았다. 성창기업은 1986년 정태성 사후에 4남인 정해린이 이어서 맡은 후, 반도체가 있던 사하구 다대동 380번지(현 다대로 627)로 이전했다.

정태성은 1916년 11월 20일 경상북도 영주에서 부친이 창업한 성창상점을 시발로, 1927년 경북 봉화로 이사 후 부친의 권유로 1931년 춘양목재를 인수



1970년대 반도체재 전경(『성창기업 100년사』, 2016)

합병하여 개칭한 성창입업을 1935년에 이어받았다. 1948년 1월 1일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고 회사명을 성창기업으로 개칭하여 목재 사업을 본격화했다.

정태성은 한국전쟁을 겪고 1955년 성창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당시 부산시 남구 적기동(현 우암동) 4가 7-2번지로 이전했다. 1958년 3월부터 국내 최초로 합판을 미국으로 수출했고, 1962년 4월 포르말린공장 신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매년 대통령 산업포장과 훈장 등을 받았으며, 1971년 다시 수출 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1965년 합판 KS 표시허가 취득, 1976년

기업 공개와 유가증권 상장 등을 통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선도 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다 1985년 한국요업을 흡수 합병한 이후 1986년 9월 22일에는 산업합리화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정태성은 성창기업이 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7로 회사를 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86년에 타계하고 말았다. 이후 성창기업은 2008년 7월 3일 부산광역시 지정 향토기업 인증을 받았고, 2008년 12



정해덕

월 24일 성장기업지주로 변경되어 지주회사 체제가 되었는데, 2016년 11월 부산 지역 첫 100년 기업이자 대한민국 8호 100년 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사에 이름을 올렸다.

1987년 5월 1일 사하구로 이전한 성장기업의 역사는 1948년 정태성이 설립한 성장기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설립자 정태성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라 장남 정해덕을 대표로 하여 1972년에 사하구 다대동에 설립한 반도목재의 역사와 통합된 것이다.

정해덕은 부친 정태성의 사업 확장에 힘입어 현재의 성장기업 본사와 공장이 있는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380번지(현 다대로 627번길)에 1969년 8월 20일에 반도목재의 공장 건설에 착공하여 1972년 11월 25일에 준공을 보게 된다. 당시 반도목재의 공장 부지는 약 14만 8760평방미터(4만 5,000평), 건축 면적 약 2만 8,760평방미터(8,700평), 종업원 75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의 합판 공장이었다. 1975년 반도목재는 성장해운을 합병하여 자본금이 11억 7,400만 원으로 늘었으며, 합판 제조업 외에 해운업 등 선박 매매업 등 다각적인 경영을 하였다. 1976년 3월에는 기업을 공개하면서 주식을 상장하여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하였다. 1978년에는 부동산 매매 알선업인 해덕개발에 1억 4,000만 원을 출자하고, 같은 해 특수 합판 제조를 위해 공사비 9억 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했으며, 반도조선공업 설립에 크게 투자했다. 그리고 다대포 공장부지 옆 해안에 3만 3,058평방미터(1만 평)의 부지를 더 확보하여 중소형 선박 건조 및 수리와 기계 제작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자 했다. 1979년 4월에는 선박 급유업체인 동방해상급유를 인수한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 등을 단행하여 책임생산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사업의 지나친 다각화는 운영자금의 부족을 불러와서 심각한 경영난을 맞게 되었다. 정해덕의 재산 헌납과 온갖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목재는 1986년 9월에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상업은행의 관리에 들어갔으며, 결국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되어 1987년 3월에 성장기업에 흡수 합병되었다.

정태성 성장기업 회장은 1986년 1월 18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자택에



1990년대 성장기업 다대포공장 전경(『성장기업 100년사』, 2016)

서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향년 87세였다. 장지는 당시 부산시 우암동 263번지 가족 묘지였다. 정해덕 반도목재 대표는 1981년 11월 20일 부산시 남구 문현동자택서 별세했으며, 장지는 부산초량교회 묘지였다.

정태성은 성장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동안 국가재건회의 의장 산업포장(1963), 수출의 날 대통령 산업포장(1964), 수출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1965, 1966), 조림 유공 동탑훈장(1967), 수출의 날 유공 동탑훈장(1967), 수출의 날 유공 은탑훈장(1968), 수출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1971) 등을 수상했다.

성장기업 창업주 정태성의 흉상 제막식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11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정에서 있었다. 흉상은 2개 제작(제작자: 최병양)되어 한 개는 성장기업에, 다른 한 개는 성장학원 재단 산하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세워졌다.



참고문헌

- 김태현, 『부산기업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4)
- 성장기업지주 주식회사, 『성장기업 100년사』 (2016)

채동우

(蔡東雨, 1918~1997)

부산의 대표적인 장수 향토기업 오복식품의 창업주

부산 사람치고 오복간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오복간장을 생산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장수 향토기업인, 오복식품의 설립자가 바로 채동우 회장이다. 채동우는 1918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하였다. 중1때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



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가족을 부양하였다. 그런 속에서 채동우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독학으로 공부하여 만주에서 교사를 하다, 해방이 되자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자전거로 쌀 배달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였다.

그러다 군에 들어갔다. 공부를 한 것이 있기에 장교로 임용되었다. 해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초대 인사참모를 맡았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사참모 자리였지만 채동우에게는 부담스러웠다. 정직하고 담백한 성품에 맞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전역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보수동에서 대동식품을 창

립하였다. 얼마 후 공장을 영도로 옮겼다. 영도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1976년 사하에 공장을 지어 이전하였다.

물자가 부족했던 해방 직후에는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창업이 많았다. 그리고 6.25와 이후 복구기를 거치면서 군납이 기업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장류(醬類)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직후 아직 가내공업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장류산업이 근대적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49년 국군이 창설되고 군부대에 납품을 하는 이른바 군납이 계기였다.



대동식품 당시 회사 전경

채동우도 기업설립 초창기에는 고추장 군납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군납은 정직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동안 군납을 하던 채동우는 민수로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민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필요했다. 사내 공모를 했는데 큰 딸이 '오복'이라는 상표를 제안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오복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1958년 오복간장을 출시하자 정말로 큰 복이 굴러들어왔다. 오복간장은 대히트를 쳤다. 1963년 5월 회사 이름을 아예 오복간장으로 바꾸었다.

오복간장의 역사는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 간장업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부산에서 출발하였지만 우리나라 장류기업이 겪어야 했던 수차례의 시련과 파동을 겪어 내면서 줄곧 동종업계 수위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호황을 구가하던 오복간장은 1970년대 들어 대기업의 간장시장 진출로 판매량이 매년 감소하면서 시장을 거의 잃다시피 한 적이 있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위기였다.



회사 체육대회에서의 채동우 회장의 생전 모습

채동우 사장은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을 1974년 불러들였다. 그리고 흔들리는 대리점주들을 설득하면서 정도경영으로 돌파해 나갔다. 이는 당장은 힘이 들지만 바르게 가야 한다는 채사장의 경영철학과 고집이었다. 이러한 정도경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79년 부산지역 장류업체들이 불량제품을 만들다 무더기로 구속돼 문을 닫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간장에 물을 타서 이익을 올리자는 유혹이 오복간장에도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채사장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러한 정직함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었고 또 오복을 키워주었다. 이 사건 이후 오복은 1980년대 중반까지 부산과 경남·경북의 간장시장을 평정하였다.

그런데 1985년 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일부 언론에 화학간장(산분해 방식) 문제가 보도되면서 양조간장(자연분해 방식)을 만들라는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장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시 국내 장류업계는 숙성 기간이 짧고 설비투자비용이 적은 화학간장을 주로 만들었다. 다시 채동우 사장의 독심과 고집이 빛을 발하였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의 채사장은 스스로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일본어에 능통하였던 채사장은 일본책들을 보며 기술을 혼자 습득하였다. 수없이 읽고 실험을 하여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채사장은 일본인 저자에게 편지를 썼다. 반신반의했는데 일본인 저자는 장문의 답을 주었다. 여

러 차례 질문과 응답을 담은 편지가 오고갔다. 그리고 부산과 가까운 후쿠오카의 장유조합 이사장도 소개를 해주었다. 끈기와 진심은 마침내 조립과 해체의 반복을 거쳐 1987년 초 메주를 띄우는 설비인 제국기, 콩을 불리는 설비인 증자기, 발효탱크 그리고 압착기 등 양조간장 설비 일체를 국산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당시 70억 원 정도였던 매출액의 40%가 넘는 30억 원을 기술개발에 쏟아 부었다.



오복식품 전경(1993년)

이렇게 해서 그해 국내 첫 양조간장을 내놨다. 양조간장이 출시되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매일 연장근무를 해도 주문 물량을 댈 수 없을 정도였다. 채사장의 집념과 결단 그리고 진실함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기술개발로 인연이 된 후쿠오카 장류전문가 집안과 3대째 내려오는 인연을 아직도 맺고 있다. 이러한 성공 이후 1987년 3월 회사 이름을 오성식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87년 6월에 다시 오복식품으로 바꾸었다. 기업의 성장

에 따른 사업다각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오복식품에 1994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간장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서 해제돼 보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대기업들이 간장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가격할인 등 출혈경쟁을 하는 통에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이때 채 대표는 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경영을 시행하였다. 결재 라인과 의사결정 단계를 확 줄였다. 담당 팀장에게 어음발행

결제, 인사 채용 등 전권을 주는 획기적인 팀경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다행히 채사장의 기대대로 효과가 났다. 3년이 지나자 매출이 두 배로 경증 뛰었다.

그리고 간장업계의 골칫거리였던 발암·불임 물질로 의심되던 MCPD(식물성 가수분해 단백질)를 제거하는 기술을 1996년에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오복은 업계에 무상으로 공개하였다. 이에 힘입어 오복식품은 1990년대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시장을 넓혀갔으며, 경쟁사 제품보다 20~30% 비싼 데도 불구하고 팔려나갔다.

오복식품이 가파른 성장을 하고 업계 수위를 지키면서 몇 차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고비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장르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고집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다. 그리고 호황으로 돈을 벌었을 때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다른 사업 분야로의 유혹도 많았지만 채회장은 장르만 해도 무궁무진하고 새롭게 개발해 나가야 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주)오복 전경(현재)

회사가 커지면서 기존의 공장이 비좁아지자 1976년 4월에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771-5번지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하구 시대를 열었다. 1997년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에 간장 원액을 생산하는 제2공장을 준공하였다. 1995년부터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으로 많은 상도 받았다. 1967년 12월에 우량 식품업체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1971년 3월 제5회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982년 5월 중소기업자대회에서 대한상의회장표창을 받았으며, 1983년 3월 조세의 날 포상에서는 재무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부산상공회의소 선정 부산산업대상기술 대상을 받았다.

정직과 결단 그리고 한눈을 팔지 않는 기업인으로 성취를 이룬 채동우 회장은 김해에 2공장을 짓고 오복식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1997년 자택이 있는 영도에서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 1남 2녀가 있다. 묘소는 함경북도 도민회 공원묘원인 영락동산에 있다.

채회장이 세운 오복식품은 현재 3대째 가업으로 이어지면서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들 채경석 대표와 손자 채용관 부사장은 채동우 회장의 정도경영을 항상 가슴에 안고 오복식품을 키워가고 있다. 65년 여간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특히 대기업의 공세를 이겨낸 것은 채동우 회장의 장르 하나만 바라본 '장인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는 채동우 회장의 신념과 순간순간 위기를 극복하는 결단과 용기야말로 오늘의 오복식품을 있게 한 자산이다.

참고문헌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오복식품')
- 「오복식품, 장맛지킴이 50년집념, 양조간장 대명사로, 『한국경제신문』 (2010. 7. 1.)
- 「하이! 우리 브랜드 오복간장, 『부산일보』 (2012. 3. 3.)
- 「부산의 맛 세계로 가다 <상> 오복식품, 『국제신문』 (2014. 8. 27.)
- 「파워 식품기업 <2> 오복식품, 『국제신문』 (2015. 2. 4.)
- 「부산의 맛, 부산의 힘! 4.(주)오복식품, 『부산일보』 (2015. 4. 22.)
- 「기업인'스토리 <17> 채경석 (주)오복식품대표, 『국제신문』 (2015. 5. 12.)
- 채경석 오복식품 사장 기술(2017. 11. 20.)

최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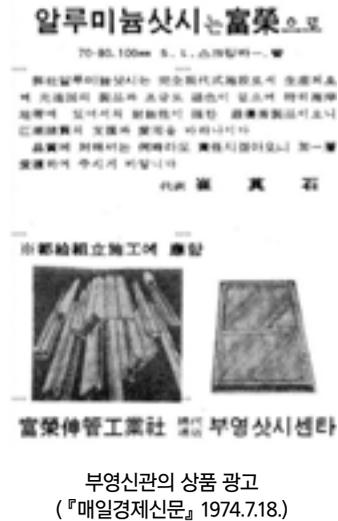
(崔莫石, 1914~?)

사하번영양지회 회장과 사하양지장학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최막석은 경남 거창의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최막석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분명한 것은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부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온 최막석은 사하에서 부영신관공업사(富榮伸管工業社)를 설립하여 경영하였다. 부영신관은 동파이프를 만드는 회사로서 시내에서 대티터널을 넘어오면 바로 있었다. 지금 부영 아파트와 롯데슈퍼가 있는 자리다. 부영신관 옆에는 가발공장이 있었고, 오성(五星)신데라 공장이 그 옆에 있었다.

당시 부영신관은 사하에서 큰 공장이었다.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동산유지, 동아전기, 한국화이바, 장영(주), 대야케미컬 정도가 사하에서 큰 기업으로 통했는데, 부영신관도 그 중의 하나였다. 때문에 이 시기 부영신관은 사하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의 하나였고,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큰 기업의 하나였다.

부영신관은 건축용으로 많이 쓰이는 동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였다. 최막석은 동파이프



부영신관의 상품 광고
(『매일경제신문』 1974.7.18.)

를 순수히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최막석은 집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 기술자도 보내고 또 녹음기와 카메라에 담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개발을 하였다. 수없는 반복과 실험을 하여 마침내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 12월 24일에는 정부로부터 기정(技正)으로 인정을 받았다. 1969년 5월 10일 상공인의 날에는 대한상의 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1969년 5월14일 제1회 중소기업의 날에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공이 있는 42명의 기업인에게 훈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는데, 최막석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부영신관은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최막석은 에텐공원을 만든 백준호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백준호가 에텐공원을 만드는 데에는 최막석의 참여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사하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 몇 분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막석이 에텐공원 땅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에텐공원을 만들 당시 백준호의 경제력은 크지 않았는데, 최막석의 도움이 컸던 것은 분명하다.

최막석은 백준호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지냈고 둘도 없는 친한 사이였다. 백준호 보다 나이가 조금 밀린 최막석은 당시 대신동에 살았다. 백준호 씨 아들 백광덕은 최막석을 대신동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회고하였다. 백준호의 아들들이 최막석을 작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보면 최막석과 백준호는 형제 이상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막석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진정한 남자였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최막석을 의리와 신의 그리고 약속의 화신이라고 불렀다. 백광덕의 증언에 따르면 에텐공원을 만들 때 백준호가 의견을 내면 최막석은 거의 그대로 동의하였고 추진하였다. 백준호가 사업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알았소. 얼마 보낼게요” 하면서 그대로 지켰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지도 않았다. 백준호와의 신뢰가 두텁기도 했지만 약속과 의리를 중시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내는 성품이었다.

사업에서 성공한 최막석이 사하지역에 남긴 훌륭한 족적은 오늘날에도 장학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최막석은 배우지 못한 관계로 글이 짧았다. 큰 사업을 했지만 수표를 끊을 줄 몰랐다. 사업으로 일가를 이루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최막석은 장학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표현하였다. 자신처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재를 내어 장학회를 지원하기로 결심하였다. 최막석이 지원한 장학회가 바로 사하양지장학회였다.



사하양지장학회 장학금 수여식(2017)

사하양지장학회는 원래 1962년 1월 부산 사하구 괴정동과 당리동, 하단동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15명이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한 지역장학회로 출발하였다. 당시에는 양지 구락부(초대회장 김원갑)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가 이후 사하번영양지회(2대 회장 최막석)로 개칭되었다. 1976년 사하양지장학회로 이름을 바꿔 최막석이 초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학회를 지원하면서 착실히 성장하고 있었던 부영신관은 1974년 5월 원자재 수입 사기를 당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수출원자재인 동설(銅屑)

12만 파운드, 4천6백80만 원 상당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달라고 수입업자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주었는데, 그 수입대금을 수입업자가 가로채는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잠시 흔들렸던 최막석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계획에 돌입하였다.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분석한 최막석은 생산품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1970년대 말에 부산은 성장억제도시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증설이 힘들게 되었다. 마침 산업단지가 창원과 양산에 개발되면서 부산기업들의 역외 이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최막석도 기업의 확장을 위해 창원공단으로 회사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 이후 창원공단에 대단위 공장을 신설하였고, 동관 이외에 새시(sash, 샤시라고 흔히 말함) 등 신규 사업에도 투자하였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도 경영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사업의 확장은 과잉 투자로 돌아왔다. 너무 키운 기업은 과잉 투자로 인한 부실을 초래하였다. 부채는 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서울신탁은행, 부산은행 등과 단자회사들로부터 빌린 것이 약 50억 원에 이르렀다. 회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1981년 8월 28일 부영공업(富榮工業)은 거액의 부채를 견디지 못해 회사정리 신청을 하였다.

최막석은 사하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사하를 사랑하고,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었다. 최막석의 따뜻한 마음은 에텐공원에도 남아있고, 양지장학회는 지금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960년 12월 24일 기정(技正)으로 인정을 받고, 1969년 5월 10일 상공인의 날 대한상의 회장 표창, 1969년 5월 14일에 제1회 중소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사하를 사랑했던 최막석은 마지막까지 괴정 자유아파트에서 살다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 『부산일보』 (각 연도 '양지장학회' 기사)
- 『昌原工團 입주 鋼管업체 富榮工業 會社整理 신청』 『매일경제』 (1981. 8. 28.)
- 백광덕 씨 구술(2017. 9. 7.)

사하의 인물

近現

1876년 근대 개항 이후

근현대

사회분야

- 강대석 • 애아원을 설립하고, 삼성학관의 기초를 만든 사하구 지역의 대표적인 육영사업가
- 김금주 • 다대포 해녀들의 권익보호와 나잠어업 허가에 힘쓴 해녀
- 양한나 • 과정 자매정신요양원의 전신, 자매여숙을 설립한 독립운동가·여성운동가·사회운동가
- 이지성 • 1941년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 한미합작 O.S.S 특수훈련을 받은 독립운동가
- 정학화 • 삼화(三和)식품 설립자. 현재의 사하구청 부지를 제공한 경제인
- 조인숙 • 교육과 선교,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한 종교인이자 교육자



강대석

(姜大錫, 1922~2014)

애아원을 설립하고, 삼성학관의 기초를 만든 사하구 지역의 대표적인 육영사업가

강대석은 본관이 진양이며, 1922년 3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지산리에서 부친 강중기, 모친 김점분 사이에서 태어났다. 4남 3녀 중 3남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노방전도자로부터 감화를 받아 기독교에 입교하였으며, 가족 모두가 신앙을 같이 하게 되었다. 강대석 역시 8세의 나이에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이 시기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고학을 하였다. 서울 한국신학대학에서 수학하여 2회 졸업생이 되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고 전쟁 중이라 물자에 대한 단속이 심하였다. 강대석은 고향에서 비단을 구해 몸에 감고 서울에 올라가 팔아서 학비를 마련하였다. 졸업 후



애아원 전경

에는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1946년 이정순과 결혼하였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육영사업을 사명(使命)이라 여기고 두고 평생을 전념하였다.

1948년 사하구 감천동에 보육시설 애아원(愛兒院)을 설립하였다. 그 위치는 현재

삼성여자고등학교 본관 근처 은행나무가 서 있는 곳인데, 원래 산중에 있는 불교 사찰이었다. 산이 깊어 짐승과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대석의 처가에서 이곳을 매입하여 애아원의 터로 삼았고, 이곳에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기르기 시작하였다. 애아원은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근처에 감명교회를 세워 신앙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생겨났다. 이 때문에 애아원은 원생 수가 400명에 이르게 되면서 더욱 분주해졌고, 그로 인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화재를 당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국가의 지원도 없었고 독지가들의 기부도 한계가 있었다. 강대석은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으로 애아원을 운영하였다. 그들 부부와 원생들이 주변의 임야를 개간하여 고구마, 배추, 벼농사를 지었다. 동절기 고구마 저장법을 연구하여 '고구마 박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현재는 부두가 들어선 감천동 바닷가에서 원생들과 함께 김장 배추를 절이기도 하였다. 또한 소·돼지·닭을 기를 축사도 마련하였다. 원생들의 옷도 부인 이정순 여사가 직접 지어 입히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감천동 일대의 땅값이 쌌기 때문에 싼 부지에 농사를 짓고 팔아 이후 삼성학관의



삼성여자고등학교 전경

김금주

(金錦珠, 1935~2011)

다대포 해녀들의 권익보호와 나잠어업 허가에 힘쓴 해녀

기초가 되는 부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

원생들이 성장하여 중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으나, 주변에 진학할 학교가 없었다. 이에 1954년 삼성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원래 위치는 장평중학교·옥천초등학교가 있는 감천 삼거리 근처였으나, 현재는 이전하였다. 당시 학교 인가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울 교육부에서 일주일을 버텨 겨우 인가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1975년에는 삼성여자고등학교를 건립하여 삼성학관(三聖學館) 캠퍼스의 틀이 완성되었다. 삼성(三聖)이란 애신(愛神)·애린(愛隣)·애국(愛國)의 3가지 성스러운 사랑을 뜻한다. 학교를 지을 당시 인근의 태극도 마을의 주민들이 대거 공사 일을 하러 왔다.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삼성여자고등학교의 교장이 되어 교육현장에서 활동하였다. 1980년 일본의 사이타마현의 호소다 학원 여자고등학교(細田學園女子高等學校)와 결연을 맺고 학생 교류사업을 하였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른 시기의 국제교류사업이었다. 삼성여자고등학교는 인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았고, 한 해에 부산대학교에만 120명을 입학시키기도 했다.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애아원 원생과 함께 성장하다 보니 학교에서 고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97년 삼성여자고등학교 교장 직에서 퇴임하였고, 2014년 12월 12일 별세하였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받았다. 사후에 부인인 이정순 여사가 2대 이사장직을 맡았고, 이어 장남 강성봉 씨가 3대 이사장직을 이어받았다. 딸 강덕수 씨는 애아원을 맡아 현재 3개 동 70여 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

김금주(金錦珠)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 어민의 딸이다. 사하구 다대포로 이주하여 이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 동향 출신의 강창석과 결혼하여 슬하에 3남을 두었으나 1, 2남은 먼저 사망하였다.

김금주는 1935년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현 서귀포시 성산읍)의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났다. 생계를 위해 18세부터 물질을 시작하였으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친지가 있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정착하였다. 이후 이곳에서 해녀로서 삶을 이어 갔다.

지금의 다대포는 상당한 규모의 어항으로 발전했지만 예전의 다대포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작은 어촌으로 수심이 5~7미터밖에 안 되는 아담한 어장이었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멸치, 전갱이, 망상어 등이었다. 비록 그다지 크지 않은 아담한 곳이었지만 어업과 관련된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그 중 1960년대 초반까지 소규모였기는 하지만 후리그물로 멸치잡이를 했다. 이와 관련 다대포에 전승되어 오는 대표적인 전통 민속문화가 멸치 후리질소리 즉 그물에서 멸치를 훑어내며 부르는 어업노동요인 <다대포 후리소리>이다.



국무총리상 수상 기사
(『수산신보』 1979.4.9.)



참고문헌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애아원, '삼성학관')
- 「사랑이 가득한 캠퍼스 이야기 삼성학관의 시작이 된 애아원」 『한국기독신문』 (2009. 3. 28.)
- 아들 삼성학관 강성봉 이사장 구술 (2017. 10. 23.)

다대포항에는 지금도 어항이 형성되어 어선이 줄을 지어 있고 부두 인근에는 횃집과 초장집, 포장마차가 즐비하지만, 약 20여 년 전에도 멸치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멸치잡이를 하는 동안 고단함을 달래며 불렀던 그 노래는 동해안의 <명태잡이소리>, 서해안의 <조기잡이소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업노동요가 되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일찍부터 제주도 출신의 해녀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잠수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물 밑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을 통해서였다.

부군 강창석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모두 참전한 군인이었다. 비록 군인의 신분이었기는 하지만 양 전쟁에 모두 참전한 경우는 드물었다한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부군 강창석은 국가유공자로 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금주는 수협 다대어촌계 소속의 해녀로서 나잠 어업에 종사하였다. 평소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어촌계 부녀회장을 역임하면서 해녀들의 권익보호와 이웃의 일에 앞장섰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생업을 내려두고서라도 마을의 대소사와 주변 회원의 고통사를 도맡아 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에 적극



다대포항 전경

동참하여 십여 차례에 걸쳐 새마을 교육을 이수하여, 자택에 아직까지 여러 장의 이수증이 상장처럼 남아 있다. 당시 교육생을 단위별로 차출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할 경우 대신해서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공동어장관리·갯바위 닦기[기세(磯洗)]·바다정화운동·충효사상 양양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꾸준히 고아원과 양로원, 군경 및 해안초소 등을 위문하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 소식이 알려져 44세이던 1979년 4월에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금주가 회장직을 맡고 있던 1985년경, 부산 지역에 소라 씨가 마르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울릉도에서 소라를 직넙 들여와 번식시키고 채취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가 이끌었던 다대포의 해녀는 현재 3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5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출신이다. 해녀의 전통은 제주도로부터 출발하였고, 근래에는 더욱이 새롭게 해녀로 유입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두 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격렬한 노동의 강도로 인해 더 이상 물질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김금주와 같이 제주도 출신으로 다대포를 비롯한 육지지역으로 진출하여 계속 물질을 하는 해녀를 출항해녀라고 한다. 출항해녀들의 수는 제주해녀 4천여 명보다 오히려 많은 7천 명이었다. 2017년 현재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항해녀는 900명 정도가 있다. 영도 동삼동 지역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다대포와 기장 등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해녀들은 어촌 지역에서 나잠 채취 허가를 받고 이것을 5년마다 갱신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지역 해녀들은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1991년부터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기장지역 역시 1995년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신규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부산 지역의 해녀들은 부산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신규 채취권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결국 승소하여 2016년 8월 채취권 신청을 받았고, 113명이 신규 해녀로 등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녀는 하나의 전통문화로 2016년 12월 유네스코에 등재되었

으며, 2016년 기장·거제 등지에 해녀체험학교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2006년 제주도 구좌리에 해녀박물관을 개관하였고, 각 지역별로도 해녀 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김금주는 2011년 별세할 때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그녀의 동료들의 권익 보호와 이웃들을 보살피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 묘소는 기장군 정관면에 모셔져 있으며, 언젠가는 부군 강창석을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 한다.

양한나

(梁漢拿, 1893~1976)

괴정 자매정신요양원의 전신, 자매여숙을 설립한 독립운동가·여성운동가·사회운동가



양한나는 1893년(고종 30) 3월 3일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서 아버지 양덕유(梁德有)와 어머니 한영신(韓永信)의 1남 10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본래 이름은 귀념(貴念)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비교적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교회연합회장과 경남여전도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여성 지도자였다. 이러한 집안 환경에서 자란 양한나는 근대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사회활동에도 적극 나서

게 되었다. 미군정기 초대 한국인 부산시장을 지낸 양성봉이 양한나의 동생이다. 제8대, 제9대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회장을 지낸 양봉옥 역시 양한나의 친동생이다. 양한나는 늦은 나이에 김우영과 결혼하였는데, 슬하에 자식은 없고 남편의 전처소생으로 2남 1녀가 있었다.

기독교와 근대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서울의 진명학교(進明學校)를 거쳐 1913년 부산진 일신여학교(현재 동래여고) 고등

참고문헌

- 「수협, 새어민상 시상」 『중앙일보』 (1979. 4. 2.)
- 「새어민상 시상」 『부산일보』 (1979. 4. 2.)
- 「"漁民의 奉仕團體로 육성" 水協創立 17주년 기념식」 『수산신보』 (1979. 4. 2.)
- 「새어민상 종합상에 金弘福씨 어제 水協창립 17周年기념식」 『한국일보』 (1979. 4. 3.)
- 「희생적 奉仕로 새어촌建設」 『수산신보』 (1979. 4. 9.)
- 「김홍복씨 등 5명에 새어민상」 『새어민』 (1979. 4.)
- 「"해녀 문화 보전하자", 부산시의원조례 추진」 『연합뉴스』 (2016. 12. 7.)
- 부군 강창석 및 현 다대어촌계 부녀회장 윤복덕 씨 구술(2017. 10. 11.)



과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마산 의신(義信)학교 교사로 1917년까지 재직했다. 양한나의 항일의식은 마산 의신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의신학교는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설립한 근대적인 여성 교육기관으로 반일 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학교였다.

1915년 일본왕의 즉위기념 떡을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먹이려 하자 양한나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이 우리가 이 떡을 받아먹는 게 말이나 되느냐” 하면서 분개하였고 이에 학생들이 동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었고 교단에 머무르기가 어려웠다.

결국 양한나는 1917년경 일본의 요코하마의 신학대학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학교 공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당시 일제가 영친왕 이은의 정략결혼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에 나섰다. 동경여자학원 학생인 김마리아 등의 동지들과 결속하여 구체적 운동을 일으키려 준비하였는데 미연에 알아차린 형사들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그 후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밀항해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경상도 대의원으로서 활약하였다. 이 때 안창호 선생을 만났고 그가 그녀의 원래 호적명(戶籍名)인 귀념(貴念)을 한나(漢拿)로 개명하여 주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내 나라를 길이 보존하도록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이었다고 한다. 양한나는 국내에서 임시정부 조달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밀입국하기도 하였다. 한편 학생의 신분이 안전하였기에 소주(蘇州) 여자사범대학에 적을 두고 활동하였다.

상해활동과 병행하여 한편 국내에 들어와 1921년 민족주의 계열의 부산 여자청년회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며 부산 지역의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이 단체는 부산여성운동의 시발단체로 여성야학과 토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여성계몽에 앞장섰다. 부산여자청년회 활동이 활성화되자 양한나는 다시 상해에 가서 김구 선생과 안창호 선생을 도와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3년 귀국 후 일신여학교 기독교청년회의 총무를 맡으면서 여자기독교청년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유치과를 졸업



1950년대 요양원 초창기 시절(자매정신요양원 홈페이지)

업하고 정동 이화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활동하다가 1926년 오스트레일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 1928년에는 다시 일신여학교 내의 기독교여자청년회 일을 맡았고, 1929년 초 량교회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 때 양한나 활동의 큰 특징은 당시 부산 지역 선진여성들과 달리 근우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여전히 기독교 중심의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에는 초량의 3.1 유치원과 통영의 진명유치원을 운영하며 유아전문교육가로 활약하였다. 양한나는 기독교운동과 보육사업에 주안점을 둔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여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양한나는 우익계열 기독교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국애국부인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후 여성운동은 1945년 8월 건국부녀동맹에서 시작하여 12월 조선부녀총동맹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때 우익계 여성들은 여자국민당을 만들고 1945년 9월 한국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기독교 계열의 우익여성들로 구성되었다.

1946년에는 초대 수도여자경찰서장에 취임하였다. 당시 민간단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여성운동의 주요쟁점이었던 공창폐지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양한나 역시 경찰서장으로 공창폐지운동에 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한나는 소외된 여성들에게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후에 자매여숙을 설립하게 된 중요 동기가 되었다.

다시 부산으로 온 양한나는 1946년 부산 YWCA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처음 20명으로 출발한 회원이 1년 뒤 200명이 될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 이 단체는 계몽사업을 주로 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였다. 양한나는 1947년 항주에서 개최된 세계 YWCA협의회에 김활란·김신실·황애덕·최이권·최예순·김정옥·김자경·박마리아 등과 함께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1948년 회장직을 안음전에게 물려주었다. 이후 양한나는 여성단체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1976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만 전념하였다.



부산진교회 양한나 묘비

1946년 아미동에서 유아 55명을 보호하는 고아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양한나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1920년대 후반 이후 유치원을 운영하며 유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고아들이 늘어나면서 자매여숙 운영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전쟁 이후 갈 곳 없는 고아들만을 돌보았다. 그러다가 정신 이상인 고아들, 거리에서 아이를 낳는 정신 이상 여성들 등을 접하고 1953년부터 괴정동에 정신 이상 여성들만을 받아들이는 보호사업을 시작했다. 양한나는 『코리아 라이프』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미친 것은 극히 보기 드물고 길거리의 미친 사람은 모두가 여자인데 그들이 미친 이유는 80% 이상이 남자 때문이다”고 하며 여자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였다.

대구, 서울 등 정신병원을 다니며 환자를 고쳐주려고 애를 썼던 양한나는 오랜 경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터득하여 정신집중을 위한 수작업을 장려하였다. 여름이면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를 하고 겨울이면 털실 뜨기, 골무 만들기 등을 하도록 하였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수작업을 시켜 그들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려고 애써 20년간 200여명을 완치시켰다고 한다.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무의탁자가 대부분이었기에 양한나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자매여숙 입구에 해피하우스란 간판을 단 2층집을 마련하였다.

재정이 문제가 되자 1960년 현재의 위치(괴정동 245번지)로 옮기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았으며, 운영을 위해 후원을 부탁하고 발로 뛰어 다니면서 후원금을 얻어 오기도 하였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청과시장에서 시래기를 주어다 죽을 쑈기도 하였다. 원생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데 하루를 보낸 양한나는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었고, 그 자신의 가재도구 하나 없이 몸 하나 겨우 누울 작은 방에서 지냈다. 자신의 일상을 뒤로 하고 오로지 여숙 운영에 전념하였다. 사회에 공헌한 양한나는 장한 어머니상(1964), 용신봉사상(1967), 3·1운동 선도자 찬학회 감사장(1968), 국민훈장 동백장(1976) 등을 수여받았다.

양한나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을 때 인터뷰에서 “훈장도 좋지만,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가련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라고 하였다. 1973년 이후 자매여숙을 여동생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양한나는 1976년 6월 26일 작고하였다. 묘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부산진교회 묘역에 있다. 양한나가 설립한 자매여숙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자매정신요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추영수, 「구원의 횃불」 (중앙여자중고등학교 3.1선도자 찬학회, 1970)
- 이송희, 「양한나(1893-1976)의 삶과 활동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13(2002)
- 김선미, 「양한나」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1)』 (부산광역시, 2004)
- 이송희, 「식민지 시대, 부산의 여성들」 『부산여성사』 1(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9)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양한나')
- 「제4회 용신상에 양한나 여사」 『동아일보』 (1967. 9. 28.)
- 「병상서 받은 국민훈장, 고아를 위해 몸 바친 양한나 할머니」 『동아일보』 (1976. 5. 29.)
- 「이 사람의 삶: 사회사업가 양한나 여사」 『국제신문』 (1994. 3. 5.)



이지성

(李志成, 1916~1986)

1941년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 한미합작 O.S.S 특수훈련을 받은 독립운동가



한국광복군 제2지대 터(국가보훈처 공식블로그)

1916년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면 남부리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했고, 이후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3가 260번지에 거주했다.

1940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이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제와 항전할 것을 선언하며 창립되었다. 창립과 더불어 광복군 총사령부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전방 지구인 중국의 시안(西安)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1941년 1월 제1, 제2, 제3, 제5지대의 편성을 완료하고 사병을 모집하여 훈련시키는 한편, 선전 공작 및 적정(敵情) 수집, 반정(反正) 공작 및 유격전을 감행했다. 이때 광복군의 사병 모집 공작인 초모 공작에 의해 이지성도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했다. 이후 이지성은 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 1분대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국내 진공 작전의 일환으로 1945년 5월부터 장준하, 김준엽 등과 함께 한미합작특수훈련인 OSS훈련 정보·파괴반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았다. 그들의 훈련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전략 첩보의 목적 수행을 위한 합동 훈련반의 훈련은 문자 그대로 특종 훈련이었다. 우선 1주간 받은 예비 훈련에 있어서부터도 도강술(渡江術)·사격술의 기초 과정에서 게릴라 전법에 필요한 각종 특전단의 군사 훈련이었다. 밤 줄을 타고 절벽 밑까지 내려가서 나뭇잎을 따온다든가 밤에 낙하산 연습을 하는 것, 또는 식사 때에 바로 옆에서 묻었던 폭약을 폭발시켜 그 담력을 시험하기도 하고, 특수 음폐 및 엄폐법(掩蔽法)을 가르치는 등 적지 침투 공작에 긴요한 일들이었다. 이러한 특수 훈련은 미 육군 특전단(特戰團)의 전술 사관들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 그들에 의하여 채점되고 구분되어 다시 통신·파괴·교란 행동·정보 수집, 유격대 조직 등 각 단원의 임무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전법의 훈련이 3개월간 실시되는 것이었다. 훈련생들은 종남산 밑 훈련장을 중심으로 한 천막 중에서 엄격한 규율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계속하였는데 이국 청년들의 구국 의욕으로 이루어지는 일사불란(一絲不亂)의 훈련은 미국인 교관과 오에스에스(OSS) 간부진을 경탄하게 하기도 하였다.

소정의 3개월 훈련 과정이 끝난 1945년 8월, 한국광복군은 국내 정진군을 설치하고 제2지대장 이범석을 정진군 총지휘관으로 삼아 국내 8도에 진입요원을 배치했다. 이에 이지성은 국내 정진군 경상도반 제2조에 배속되어 국내 진공을 기다리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의 공훈을 인정하여 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했으며, 1990년 다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4 : 임시정부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6 : 독립군전투사(하)』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5)

정학화

(鄭鶴和, ?~?)

삼화(三和)식품 설립자. 현재의 사하구청 부지를 제공한 경제인



사하에서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던 기업인 정학화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였다. 매우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난 정학화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배우지 못했음은 물론 일본인의 양아들이 되어 일본으로 갔다. 그러나 말이 양아들이었지 실제로는 일꾼으로 팔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가난했던 시절 입을 하나 털기 위하여 부잣집에 머슴으로 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일본에서 정학화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배움에 누구보다 목말라했던 정학화였지만, 양부모는 정학화를 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다. 심지어 공부를 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정학화는 짬을 내서 책을 읽곤 하였는데, 양어머니에게 들키면 책을 빼앗기곤 하였다. 양어머니는 빼앗은 책을 태워버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학화는 새벽 3시 이른 시간에 일어나 몰래 책을 보았다. 그렇게 공부하여 나중에 교사자격증까지 땀다. 배움에 대한 집념이 누구보다 강했던 정학화였다.

귀국 후 활동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1952년 마산일보에는 진양군 지수면의 금평 수리조합의 착공이 독지가인 정학화(鄭鶴和), 정순화(鄭舜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가능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해방 직후에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서부경남의 진양군 출생 인사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귀국 후 사업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저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몇 번 실패하였다. 그러다 한국 최초로 자른 미역(커트미역) 개발과 조미오징어 사업으로 일어섰다. 옛날 하단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김을 많이 생산하였다. 가는 대나무를 얇은 물에 푼다 김을 붙게 하여 채취하여 씻어서 말려 김으로 만들었다. 낙동강 하구인 하단에서 특히 대량으로 김을 생산하였는데, 그것은 물이 얇아 김 양식에 적당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사람들이 남기고 간 시설로 해방 이후에도 김을 많이 생산하였다. 이후 하구 지형의 변화로 장림 쪽으로 김밭이 옮겨져 생산되었다. 토사가 내려와 바다가 메워지면서 수심이 얇은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학화가 사하지역에 해조류 및 조미오징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러한 지역적 특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을 비롯한 해조류가 생산되는 지역이었고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 땅값도 낮았기에 조미해조류 공장을 세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정학화가 조미해조류 공장을 세운 것은 1966년이였다.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로 부산에서는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에 가

속도가 붙고 있었다. 수출도 막 날개를 달기 시작하였는데, 고도성장을 달성한 일본으로부터의 사양산업 이전과 1차산품 수입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1970년대에 접어들자 일본 및 대만 등지에서 조미오징어 수요가 크게 늘었다.

삼화식품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수출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시설을 확장하였다. 1970년 5월 말에는 9만5천여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이미 연 20만 달러어치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가동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정학화는 1978년 1월 30일 한국해조염신품수출협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1981년 2월 27일에는 한국패류건어물수출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정학화는 기업을 하면서 마을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 1980년 하단과 당리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고압선이 마을 위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에 정학화는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고압선 이설 운동을 하였다. 마침내 1980년 11월 15일 서구 하단동과 당리동 주민 1500여 가구, 6,00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유물 방해예방 및 생활방해로 인한 인격권 침해예방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법원에서 승소함으로써 고압선은 마을증앙을 피하여 당초 설계보다 6킬로미터 떨어진 산등성이를 따라 설치되었다. 하단과 당리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고일어난 운동에서 정학화는 주민대표를 맡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미역과 오징어 가공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번 정학화는 사하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오늘날 사하구청 앞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사하구청이 앉아 있는 지금의 땅 중에 1488평방미터(약 450평)는 정학화 소유였던 곳이다. 정학화가 1977년 6월에 부산시에 기증하여 1994년 9월에 사하구청으로 승계되어 청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정학화가 세운 삼화식품도 그 부근에 있었다. 이후 삼화식품은 장림으로 이전하여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화식품의 홈페이지에는 1978년 창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해에 하단에서 장림으로 이전

하였던 것 같다. 지금도 삼화식품은 건미역, 건다시마를 주요 상품으로 하는 해조류 전문업체로서 지역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 삼화식품이 있는 곳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00번길 38이며, 구 주소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390이다.



참고문헌

- 「金平水組三月頃着工 道當局積極協力要望」 『마산일보』 (1952. 2. 6.)
- 「을輸出 5천4백만弗 책임 海藻輸組, 일부 理事도 改選」 『매일경제』 (1978. 1. 30.)
- 「「人格權」 소송 住民이 勝利」 『경향신문』 (1980. 11. 15.)
- 「經濟短信(경제단신)」 『동아일보』 (1981. 2. 27.)
- 네이버 블로그 '해돌' (<http://cafe.naver.com/move79/1100028>)

조인숙

(趙寅淑, 1910~1988)

교육과 선교,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한 종교인이자 교육자

1910년 3월 15일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육대동리 150번지에서 태어났다. 194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1942년에 함중노회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6년 경희대학교 문리대 영문학과 4년 수료, 1969년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77년 베데안 기독교대학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1981년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1983년 미국 콜롬비아 패시픽 대학교 철학박사까지 자신의 활동을 위한 학문에 끊임없이 정진했다.

북한에 두고 온 부인과 슬하에 5남 3녀를 두었으나, 1·4후퇴 때 장남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하였다가 이산가족이 되어 사하구 괴정동에 정착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육군 군목으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되어 괴정동에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활동을 시작하다가 현재 부인을 만나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조인숙은 초대 공군 군목실장을 역임하였고, 소령으로 예편하여 서구와 사하구에서 경찰서와 예비군 군목으로 활동했다. 도움이 필요한 예비군들에게 신앙 상담을 통한 정신적 위안과 개인 상담 등을 하면서 지원을 했고, 1960년대 괴정동에 신촌교회를 설립하여 목사로 시무활동을 했다. 당시 이 지역이 일명 무당촌으로, 목회활동이란 것이 힘들었는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오로지 목회활동에 전념했다. 소위 예수쟁이가 와서 활동한다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피난민촌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 급식소를 운영하고, 가뭄에 대비해 미리 우물을 파서 주민들에게 좋은 식수를 공급하기도 했다. 당시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뭄이 들면 식수 확보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발 기계를 구입해서 손수 학생들과 주민들의 머리를 깎아 주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베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일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비해 개선하는 데에 솔선수범하였다. 신촌 도서관을 개관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주민들의 회합을 도모하는 사랑방으로도 장소를 제공하였다.

1962년 중학교 과정인 신촌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야간 수업 중 떠드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더라도 하면 취객들의 욕설과 심지어 학부모들조차 소란스럽다고 항의하기 일췌였다. 조인숙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지식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가르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학교에서 신촌타자학원을 개원하여 학생들의 기술교육에도 관심을 가지는 한편, 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을 도왔다.

이후 1974년에 괴정동에 고등학교 과정인 협성실업전수학교(현재 평화원)를 설립하여 공업·상업·인문반을 운영하여 가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과 학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1982년에는 괴정3동에 유아교육의 진흥이라는 큰 목적 아래 셋별새마을유치원을 설립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시설이었다.

조인숙은 평생을 교육과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 자비로 여러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로 교육 사업을 포기하고 폐교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를 폐교하고 그 부지에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보람 있는 사회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양로원을 설립해 보라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풍습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로 노인 문제가 장차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양로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 재산인 대지 4,260평방미터(약 1,290평), 임야 18,784평방미터(약 5,682평) 등을 출연해



평화 노인요양원(『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홈페이지)

1984년 사회복지법인 평화원을 설립하여 양로시설인 영생노인복지원을 개원하였다. 당시에 형제원이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평화원에서는 나이가 많아 기거하기가 곤란하고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처지에 있는 노인들과 무연고 노인 등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상처받은 노인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신생노인요양원을 개원하였다. 1987년에는 시설에 있는 노인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을 개관하여 그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목회와 봉사활동을 위한 많은 자금 중 일부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는 평생을 남을 위한 봉사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나, 그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함으로써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인물이었다.

저서와 역서로는 1959년 『선교를 위하여』 기독교 다이제스트사(소책자)를 창간했고, 번역서로 『천주교는 성경에 있는가』, 『만일 미국이 캐톨릭대통령을 선출한다면』, 『타이타닉호의 침몰』, 『형식주의의 죄』 외 다수가 있다.

지금의 평화원이 사하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고 조인숙 평화원 설립자 덕분인 것이다. 조인숙은 1988년 1월 16일 괴정1동에 위치한 신생노인 요

양원(현 평화노인 건강 센터)에서 지병이었던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묘소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위치한 기독교 공원 묘원에 안치됐다. 추모기념비가 괴정1동 평화원 내에 세워져 있다.



참고문헌

· 아들 조영협 이사장 구술(2017. 7. 20.)

사하의 인물

近現 1876년 근대개항 이후 교육·문화분야

근대

- 강용권 사하구에서 활동한 동아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이며 민속학자
- 구해룡 사하초등학교(구 사립양정학교)의 제2대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
- 김두행/김원선/김만이 하단동에서 뚝배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전승한 조선장(造船匠)
- 김압우 「다대포 후리소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 1987년 지정) 예능보유자
- 김용옥 괴정동 지역에서 활동한 서예가이자 종교인, 사회사업가
- 김윤하 부산에서 「을숙도 사연」 등을 비롯한 음악 활동을 한 작곡가
- 김정한 일용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 「모래톱 이야기」(1966)를 쓴 부산 토박이 소설가
- 박기채 화학용어 한글화로 '우리 화학'을 정립한 당리 출신의 교육자
- 백준호 에텐공원을 조성하여 그 일대를 음악과 청춘의 상징적 장소로 만든 인물
- 서석주 사하국교(구 사립양정학교) 설립자이며 4대 교장
- 서호영 하단공소를 설립하여 사하구 지역 천주교의 초석이 된 종교인
- 손진태 일제강점기 사하구 하단 출신의 민속학자이자 역사학자
- 신창호 하단과 을숙도를 배경으로 한 다수의 풍경화를 그린 일명 을숙도 화가
- 안학봉 조선말부터 대대로 전통신 화혜(靴鞋)를 만드는 가업을 해온 장인
- 양원국 영남지역 최초로 원불교 교당을 하단에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 한 종교인
- 양재일 사하초등학교(구 사립양정학교) 제5대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학자
- 오태균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부산음악발전에 기여한 음악가
- 유치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1967년 작고하기까지 시인 겸 교육자
- 윤필호 다대초등학교의 전신인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초대 교장
- 이유명 사하초등학교(구 사립양정학교)의 제3대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
- 이유진 사하초등학교의 전신인 사립양정학교의 초대 교장
- 정수봉 동아대학교의 제2-4대 총장. 사하 승학캠퍼스 조성에 기여한 교육행정가
- 조철제 태극도의 창사자이며 감천동에 대규모 신앙촌 조성
- 최기성 「다대팔경가」(1929)를 작사, 작곡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 최동원 사하구에서 성장한 부산을 대표하는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
- 최화수 사하문인협회를 만들고, 사하구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기사와 글을 쓴 문인
- 한경범 다대초등학교(구 다대포사립실용학교) 설립자 및 교육자
- 한상동 부산 고신대학교를 설립한 교육자, 부산 삼일교회를 설립한 목회자, 신사참배 거부자

강용권

(康龍權, 1926~2004)

사하구에서 활동한 동아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이며 민속학자



인터뷰 때의 모습
(『부산일보』 2004.10.27)

청천(靑泉) 강용권(康龍權)은 평양 출신으로 본관은 신천(信川)이다. 1926년 11월 2일 평남 용강군 지운면 양원리에서 강승돈 공과 박삼준 여사의 3남 1녀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1953년 10월 3일 금당 이희정과 결혼, 서구동대신동에 거주하면서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1960년 부산의 첫 무형문화재인 「수영들놀이」 발굴을 시작으로, 1971년 경남사천의 「가산오광대」, 1972년 「밀양백중놀이」, 1984년 「다대포 후리소리」 등 부산·경남의

민속문화 발굴사에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1977년 경남 사천군 곤양면 흥사리에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매향비(埋香碑)를 발굴했고, 1992년에는 삼천포 매향암각비를 발굴해 세상에 그 가치를 부각하였다.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을 계기로 알려진 다대포 후리소리는 멸치잡이 할 때 멸치를 후리며 노동의 피로를 덜고 흥을 돋우는 어업노동요이다.

그는 이곳의 후리소리와 어로에 관한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가사를 채록하고 고증하여, 1989년 7월 2일 부산시지방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받는데 이바지하였다. 당시의 후리소리 보유자는 모두 작고하였다. 현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이는 엄공열, 백종근 등 두 사람이다.

후리질의 시작은 낚개와 다땃개 사이 언덕에 망대(望臺)를 두어 어조(漁兆)가 보이면 징을 쳐 알린다. 그물을 쳐 버릿줄(그물)을 당겨 고기를 모으면 아낙네들이 소쿠리로 퍼 담아 나른다.

의식요인 당산제와 용왕제, 그물을 배에 싣는 소리, 어부들이 양쪽에서 버릿줄을 당기면서 부르는 후리소리 등 8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멸치잡아 무엇하리./열 두 독 짓을 담아/황금빛에 맛들거든/첫째 독은 혈어다가 나랏님께 상납하고/둘째 독은 혈어다가 부모님 전 봉양하고/셋째 독은 혈어다가 형제간에 갈라먹고...”

상민들의 애환이나 양반에 대한 회화보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에 입각한 충효, 우애 등 공동체 우선 의식이 돋보이는 민속이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아직까지 멸치잡이에 소요되는 어구와 작업의 방법을 재현·보존하고 있어 민속·음악 등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학문과 저술로는 『판소리 창본의 연구』, 『야류, 오광대』, 『한국 민속문화 연구』, 『한국 민속극 연구』, 『향토의 민속문화』 등 12권과 「한국 인형극 소고」, 「창극 연구」, 「한국 가면극본의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채 정립되지 못했던 민속학에 대한 이론적 토양을 제공했다.



매향비 발견 기사(『경향신문』 1977.6.16.)



강용권 교수의 저서들

2004년 10월 26일 79세를 일기로 사망, 김해삼계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 그는 부산경남의 문화재 전문위원과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1974년 부산시 향토문화상, 1983년 서울신문사 문화상분상, 1987년 제30회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고 동년 국민헌장 모란장을 받았다. 부산경남지방 민속 문화 전승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그로 인해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과 우정 어린 교류도 끊이지 않았다.

구해룡

(具海龍, 1839~?)

사하초등학교(구 사립양정학교)의 제2대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



「창원구씨세보」 속 구해룡

본관은 창원이다. 자(字)는 선약(善若)이다. 「창원구씨세보」를 보면, 1839년(헌종 9, 기해) 2월 22일 태어나서, 1909년(융희 3, 기유) 4월 17일 별세하였다. 그런데 「동래기영회 150년사」를 보면 1839년(기해) 생으로, 1913년 4월 동래 기영회(耆英會, 기영계)에 가입하였다. 이름, 자, 생년은 두 자료가 일치한다. 그런데 사망 시기와 기영회 가입 시기를 보면 서로 모순이 생긴다. 두 자료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 틀림없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다.

할아버지는 구봉상(具鳳祥), 아버지는 구혁진(具赫鎭)이다. 어머니는 부안 김씨 김이준(金彝俊)의 딸이다. 형은 구택룡(具澤龍), 동생은 구필룡(具泌龍)이다. 첫째 부인은 추계 추씨 추의범(秋義範)의 딸, 둘째 부인은 파주 염씨 염휘(廉暉)의 딸이다. 아들은 구재희(具在禧), 구재태(具在泰)다. 형 구택룡의



참고문헌

· 강용권, 「다대포후리소리」 『예술부산』 14(2000)

자는 선유(善裕)다. 형은 1908년 4월 동래 기영회(기영계)에 가입하였다.

조선후기 각 군현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작청(作廳, 질청)과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청(武廳)이 존재하였다. 군사 요충지 동래에는 다른 군현보다 많은 무청이 설치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구봉상은 장관청 중군과 천총, 별군관청 행수와 병방, 별기위청 별장, 수첩청 별장, 교련청 기지구기수초관 등 무임직을 역임하였다. 또한 할아버지 구봉상, 형 구택룡, 동생 구필룡이 상급 향리(이임) 명단인 「부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할아버지가 최고위 무임직인 중군(中軍)을 역임한 것이 주목된다. 증조할아버지 구치정(具致禎)도 장관청 파총과 부청선생을 역임하였다. 이처럼 구해룡은 동래 지역의 대표적인 무임, 향리 집안 출신이었다. 부산항 감리서 서기관을 역임한 민건호(閔建鎬)의 일기 「해은일록」을 보면 1890년(고종 27) 8월 당시 구해룡은 하단포 객주(客主)에 종사하고 있었다.

1908년 10명의 동래 지역 유지들이 공동 출자하여, 하단에 사립양정(養正)학교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1년씩 교장을 맡았다. 교장은 초대 이유진(李裕眞), 2대 구해룡, 3대 이유명(李裕明), 4대 서석주(徐錫柱), 5대 양재일(梁在日)이다. 이후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사립양정학교는 1919년 3월 하단공립보통학교로, 1919년 10월 사하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다. 이 학교가 현재 사하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대에서 5대까지 교장을 맡은 서석주, 양재일, 이유명, 이유진, 구해룡 등이 설립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구해룡은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구해룡의 형 구택룡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07년 12월 동래 읍내면에 사는 송상종(宋尙宗), 박필채(朴苾彩) 등 13명이 동래부윤 서리에게 개양(開揚)학교와 삼락(三樂)학교를 합하여, '동명(東明)학교'를 설립할 것을 청원하였다. 한편 1907년 1월에 읍내면 유지들이 결의된 '수면(首面, 읍내면) 노소 신사 총회 완의'를 보면, 기영회(耆英會)학교가 개양학교를 흡수한다고 하였다. 동명학교는 설립 후에도 '기영회학교'란 이름을 쓴 것 같다. 1910년 4월 동래부윤은 '동명학교'를 승인했으므로 '기영회학교'라는 이름을 쓰지 못

하도록 지시하였다. 동명학교는 1916년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가 되었다. 이 학교가 현재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이다.

구택룡은 사립동래동명학교 설립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10년 5월-1911년 2월, 1912년 3월-1914년 8월, 2차례나 사립동래동명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형은 동래에 있는 사립동래동명학교 교장, 동생은 사하에 있는 사립양정학교 교장을 역임한 것이다. 구택룡, 구해룡 형제는 부산 근대 교육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창원구씨세보」를 보면 구해룡의 산소는 서면 대연리 관모봉(현 부산시 남구 대연동 갈미봉)으로 추정 고조할아버지 산소 아래에 있었다.

참고문헌

- 창원구씨세보소, 「창원구씨세보」 1(회상사, 1981)
- 박용숙·김동철, 「개항기의 부산」 「부산시사」 1(부산직할시, 1989)
- 추월영, 「동래기영회 150년사」 (동래기영회, 1996)
-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2008)
- 민건호 저, 김동철 외 번역, 「국역 해은일록」 (2)(부산근대역사관, 2009)
- 손숙경·이훈상 편저, 「조선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 총람」 (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 (2012)



김두행 · 김원선 · 김만이

(金斗幸, 1847~1913)

(金元善, 1873~1946)

(金萬伊, 1905~1980)

하단동에서 돛배 만드는 것을 기업으로 전승한 조선장(造船匠)

김두행(金斗幸)의 가계는 대대로 하단동에 살면서 배 만드는 일을 하였다. 아들 김원선(金元善), 손자 김만이(金萬伊)가 모두 가업을 이어 평생 조선 장인으로 살았으며, 증손자 김창명(金昌命) 역시 가업을 이어 하단포구에서 목조 선박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단지역은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예부터 배를 통한 어업이 왕성한 곳이었다. 또한 개항기 하단포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강 건너 명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김해·삼랑진·왜관·상주 지방에서 생산되는 벼가 강을 따라 내려와



조선소에 정박 중인 돛배

이곳에 집하되었고, 벼를 도정하는 객주업과 쌀 도·소매업이 크게 번성하였고, 하단장은 구포장과 함께 낙동강 하류의 큰 장터로 유명하였다.

김두행은 개항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사하구 하단동이 본적이다. 당시 낙동강 일대는 다리가 없었으므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배를 이용해 연결하였다. 또한 낙동강을 거슬러 하단에서 구포, 삼랑진, 밀양, 수산, 남지까지의 물류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 활약한 것이 김두행이 만들던 하단 돛배이다.

그의 기술은 아들 김원선에게 이어졌다. 김원선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낙동강 홍수로 하구의 모래톱이 점점 크게 퇴적되어 강바닥이 얕아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30년대에 이르면 기존의 물류 중심의 포구로서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그나마 하단 돛배와 도선은 평저형을 띠고 있었으므로 얕아진 수심에도 운행이 가능했다. 1932년 구포다리가 놓여 육로로 낙동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으나, 하단에서 명지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배를 이용해야 했다. 또한 낙동강 하구의 어업 역시 그가 만든 배에 힘입어 지속될 수 있었다. 또한 1930년 부산부에서 하단에 분노처리장을 개설하여 1970년대까지 존속하였는데, 분노를 운반하는 나룻배, 이른바 '똥배'가 다니기도 하였다.

김만이는 김원선의 아들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독립하여 조선장을 꾸렸으며, 주로 범선이나 도선(渡船)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한국전쟁 때에도 배 만드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시기 미군으로부터 도입된 트럭이나 쓰리쿼터(3/4톤) 차량을 개조한 트럭 등이 육상 운송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다.

그의 집이 있던 하단1동 608-57은 괴정천변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배가 괴정천을 따라 김만이의 집에 부속된 선착장까지 들어왔다. 1970년대까지 하단지역에서 사람과 물자 수송의 주역은 여전히 배를 이용한 것이었으며, 김만이가 만든 돛배가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

현재 하단 돛배 장인인 김창명은 김만이 슬하 10남매 중 막내이다. 아버지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도구를 물려받아 60년째 조선 장인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작업장은 하단1동 1165-1번지, 하단어촌계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하단포구 전경

이미 80세의 고령임에도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조목근(曹睦根)이 40년째 그를 도와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는 경주에서 하동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삼천포, 사천, 하동 등지로 출장하여 배를 만들기도 하였다. 갈수록 일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다른 사업에는 손대지 않고 오로지 배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배는 삼나무로 선체를 만들고 부분적으로 삼엽목 역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재를 제재소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차를 통해 조선장으로 싣고 온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태양 빛 아래에서 건조하는데, 이때에는 날씨에 세심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재를 참나무 못 혹은 불에 달군 쇠못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배밑(저판)을 만든 후 선수재와 선미판을 먼저 붙이고, 측판을 조립한다. 측판은 유선형으로 휘어 있다. 이후 갑판재를 붙이고 선미, 태, 명에 등의 부재를 조립한다. 이후 뱃밥으로 바닥의 틈새를 막는다. 기본적으로 목재를 재단하여 조립하지만, 자투리 부분의 목재는 그때그때 깎아낸다. 완성된 배에는 페인트를 발라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는 가볍고 튼튼한 것이 장점이다. 주로 만드는 배는 황포돛배, 나룻배, 도선, 모래배 등이다. 모래배는 낙동강 하구의 모래를 수송하는 선박이다.

하단에서 만들어지는 배는 대개 평저선으로, 강바닥이 얇고 여울이 많은 낙동강 하구에서 운행하는 데 적합하다. 반면 바다에서 운항하는 통영의 돛배는 상대적으로 바닥이 뾰족한 편이다. 평저형에 나무못을 사용하고 가롱목으로 측판을 잇는 방식은 전형적인 전통 한선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김창명이 운영 중인 하단선창조선소에서는 배를 만드는 일을 ‘배 모은다’라고 표현한다.

낙동강 하구둑이 생겨 육로가 통하고, FRP 선박이 점차 늘어나 일거리가 예전만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 포구에서 운항하는 어선 중 상당수가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며, 창원시 진해 마리나 리조트에 있는 황포돛배(2009)와 구포 축제 등에서 활용되는 돛배 역시 그의 작품이다. 2016년 11월 28일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5호로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 「낙동강에 '황포돛단배' 뗏다」 「파이낸셜뉴스」 (2009. 10. 25.)
- 「주경업이 만난 洛東江 사람들 10 - 돛단배(범선) 만드는 목수 김창명 씨」 「부산일보」 (2012. 3. 2.)
- 박준성, 「韓船, 전통을 넘어 미래로 - 부산 하단의 마지막 배목수 金昌命 장인」 「월간조선」 (2014. 2.)
- 전승자 김창명 씨 구술(2017. 9. 26.)

김암우

(金岩牛, 1927~1997)

「다대포 후리소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 1987년 지정) 예능보유자

김암우(金岩牛)는 1927년 11월 14일 경상남도 창원군 남지읍에서 태어났다. 1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과 운수면에서 생활했다. 1960년대 후반에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이주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다대포 후리소리'를 재현하는 데 힘썼다. 그는 1997년 1월 30일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산시는 「다대포 후리소리」가 민속경연대회에서 연이어 거둔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1987년 7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같은 해 9월에 기능보유자로 김암우 외 3명을 지정했다.



다대포 후리소리의 한 장면



다대포 후리소리의 한 장면

다대포 후리소리는 다대포에서 후리그물로 멸치를 잡으면서 부르는 어업 노동요이다. 흔히 '멸치후리소리'로 부르는 이 멸치잡이 노래는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 해변을 중심으로 널리 전승되던 노래였으나, 오늘날에는 다대포 후리소리를 비롯하여 '좌수영어방놀이', '기장 멸치잡이 노래' 등으로 부산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민요이다. 이런 점에서 '다대포 후리소리'의 복원과 전승, 보존을 위한 노력은 민속학·문학·음악학의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김암우 등 기능보유자가 중심이 되어 활동했다.

김암우는 다대포 후리소리의 앞소리꾼으로 1986년 부산민속경연대회에서 장려상, 198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배에 그물을 실으면서 부르는 <그물 싣는 노래(사리소리)>, 바다로 가서 용왕신에게 멸치를 잘 잡도록 해달라고 비는 <용왕제 소리>, 후리그물을 길게 펼친 다음 이를 잡아당기면서 부르는 <그물 당기는 소리(후리소리)>, 그물에 붙은 멸치를 털면서 부르는 <멸치 털는 소리(산자소리)>, 멸치를 배에 실어 돌아오면서 신나게 '꽤지나 칭칭나네'의 후렴을 넣어 부르는

<풍어소리>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다대포 후리소리는 앞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배에 탄 어부들이 각 소리를 하는 단계에 따라 “에~헤 사리여”, “이여~싸”, “어 기여~차/당겨나 주~소”, “꽤지나 칭칭나~네” 등으로 후렴을 넣어 앞소리를 받는다.

다대포 후리소리

1. 당산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앞터당산 서낭님요/ 뒷터당산 서낭님요/ 두 골목에 서낭대신/ 그물걸기 좋은시에/ 기도발원 드리오니/ 굽어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 가기위해/ 조그마한 배를 모아/ 그물한채를 배에신고/ 부모형제 처자들을/ 손을들어 작별한후/ 파도속으로 헤쳐가니/ 굽어살펴 주옵소서/ 풀어주소 풀어주소/ 모진악살을 풀어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이별살도 풀어주고/ 수재살도 풀어주고/ 풍랑살도 막아주고/ 화재살도 막아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멸치잡이 떠나가니/ 재수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도 풍년들고/ 바다에도 풍년들어/ 양풍년이 겹쳐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하락].

2. 용왕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전에 비나이다/ [중략]/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를 가기위해/ 조그만한 조각배에/ 그물한채를 내어신고/ 오색가지 서낭기와/ 용왕깃발을 달은후에/ 돛대한쌍 높이달고/ 닻줄은거뿔 실은후에/ 부모형제 처자들은/ 손흔들어 작별한후/ 풍악울려 배를띄우고/ 만경창파로 들어가니/ 간데마다 순풍만나/ 무사태평을 비나이다[하락].

3. 그물 실는 소리

[앞소리]에-헤이 사리아/ [뒷소리]에-헤이 사리아[이하 ‘뒷’으로 표기]/ 사려보세 사려보세/ [뒷]/ 그물한채를 사려보세/ [뒷]/ 이그물을 널적에는/ [뒷]/ 어이하여 내었는고/ [뒷]/ 멸치잡이를 가려하니/ [뒷]/ 그물이없어 못가겠네/ [뒷]/ 그물한채 내자하니/ [뒷]/ 명주실이 어디있소/ [뒷]/ 뒷동산에 뽕을심어/ [뒷]/ 앞동산에 잠실을지어/ [뒷][중략]/ 삼치공치 칼치를두고/ [뒷]/ 멸치잡아 무엇하리/ [뒷]/ 열두독 젖을담아/ [뒷]/ 황금빛에 맞들거든/ [뒷]/ 첫째독은 헐어다가/ [뒷]/ 나라에다 상납하고/ [뒷]/ 둘째독은 헐어다가/ [뒷]/ 부모님전에 봉양하고/ [뒷]/ 셋째독은 헐어다가/ [뒷]/ 형제간에 갈라먹고/ [뒷]/ 넷째독은 헐어다가/ [뒷]/ 이웃간에 노뉘먹지/ [뒷]/ 남은독은 팔아다가/ [뒷]/ 논밭전지 많이사서/ [뒷]/ 부귀영화 누리보세/ [뒷].

4. 고기 잡으러 가는 소리

[앞소리]어여사/ [뒷소리]어여사[이하 ‘뒷’으로 표기]/ 달도밝고/ [뒷]/ 고요한데/ [뒷]/ 메레치생각/ [뒷]/ 절로난다/ [뒷][중략]/ 용왕님네/ [뒷]/ 은덕으로/ [뒷]/ 이그물을/ [뒷]/ 놓거들랑/ [뒷]/ 재수소망/ [뒷]/ 점지나하소/ [뒷]/ 메러치만선/ [뒷]/ 시켜나주소/ [뒷]/ 물색종다/ [뒷]/ 도미등아/ [뒷]/ 팔팔뛰는/ [뒷]/ 송어등아/ [뒷]/ 반짝이는/ [뒷]/ 메레치등아/ [뒷]/ 넓적하다/ [뒷]/ 광어등아/ [뒷]/ 우리후리에/ [뒷]/ 다들어오소/ [뒷][중략]/ 어기여차/ [뒷]/ 노를저어라/ [뒷]/ 여보시오/ [뒷]/ 선원들아/ [뒷]/ 힘을주고/ [뒷]/ 저어나주소/ [뒷]/ 메러치가/ [뒷]/ 많이있소/ [뒷]/ 빨리가서/ [뒷]/ 땅겨나주소/ [뒷]/ 어기여차/ [뒷]/ 저어나주소/ [뒷].

5. 그물 당기는 소리[후리 소리]

[앞소리]어기여차 당겨주소/ [뒷소리]어기여차 당겨주소[이하 ‘뒷’으로 표기]/ 용왕님의 은덕으로/ [뒷]/ 메러치풍년이 돌아왔네/ [뒷]/ 산은첩첩 천봉이요/ [뒷]/ 물은잔잔 백옥인데/ [뒷]/ 우리다대포 꽃이피네/ [뒷]/ 꽃피고 봄이

오니/ [뒷]/ 메리치풍년이 아닐소냐/ [뒷][중략]/ 푸룻푸룻 봄배추는/ [뒷]/ 찬이슬오기만 기다라고/ [뒷]/ 남원옥중 춘향이는/ [뒷]/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뒷]/ 강동장비 유현덕은/ [뒷]/ 조자룡오기만 기다린다/ [뒷]/ 다대포라 어부들은/ [뒷]/ 메리치오기만 기다린다/ [뒷]/ 어젯날에없던 메리치가/ [뒷]/ 오늘날에 풍년일세/ [뒷]/ 여보시오 어부네들/ [뒷]/ 부귀영화 탐치마소/ [뒷]/ 고대광실 부러마소/ [뒷]/ 오막살이 단칸이라도/ [뒷]/ 태평성대가 비친다네/ [뒷]/ 부지런히 일을해서/ [뒷]/ 나라상납 하연후에/ [뒷]/ 나라부강 하연후에/ [뒷]/ 태평성대를 누리보세/ [뒷]/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뒷].

6. 그물 터는 소리

[앞소리]에-산자/ [뒷소리]에-산자[이하 '뒷'으로 표기]/ 산자로다-/ [뒷]/ 많이도들었구나/ [뒷]/ 오뉴월/ [뒷]/ 삼복더위에/ [뒷]/ 황소붕알같이/ [뒷]/ 늘어졌구나/ [뒷][중략]/ 반갑도다/ [뒷]/ 이메리치야/ [뒷]/ 어데서놀다가/ [뒷]/ 이제사왔나/ [뒷]/ 기장바다에서/ [뒷]/ 놀다왔나/ [뒷]/ 대마도 바다에서/ [뒷]/ 놀다왔나/ [뒷]/ 학수고대/ [뒷]/ 기다린메리치/ [뒷]/ 오늘날에/ [뒷]/ 당도하였네[중략]/ 에-산이야/ [뒷]/ 너무나쪼으다가/ [뒷]/ 불통이터지면/ [뒷]/ 고생한것이/ [뒷]/ 허사가대요/ [뒷]/ 그만쪼으고/ [뒷]/ 메리치를핍시다/ [뒷][하략].

7. 가래 소리

[앞소리]어-넝청 가래로다/ [뒷소리]어-넝청 가래로다[이하 '뒷'으로 표기]/ 이가래가 누가랜고/ [뒷]/ 다대진첨사의 가래로다/ [뒷][중략]/ 이화도화 만발하고/ [뒷]/ 행화방초 휘날리는데/ [뒷]/ 메리치는 풍년일세/ [뒷]/ 값싸고맛좋은 메리치를/ [뒷]/ 있을적에 사들가소/ [뒷]/ 이메리치를 팔아다가/ [뒷]/ 나라상납 하연후에/ [뒷]/ 보모봉양 안할소냐/ [뒷]/ 어화청춘 소년들은/ [뒷]/ 백발보고 팔세말야/ [뒷]/ 우리도엇그제 소년이더니/ [뒷]/ 오날백발 잠간일세/ [뒷]/ 메리치를 많이잡았으니/ [뒷]/ 임도보고 뽕도딸겸/ [뒷]/ 술밥간에 많이먹고/ [뒷]/ 겸사겸사 잘놀아보세/ [뒷]/ 어-어넝청 가래로다/ [뒷].

8. 풍어 소리

[앞소리]캐지나 칭칭나네/ [뒷소리]캐지나 칭칭나네[이하 '뒷'으로 표기]/ 가자가자 어서가자/ [뒷]/ 이수강변 백로가자/ [뒷]/ 청천하늘에 잔별도많고/ [뒷]/ 시냇가에는 자갈도많다/ [뒷]/ 정월이라 대보름날/ [뒷]/ 달밤에나온 소년들은/ [뒷]/ 답교하고 노니는데/ [뒷]/ 이월이라 한식날은/ [뒷]/ 나무마다 춘기들고/ [뒷]/ 가지가지 순이난다/ [뒷][중략]/ 용왕님이 주신복지/ [뒷]/ 태평무궁 빛내보세/ [뒷]/ 우리겨레 단결하여/ [뒷]/ 피땀으로 세운나라/ [뒷]/ 너도나도 건설해서/ [뒷]/ 억천만년 누리보세/ [뒷][하략].



참고문헌

- 송영남, 「다대포 후리소리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6)
- 문자영, 「부산지방 무형문화재 제7호 「후리소리」 전승 보전과 창작화」,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8)
- 최현, 「다대포 후리소리」 『한국민속문화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2013)

김용옥

(金容玉, 1914~1998)

괴정동 지역에서 활동한 서예가이자 종교인, 사회사업가



김용옥은 1914년 12월 3일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에서 6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김해이며 호는 묵해(默海)이다. 아버지는 유학자인 김석두이며, 모친은 최모 접이다. 사하구 괴정1동 882-2번지에 「묵해 서예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한약방을 경영하는 유학자였던 아버지 김석두에게서 한문을 배우고, 서당을 다니며 한학을 공부하였다.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1924년부터 상주 사설강습소에서

수학하였고, 이후 창선소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

1931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생계가 곤란해졌다. 사업가였던 형의 권유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의탁하여 기독교에 입교하게 된다. 당시 남해 상주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최상림의 감화를 크게 받았고, 상주교회 신축에 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쓴 글씨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최상림 목사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평양에서 옥사하였다.

이남근 장로의 딸 이성업과 결혼 후 일본으로 건너가 신학공부를 하였다. 낮에는 공장 기계공으로, 밤에는 학생으로 주경야독하였다. 무명·비단 등의

한복 옷감 매매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동경 후카가와(深川)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역임했다. 1940년 오오시마(大島) 제강공장으로 징용되었다가 1945년 3월이 되어서야 공습으로 징용에서 풀려나 처가인 사천으로 돌아왔다. 이후 부산으로 건너와 사업과 서예활동, 신앙활동을 병행하였다.

1957년 부산 최초의 서예학원인 동명서화원의 이사장과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1960년 관악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사명을 받은 이후 서도선교(書道宣敎) 활동을 하였다. 1972년에는 한국서도선교회를 창립하여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선교에 매진했다. 그는 1986년부터 대만의 장애인 돕기 전시회인 「애심전」 등에 매년 작품 1백 점을 보내어 그곳의 장애인 구제 사업을 거들었다. 또한 1996년에는 장애인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서예작품 등을 국제장애인협회에 기증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했다.

1964년경 때 부산상업은행에서 첫 전시를 가진 이후, 광복동과 서울 국립전시관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1965년 대청동에 묵해서도원을 열었다. YMCA와 부산대학교 등에서 서예강사로 출강하였다. 대만과 일본의 도쿄, 고베, 오사카, 구마모토 등 해외에서 전시회를 열어 극찬을 받았다. 1971년 국전에서는 판정에 비리가 있음을 비판하며 서울 미도파 백화점 전시실에 낙선작품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전 중화민국 부비서관 장금기(張錦基)와 함께 한중문자문화관을 창설하였다. 80년대에는 중국과 대만, 일본, 미국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중화민국에서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하였다. 1993년 사하구 괴정동으로 묵해서예학원을 이전하였다. 동광동 40계단에 있는 노래비는 이 해 그의 작품이다. 1994년에는 한국서도협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사후 서예학원은 부원장으로 있던 차남 묵산 김준기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용옥은 유교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키고자 하였으며, 강렬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저서로는 「해동몽선습(행·예)」, 「천자문행서정선」, 「한중화제서전」, 「성경금구사전」, 「묵해회고록」, 「묵해시서첩」 등이 있다.

그는 제18회 늘원문화상(1976), 일본시사문화상(1977), 중화민국 국민당영예장(1987), 중화민국 명인서법석결비를 받았다. 또한 중국서법학회 의간지회 수석고문, 동백문화재단 상임고문, 한국서도협회 명예회장, 한·중·일 서예문화교류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윤하

(金允夏, 1925~2000)

부산에서 「을숙도 사연」 등을 비롯한 음악 활동을 한 작곡가

“새로운 것이 조건 없이 좋기만 할까?” 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요즘 대세인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경우 모두가 호기심에 관심을 갖는 것인지를 조금만 주시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술의 여러 장르에 있어서는 창작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을숙도

모차르트나 베토벤과 같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작곡가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면 어떠한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면서 작품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즉 스마트폰과 음악작품은 창작과 작곡에 준하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신선함’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과는 차이가 있다. 새로운 것 모두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신선함을 매력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음악은 언어에 비해서 추상적인 형태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문자보

참고문헌

- 김용옥 저, 허성수 편, 「묵해회고록」 (세종문화사, 1994)
- 「묵해김용옥서예전(도록)」 (1994)
- 「묵해 김용옥 서예전, 『매일경제』 (1988. 3. 23.)
- 「대만 장애인 토크 서예전 가진 묵해 김용옥씨, 『중앙일보』 (1990. 10. 28.)
- 「장애인협회 병풍등 기증, 『경향신문』 (1996. 4. 28.)
-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 '김용옥' (<http://e-archive.bscf.or.kr/main.php>)
- 아들 김준기 씨 구술(2017. 9. 18.)



다는 음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싶다. 언어에 ‘어법’이 있듯이 음악에도 ‘음악어법’이라는 게 있다. 작곡이라는 음악활동은 단지 음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도자기 빛듯이 빚어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를 나름의 규칙과 질서의 연속을 통해서 음악작품으로 생명처럼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작과 졸작이 ‘음악어법활용의 노련함’과 음악을 전개해 나가는 ‘아이디어의 신선함’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바탕은 익숙함이 가미되어 있어야만 감상하는 동안 정서적인 힐링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기에 소재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는 “을숙도(乙淑島)” 라는 섬이 있다. 을숙도는 여러 장르의 작품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작품을 보면,

을숙도 사연

김용태 시 / 김윤하 곡

억년 비바람 그 기운 다 모아
 낙동강 긴 줄기 흐르며 숨을 쉬며
 설움도 기쁨도 그 유유한 물빛
 바다로 접어들면 여기 광활한 갈대밭
 철새들 노래소리 을숙도 그 숨결소리
 먼 고향 그리운 고향 그리어 온다.
 아 아 누가 사람을 탓하지 않으랴
 메워버린 그 모래톱 그 갈대밭
 이제 철새들 다 가고 나면
 저 빈 하늘 뉘 달래리
 설움도 기쁨도 그 유유한 물빛
 바다로 접어들면 여기 광활한 갈대밭
 철새들 노래소리 을숙도 그 숨결소리
 먼 고향 그리운 고향 그리어 온다.

예술적인 순수한 열정이 참된 영향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 왔다. 그 참된 영향의 형태가 예술인(음악연주자 혹은 지휘자)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관련 장르의 교육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작품을 작곡한, 김윤하(金允夏) 선생은 1925년 2월 25일 황해도 재령군에서 태어났다. 평양국립음악대학 작곡과와 평양음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부산에서 젊은 시절부터 교회의 성가 지도를 하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까지 작곡 활동을 꾸준하게 해 왔다.

부산음악협회가 1999년 『부산가곡집 II』에 부산 지역 작곡가 30인이 2곡씩 작품을 하여 모두 59곡의 노래가 실렸다. 여기에 김용태 작사·김윤하 작곡의 「을숙도 사연」이 수록되어 있다.

김윤하 선생은 부산작곡가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는데 1996년 5월 30일 “제20회 창작곡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이 날은 실내악곡으로만 구성되어진 프로그램이었는데, 김윤하 선생은 「피아노 트리오」를 발표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작곡가 하오주의 주도로 만들어진 모임인 부산원로음악가회의 멤버로도 활동을 하였다. 부산에서 작곡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한국음악협회 부산지부 감사, 한국작곡협회 부산지부 이사 등 작곡가로서의 면모와 동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음악교육자로서의 후학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부산을 대표하는 곳 중 하나인 을숙도, 그것을 작품으로 다가가자면 하나의 섬이 아닌 정서로 보아야



을숙도 사연(김용태 시 / 김윤하 곡) 자필 악보

가능할 것이다. 고로 김윤하 선생은 부산에서 작곡 활동으로 악보집 수록 및 창작곡 발표를 통하여 먼 고향의 정서를 음악작품으로 승화를 시켰는지도 모른다.

‘작곡가’ 하면, 왠지 낯설고 일상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되기가 쉽다. 물론 작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일상에 늘 음악이 함께 하듯이 작곡가는 생존의 여부와는 다르게 그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한 만남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표 작품으로 합창곡인 「여호와를 찬양하라」(1989), 가곡인 「벽」(작사 하보, 1987), 「3월」(작사 이태극, 1990), 「효원의 꿈」(작사 윤인구, 1990), 「깊은 산 이름 모를 꽃」(작사 동강, 1991), 「내 님의 사랑」(작사 소암, 1993), 「을속도의 사연」(작사 김용태, 1993), 「진달래꽃 입술」(작사 구연식, 1994), 피아노 곡인 「피아노 트리오」(1996)가 있다. 그는 1998년 제23회 부산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정한

(金廷漢, 1908~1996)

사하구 하단2동에 위치한 일용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 「모래톱 이야기」(1966)를 쓴 부산 토박이 소설가



김정한은 1908년 경상남도 동래군 북면 남산리(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63-2번지에서 김기수(金基壽)와 정귀홍(鄭貴洪)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김해(金海)이고 호는 요산(樂山)이다. 그의 가계는 16대 조인 김일손(金駟孫)으로부터 시작하며, 10대 조부터 동래의 범어사 아래로 옮겨 온 이후부터 계속 살았다. 김정한이 현 사하구 관내에서 거주하며 생활한 적은 없지만, 부산과 이웃 지역인 양산 등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다수 창작

했으며, 대부분의 생애를 부산에서 보낸 토박이 작가이다. 김정한은 1996년 향년 89세로 타계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시신은 양산시 신불산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특히 그가 쓴 소설 중 ‘문단 복귀 작품’ (실제로는 절필기 없이 작품을 씀)으로 알려진 「모래톱 이야기」(1966)의 배경인 ‘조마이섬’은 현재 을숙도와 합쳐진 일용도(日雄島)이다. 김정한 작가를 일컬어 ‘낙동강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까닭도 이 작품에서 비롯되었다.

김정한은 어렸을 때는 향리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919년 범어사 재단



참고문헌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 작곡가 사전』 (시공사, 1999)
- 제갈삼, 『초창기 부산 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음악협회 45년사』 (2010)

인 사립 명정학교에 입학하여 신교육을 받았다. 1923년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부산의 동래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여 1928년에 졸업했다. 졸업 후 울산 대현보통학교 교사가 되었으나, 1930년에 일본 동경제일외국어학원(1년)을 거쳐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고등학원 문과 문학부를 고학하며 다녔다. 1932년 귀국 후 남해공립보통학교와 남명심상소학교에서 1940년까지 교직에 몸담았다. 1940년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운영하는 한편 경남도청 상공과 면포조합 서기로 일했다. 이때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피검되기도 했다. 광복 후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 부산지부장, 1947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장, 동년 이후 부산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50년부터 1974년 2월 정년퇴직 때까지 부산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이 기간에 『민중신보』, 『부산일보』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7년부터 민족문학작가회의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정한은 소설을 본격 창작하기에 앞서 습작한 동시, 시, 시조 등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여러 지면에 발표했다. 이때는 동래고등보통학교 졸업 후인 울산 대현보통학교 교사로 있을 때와 일본에 유학하고 있을 때인 1928년부터 1929년까지이다. 작품을 발표할 때는 김추색(金秋色), 김정한(金汀翰), 목원생(牧原生), 김목원(金牧原) 등의 필명을 사용했다. 소설은 1931년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녀작 단편소설 「그물」(1932)을 발표한 이후, 1936년 남해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있을 때 『조선일보』에 투고한 「사하촌」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김정한의 소설 중에는 부산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여럿이다. 1936년 신춘문예 당선작인 「사하촌」이 현재 금정구의 유명사찰인 범어사와 범어사의 땅을 소작하고 있는 농민들과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며, 1966년 『문학』 제6호에 발표된 「모래톱 이야기」는 바로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일웅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그리고 1985년 『12인 신작소설집·슬픈 해후』에 발표한 「슬픈 해후」는 김정한이 남긴 마지막 발표 작품으로, 사상구 엄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채」(1968), 「수라도」(1969), 「산서동 뒷

이야기」(1971), 『제3병동』(1976) 등이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 작품들이다.

광복 후 김정한이 다시 비판적인 지식인이자 소설가로 주목받는 계기가 된 작품은 「모래톱 이야기」이다. 「모래톱 이야기」에서 “낙동강 하류



모래톱이야기 표지석 (울속도조각공원 부근)

의 어느 외진 모래톱인 ‘조마이섬’은 작가의 생전에 김하기(金河杞) 작가와의 대담에서 일웅도(日雄島)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일웅도는 1978년 김해군 대저읍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으로 편입되었다가 1983년 12월 현재의 사하구 하단동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곳에 울속도문화회관과 그에 딸린 조각공원, 테니스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하구에서 2017년 11월에 세운 김정한 소설「모래톱이야기」표지석이 조각공원 부근에 있다. 소설 속에서 묘사된 1960년대 울속도의 전경을 보자.

섬의 생김새가 길쭉한 주머니와 같다 해서 조마이섬이라고 불려온다는 건우의 고장에는, 보리가 거의 자랄 대로 자라 있었다. 강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푸른 물결이 제법 넘실거리곤 했다.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 일대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 조마이섬이란 데도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집 두집 띄엄띄엄 땅을 물고 있을 따름이었다.

……(중략)……

물론 집은 그저 그러했다. 제목은 과히 오래되지 않았지만, 바깥 일손이 모자라는 탓인지, 갈대로 엮어 두른 울타리에는 몇 군데 개구멍이 나 있었다.
 “좀 들어가입시다. 촌집이 돼서 누추합니더만…….”
 건우 어머니는 나를 곧 안으로 인도했다. 걸레질을 안 해도 청은 말끔했다.

이상의 대목은 소설 속의 을숙도, 즉 일용도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건우의 집을 묘사한 부분이지만, 당시 을숙도의 평화로운 전경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건우의 집은 “촌집이 돼서 누추합니더만”이라고 해도 “걸레질을 안 해도 청은 말끔했다”고 했듯이, 건우 어머니의 정갈한 살림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김정환은 을숙도의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을숙도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고난에 찬 삶과 인간애를 주목했던 것이다.



김정환 교수의 저서들

김정환은 1928년과 1929년 사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습작, 발표한 동시, 시, 시조 등이 30여 편이 되며, 단편소설로 인쇄되어 처음 보게 되는 작품이 「그물(罟)」(『문학건설』, 1932. 12)이다. 이 작품 이전에 작가가 썼다고 한 「구제사업」 등의 작품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처녀작 「그물」 이후에 발표된 주요 소설 작품으로 「사하촌」(1936), 「옥심이」(1936), 「항진기」(1937), 「낙일홍」(1940), 「추산당과 결사사람들」(1940), 「옥중회갑」(1946), 「농촌세시기」(1955-1956), 「모래톱 이야기」(1966), 「축

생도」(1968), 「수라도」(1969), 「뒷기미 나루」(1969), 「인간단지」(1970), 「산거족」(1971), 「삼별초」(1977), 「슬픈 해후」(1985) 등이 있다. 창작집으로 『낙일홍』(1956), 『인간단지』(1971, 1977), 『김정환소설선집』(1974, 1983), 『수라도』(1975), 『제3병동』(1976), 『모래톱 이야기』(1976), 『사뱃재』(1977), 『낙동강1·2』(1994), 『삼별초』(1994), 『김정환전집』(전5권, 2008) 등이 있고, 수필집으로 『낙동강의 파수꾼』(1978), 『사람답게 살아가라』(1985)가 있다.

김정환은 1936년 「사하촌」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작고하기까지 부산시 문화상(문학상, 1959), 한국문학상(1969), 놀원문화상(1971), 문화예술상(1971), 은관문화훈장(1976), 심산상(1994) 등을 수상했다. 1978년 11월에는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내에 ‘요산김정환문학비」가 제막되었고, 1994년 범어사 상마마을 입구 도로 옆에 ‘김정환문학비」가 세워졌다. 2003년 생가가 복원되었고, 2006년 생가 옆에 요산문학관이 건립되었다. 1998년부터는 요산 김정환의 문학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요산문학제가 매년 가을에 개최되고 있다.



김정환 생가와 요산문학관(금정구 남산동 소재)



참고문헌

-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정함 - 인간 김정환, 『작가 연구』 4(새미, 1997)
- 조갑상·황국명·이순욱 편, 『김정환전집』(전5권)(작가마을, 2008)

박기채

(朴基采, 1920~2011)

화학용어 한글화로 '우리 화학'을 정립한 당리 출신의 교육자

본관은 밀성 박씨이며, 사하구 당리동에서 1920년 5월 30일 출생했고, 2011년 9월 8일 별세했다. 1930년대에 부산 동래고보를 재학하였다. 이곳에서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의 제자인 추월영의 제자로 우리말의 우월성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화학술어 한글화에 힘쓰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1940년대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으며, 1943년 본과에서 응용화학을 전공으로 삼았다. 1946년 졸업과 함께 부산 수산전문대학교(현재의 부경대학교) 조교수로 취임하였고, 이어 부산대학교 화학과 부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 해 7월 7일 조선화학회를 결성하고 서울대학교에서 1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조선화학회는 1948년 대한화학회로 개칭하게 된다.

1952년 부산에서 대한화학회 주도로 화학술어의 한글화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영어와 일본어로 된 화학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준비작업에 긴 시간이 걸렸다.

1954년 대구로 피난 와 임시교사에 있던 고려대학교에서 문리대학 화학과를 창설하였으며, 박기채를 중심으로 교수진이 꾸러지게 된다. 이후 그는 고

려대학교에서 교수로 30여 년간 재직하게 된다. 1971년 동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1956년 문교부 국비유학생으로 미국 뉴저지주 주립대학인 럿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으로 유학하여 3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다. 1960년부터 화학용어 한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1964년부터 최상업 박사를 위원장으로, 일반화학 성좌경, 물리화학 장세현, 유기화학 장세희, 무기화학 최상업, 생물화학 김택영, 그리고 분석화학은 박기채 본인이 맡았다. 1966년에는 대한화학회 간사장을 역임하고, 1973년 1월부터 1974년 12월 부회장을 맡았다. 1978년 8월~1980년 8월에 걸쳐 대한화학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1979년 6월 17일 부산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부임하였다. 하지만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80년에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80년 6월 29일에 강제적으로 이임하였다.

짧은 임기 동안 박기채 총장은 도서관을 새로 설계하여 기공하고, 부산대 부속병원을 준공하였다. 교양과정 운영의 현실화와 함께 일어일문학과, 고분자공학과, 일반사회교육과, 유아교육과 등을 신설하는 업적을 남겼다.

1981년부터 고려대로 돌아가 객원교수로서 출강하였다. 1985년부터 고려대학교 강사로 있었다. 주요 역서로 『기기분석』(Paul Delahay, 1963), 『일반화학』(W.L. Masterton, E.J. Slowinski 공저, 1970), 『기기분석의 원리』(D.M. West, D.A. Skoog 공저, 1982), 『기기분석원리』(Douglas A. Skoog, Donald M. West 공저, 1983)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정량분석화학』(1978), 『기본분석화학』(1984), 『일반화학』(1984) 등이 있다.



참고문헌

- 대한화학회, 『대한화학회 50년사: 1946-1996』, (1999)
- 부산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 70년사』, (2016)
- 『釜山大 總長에 朴基采씨 발령』, 『동아일보』, (1979. 6. 16.)
- 다음백과(『박기채』) (100.daum.net)

백준호

(白俊浩, 1905~1980)

에텐공원을 조성하여 그 일대를 음악과 청춘의 상징적 장소로 만든 인물

에텐공원은 1960-70년대 부산 문화의 상징이며 코드였다. 부산의 문화 예술에 에텐공원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 에텐공원을 만든 분이 바로 백준호 장로이다. 백준호는 1905년 김해군 대저면[현재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집안은 염소를 키워 젖을 짜고 양계를 하며 머슴을 여러 명 데리고 있었을 정도로 큰 농장을 경영하였던 부농이었다. 백준호는 주민들을 모아 채소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소달구지에 실어 부산으로 가지고 나와 중앙우체국 옆 옛 현대 극장 자리에 있던 청과 조합에 주로 판매하였다.

이때 중앙동의 한 여관에서 주로 머물렀는데, 그 여관의 일본인 주인과 친해졌다. 중앙동 민주중보사(民主衆報社) 옆의 삼화회관이었는데, 그 집 주인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였다. 화가이면서 음악애호가인 셈이었다. 일본인 여관 주인은 해방되기 전 백준호에게 그 집을 사라고 권유하였다. 일본의 패망을 예상했던 것 같다. 백준호는 그 집을 매입하였고, 해방이 되자 가족을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를 하였다. 여관이었던 그 집을 여관, 식당, 다방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집은 40계단에서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전차길의 모서리 지점, 옛 민주중보사 옆에 있었다. 그러나 1953년 이른바 '부산역전 대화재'로 백준호의 집도 소실되었다. 화재 후 백준호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토성동 한국전력 중부

산지점 맞은편에 있는 '김해정미소'를 매입하였다. 약 2년 정도 정미소를 하였다. 백준호는 사냥을 좋아하였다. 백준호는 겨울철 사냥을 위해 몇 차례 하단에 왔다가 그 경관에 반하였고, 어머니 묘터도 보아 두었다. 1953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미리 사두었던 터에 묘를 썼다.

어머니의 묘도 쓰고 농업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하였던 백준호는 정미소를 정리하고 하단으로 이주하였다. 1955년 에텐공원 밑 본가를 매입하여 백준호가 먼저 정착하고, 1956년 에텐 공원 일대 9만 9000평방미터(3만 평)을 구화 3백만 원에 매입하여 가족이 모두 이주하였다. 당시 이곳은 전부 갈대밭이었고, 동아대학교 하단 캠퍼스 맞은편에 초가집이 열 몇 채 있는 정도였다. 재첩을 캐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곳도 아닌 가난한 동네였다.

백준호는 이 땅에 『구약성서』 '창세기' 속 아담과 이브의 낙원인 '에텐동산'을 표방하여 '에텐원(苑)'이라 이름을 지었다. 훗날 에텐공원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인근까지 운행하던 노선버스가 종점을 '에텐공원행'으로 표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에텐원은 원래 주식회사로 출발하였다. 주식회사로 시작한



에텐공원의 입구 모습

것은 처음부터 작은 텃밭이 아니라 좀 더 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준호가 에덴공원을 주식회사로 만들면서 제시하였던 목적은 다섯 가지였다. 첫째, 유원지 조성 사업, 둘째, 유휴지 개척 사업, 셋째, 각종 초목 및 원예 사업, 넷째, 가금·가축 사업, 다섯째, 경로·육영 사업이었다. 유휴지를 개척하여 여기에 유원지를 조성하고 또 식목과 원예 사업을 하고 가축 등을 길러 여기서 산출되는 소득으로 경로와 교육 사업을 한다는 원대한 사업이었다. 에덴공원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백준호는 땀감용 벌목을 감시하고, 식목과 화초를 재배하였으며, 낙동강으로부터 수로를 연결하여 못을 만드는 등 정성껏 '에덴동산'을 가꾸었다. 유휴지를 개간하여 소출이 나는 땅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다. 마침 에덴공원의 개척에는 괴정에서 부영신관을 경영하던 최막석이 도움을 많이 주었다. 최막석은 백준호와 형님 아우사이로 친하게 지냈는데, 백준호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였다.

에덴동산을 본따 에덴원을 만든 백준호에게는 이상주의자의 품모가 보인다. 그러나 백준호는 소출이 나는 것을 중시하였다. 먼저 갈밭을 개간하여 양수시설도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가을에는 보리와 밀도 심었다. 동네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벌었다. 하구언(河口堰) 다리를 퐁다리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을 매립하여 주말농장을 만들었다. 서구 쪽 사람들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지었다. 작물을 심어주면 가꾸기도 하였다. 회원이 40명 정도 되었다. 18세기 영국의 앨롯먼트(allotment-분할 대여된 농지)에서 착상하여 시작하였다.

백준호는 개간한 땅에 교회도 유치하였다. 원래 백준호는 미문화원 뒤에 있는 중앙교회에 다녔다. 하단으로 이사 오고 나니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반석교회를 만들었다. 10년 정도 반석교회에 나갔다. 그러다 중앙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겨 원로 목사가 밀려나는 일이 있었다. 백준호는 원로목사를 만나

부지를 제공하고 하단에 새중앙교회를 만들도록 도왔다. 백준호의 첫째 아들이 이 교회의 장로였다. 이 교회가 오늘날의 호산나 교회이다. 새중앙교회를 만들고 나서 반석교회는 백준호 가족만 다녔다.

에덴공원이 부산을 넘어 전국적 명소로 이름을 떨치게 된 건 백준호의 두 아들 공이 컸다. 에덴공원의 기틀을 백준호가 닦았다면 에덴공원을 문화의 불모지 부산에서 문화와 예술의 장소로 만든 것은 두 아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훗날 부산의 문화적 상징으로 발전한 에덴공원은 원래 백준호가 구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에덴공원의 토대를 닦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만들도록 격려한 것은 백준호였다.

백준호는 자식들에게 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경계했다. 스스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곤 하였던 백준호로서는 당연한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에는 못을 뽑아서 다시 치는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생활을 하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쳤다. 그렇다고 억압적으로 일을 강요하는 아버지는 아니었다. 기독교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였던 백준호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성장하여 자식 사랑이 극진하였다. 그는 자식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허용적인 아버지였다.

마침 둘째아들 백광덕이 대학 졸업 후 부산으로 돌아왔다. 신학을 전공하였던 백광덕이지만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백광덕은 1965년 경 아버지한테 에덴공원의 갈대밭에 음악 감상실을 짓겠다고 하였다. 갈대가 무성한 한가운데에 음악 감상실을 짓겠다는 발상은 생소하였다. 그러나 아들의 생각을 존중하여 허락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광덕은 에덴 공원 북단 갈대밭에 아름다운 외딴집을 짓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낙동강 물길을 끌어들여 클래식 음악 감상실을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부산의 음악코드가 되었던 '강변'이다.

형 백광덕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 백성수도 건너편에 '강촌' 음악실을 내어 팝음악을 들려주었다. 당시 호수와 갈대숲으로 둘러싸인 에덴 공원은 곧

소문이 나면서 젊은이의 쉼터가 되었다. 하나 둘 동동주에 조롱박을 띄운 토속적인 간이주점들이 생겨났다. 에텐공원은 통행금지에도 아랑곳없는 청년들의 광장이었다. 암울했던 군사 정부 시절 청년들에게 간이주점과 막걸리,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어우러진 에텐공원은 그야말로 낙원이었다.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 코스로도 자주 찾았다. 별로 놀 곳이 없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부산에서 에텐공원은 젊은이들에게는 낙원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졌다. 부산의 예술가들 치고 에텐공원과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음악회가 열리고 연극이 공연되고 글을 쓰는 문인들까지 모두 모이는 유일한 자리가 되었다. 전국적인 음악회와 연주회도 에텐공원에서 열렸다.

1970년대 말 에텐공원 주변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도로가 나고 집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갈대밭이 매축되어 '강변'과 '강촌'도 뜯겨 나갔다. 강촌은 먹거리 식당으로 변하고 강변을 열었던 백광덕은 공원의 꼭대기 옛 매점 자리에 야외고전음악실 '솔바람'을 열었다. 백준호가 닦아놓은 에텐공원은 지금 둘째 아들 백광덕이 '솔바람'을 열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옛날의 정취를 이어주고 있다. 백준호의 큰 이상과 꿈이 만든 에텐공원은 원래의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부산의 문화예술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에텐공원 시대'를 여는 결실을 거두었다. 백준호 장로는 1980년 1월 8일 세상을 떠났으며 슬하에 6남을 두었다.

서석주

(徐錫柱, 1865~?)

사하국교(구 사립양정학교) 설립자이며 4대 교장

郡	業	東	名郡府
計 { 高等一校 普通七校	私立普通 實用學校	私立普通 養正學校	學程 度 校 名
	私立普通 明進學校		學設立者 氏 名
	徐錫柱	徐錫柱	
	姜大	姜大	
	趙宇	趙宇	
	韓致	韓致	
	韓致	韓致	
	韓致	韓致	

사립양정학교의 교장 서석주의 이름이 보임.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제52권(대학서원, 1990)

판도판서(版圖判書) 달성군(達城君) 서진(徐晉) 22세손이며 이참(史參) 호구계(號龜溪) 서침(徐沈) 16세손으로 경상남도 부산시 사하면 평림동 5통 5호에 거주했다.



참고문헌
· 백광덕 씨 구술(2017. 9. 7.)

사하면 하단에 거주하며 관력으로 숙릉참봉(淑陵參奉)을 역임했다. 하단포 객주로서 부산항상무회사 의원이며 객주지소장이었으며 적십자사원으로도 활동했다. 1905년 보부상을 중심으로 '유래팔상(由來八商)'까지 포함하여 교육과 실업을 표방한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教育會)에 참여하여 평의원이 되었다. 일찍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부산부 향교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인 장의(掌議)를 거쳐 지금의 교장격인 교임의 우두머리 도유사(都有司)를 역임했다. 개항 이후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단에 근대적 교육 기관으로서 현재의 사하초등학교의 전신인 사립양정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사립양정학교는 하단에 거주하던 선각자 10명의 공동 명의로 세운 학교로 초대 교장은 이유진이었으며, 서석주는 1912년에 4번째 교장을 맡았다.

서호영

(1860년경~?)

1890년 김해군에서 하단동으로 이주한 뒤 하단공소를 설립하여 사하구 지역 천주교의 초석이 된 종교인



현재의 괴정성당

19세기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자, 기호지방의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고, 산간벽지에 숨어 옹기장수, 방물장수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을해박해(1815, 순조15), 정해박해(1827, 순조27) 때에는 영남 지방에도 박해의 손길이 뻗었다. 영남

감영에서는 신자의 뒤를 밟아 천주교 마을을 찾아내었고, 각각 300여명, 240여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이후에도 박해는 이어졌고, 기해박해(1839), 병오박해(1846) 때에도 충청도 이북의 신자들이 남으로 내려와 언양, 기장, 동래, 밀양, 김해, 양산 등지까지 몸을 피하여 종교 활동을 이어나갔다. 낙동강 일대의 천주교 전파는 이로써 시작되었다.

1886년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으면서 천주교 포교 역시 공인되었다. 이때부터 선교사들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포교를 하였고, 지하로 숨은 신자들을 불러들였다. 이듬해에는 신자 수도 1만 4천명에 이르게 된다.

서호영은 경신박해(1860)와 병인박해(1866) 와중인 1860년대에 태어난



참고문헌

- 「조선신사대동보」
-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2008)

김해 지역 출신의 인물이다. 세례명은 토마스(Thomas)이다. 1890년 경 당시 30세이던 서호영은 김해에서 하단 본동, 지금의 에텐공원 부근으로 이사 오면서 포교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괴정성당을 비롯한 사하 지역 가톨릭의 근원이 되었다.

그가 태어날 무렵인 1868년 6월 1일 「일성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서군서, 서달서, 서성달, 서성겸, 노재익 등의 천주교 신자가 왜관의 개시에 맞추어 일본인에게 서한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노재익은 하동으로, 나머지 4명의 서씨는 김해로 갔다가 4월 그믐에 대구에서 합류한 후, 다시 초량의 박근기와 만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기가 부산진 첨사 윤석오에게 발각되면서 박근기는 동래부에 수감되고 일당에게 체포령이 떨어지게 된다. 이 시기는 병인양요(1866) 이후 1871년까지 이어진 병인박해 와중이었다.

이상 4명의 서씨와 서호영의 직접적인 혈연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이 김해 출신이고 처가가 언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호영은 김해 지역으로 이주한 천주교 집안 출신의 인물로 추정된다.

그가 이주할 무렵 하단은 하단포구와 인접한 하단장이 활발히 열리고 있었고, 객주가 들어서 명지·김해 지역과 물자가 오가는 곳이었다.

서호영이 하단으로 이주하기 직전인 1889년 범일동 성당이 설립되었다. 서호영은 김해에서 하단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범일동 성당의 주일미사에 참여하였다. 그는 대티고개를 넘어 30킬로미터 이상을 걸어 범일동성당을 찾았다.

1907년 어린 삼촌 서석국이 이웃으로 이주해오자, 그에게 포교하였다. 서석국의 세례명은 요한이었고, 그 일가도 대부분 천주교 신자가 된다. 이후에도 서호영은 포교활동에 열중하여 한해 평균 10명을 입교시켰다고 한다.

이후 신자 수가 크게 늘게 되자, 공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서호영과 서석국의 요청으로 하단동 170번지에 사는 신자 송경수(안토니오)의 집 일부를 공소로 사용하게 된다. 1926년 경에는 하단동 439번지에 사는 서석국(요한)의 집으로 다시 공소를 옮긴다. 이 공소는 1947년까지 유지되었다. 범일성당에서 외국인 신부가 이곳으로 와서 미사와 고백성사를 집전하고, 교리를 가

르치며 하루를 숙박하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서석국의 집을 공소집이라고 불렀다.

1948년에는 하단동 440번지 정경운(아녜스)의 집으로 공소를 옮겼다. 그해 가을에 판공성사를 하면서 다시 하단동 619번지 정태수(요셉)의 집으로 옮긴다. 1956년 공소 신축까지 이곳이 공소로 활용되었다. 1948년 중앙성당이 건립되고, 공소 역시 범일동에서 중앙 관할로 넘어가게 된다. 1955년에는 다시 서대신 성당으로 관할이 넘어갔다. 1956년 신도들의 모금으로 하단공소가 신축되었고, 이로써 가정공소 시기가 마무리된다.

김성곤(야고보)이 주축이 되어 신촌(괴정) 지역에 성당 건립이 추진된다. 그는 삼랑진 출신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다 1951년 귀국하여 괴정 지역으로 들어왔다. 1952년 괴정동 428번지에 천막공소를 건립한 것이 그 시초이다. 54년 교세가 확장되면서 공소를 판자집으로 확장하였다. 1958년 괴정동 467번지로 옮겼는데, 이곳은 괴정삼거리 인근에서 가장 큰 현대식 건물이었다. 59년 콕 제르바시오(Gervis. J. Coxen) 신부가 서대신 주인신부가 되었고, 이듬해 괴정동 481-1번지(현 사하성당)에 성당 건립을 추진하였다. 성당은 1961년 6월 29일에 완공되어 콕 제르바시오 신부가 초대 주임신부가 되었다. 서호영이 처음 하단에 정착한 지 70년만의 일이다.

이후 1983년 괴정성당은 현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1988년 2월 6일에 하단 성당이, 1997년 2월 1일에 다대성당이 분가되었다.



콕제르바시오 신부
(『교구사진자료집』 (부산교회사연구소, 1994))



참고문헌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괴정성당」
- 천주교 괴정교회, 「괴정성당 이십오년사 사하선교 발자취」 (1987)

손진태

(孫晉泰, 1900~1960년대 중반 추정)

일제강점기 사하구 하단 출신의 민속학자이자 역사학자



손진태는 1900년 12월 28일 경상남도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서 손수인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남창(南滄), 필명 손중자(孫重子)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5살 때 해일로 집이 유실되고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고, 양산군 좌이면 남창리(현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남창마을)로 이사하여 12살 때까지 살았다. '남창(南滄)'이란 호는 유

년시절을 보낸 남창마을의 지명에서 딴 것이다.

손진태는 와세다대학 사학과 청강생이었던 이은상(李殷相)의 중매로 1932년 역시 일본 동경 유학생이었던 연명수(連明洙) 씨의 여동생이자 당시 이화여전 출신인 연영화(連榮嬋)와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6남매를 두었다.

손진태는 구포구명학교(현 구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중등학교(현 중동중학교)를 2년간 다니고 1921년에 졸업하였다. 1919년 구포장터에서 열린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붙잡혀 부산형무소에서 4개월간 옥살이를 하였다. 1921년 최규동(崔奎東)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1924년 와세다대학 제1고등학교원을 졸업하고, 와세다대학 사학과로 진학하여 일본사와 인류학을 전공하고 1927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는 와세다대학 동양

문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등 학자들과 교류를 했다. 와세다대학 사학과 재학 당시 지도교수는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였으며, 일본의 문화계와 사학계를 이끈 츠다 소키치(津田左右吉)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20년대 초반 유학시절에는 습작으로 쓴 시와 동시와 직접 조사한 민요를 『금성』지에 발표하기도 했으며, 1923년에는 방정환 등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색동회에도 참여하여 아동극을 창작하고, 동화를 번역하거나 사화(史話)를 소개하는 등 문학 분야에도 적지 않은 활동을 했다.

손진태의 학문 활동 시기는 민속학자로 주로 활동했던 광복 이전과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광복 이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손진태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구포와 동래 등 부산 지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해안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을 현지 답사하여 민간신앙, 설화, 무가(巫歌), 민요 등 구비문학, 사회생활사 관련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민속의 전파와 변천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1932년에는 송석하(宋錫夏), 정인섭(鄭寅燮) 등과 함께 '조선민속학회'를 창설하고, 1933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지인 『조선민속』을 창간하여 발간했다. 1934년 귀국 후에는 연희전문학교 강사를 시작으로 '진단학회'의 조직에 참여했으며, 보성전문학교에 출강하다가 1937년 문명사를 강의하는 전임교수가 되었다.

1945년부터는 서울대학교로 옮겨서 사범대학장을 거쳐 문리과대학장을 맡고 있었으며,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문화교육부 편수국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을 만나 삼각산에 은신했으나 발각되어 납북되었다. 북한에서의 생활은 여러 증언을 통해 알려졌는데, 특별한 학문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1958년 종파투쟁 이후 사상교육을 받고 국영농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지병을 얻어 고생하던 중에 1960년대 중반에 사망했다고 한다.

민속학 분야의 주요 저서로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1930),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일문, 1930), 『조선민족설화의 연구』(1947), 『조선민족문화의 연구』(1948) 등이 있는데, 문헌에 의존한 연구가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지식을 통해 실증적 조사방법에 입각한 민속학을 정립하

고자 했다. 그리고 민속학의 연구가 역사학, 사회학 등 인접학문과의 관련 속에서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민속의 연구방법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설화와 민간신앙, 무속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외에도 온돌의 기원과 전파 경로, 구조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그 특징을 밝혀냈으며, 민가연구에서도 움집의 유형에 따른 발생과 분포를 파악했다. 2002년 12월 문화관광부가 뽑은 '이 달의 문화 인물'에 선정되었다.

손진태는 역사학 분야에서도 『조선민족사개론』(1948), 『국사대요』(1949), 『국사강화』(1950) 등을 저술하고, 여러 역사 관련 유고를 남겼다. 그는 『조선민족사개론』의 자서(自序)를 통해 신민족주의 사관에서 역사를 집필했다고 하면서, 신민족주의는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과 그에 의한 약소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요청하고, 이러한 약소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전제로 한 국제적인 “모든 민족의 평등과 친화와 자주독립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러한 신민족주의 사관은 앞으로 한국사학계가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손진태 교수의 저서들

손진태가 쓴 한국사 관련 역사서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1948), 『조선민족사개론』(1948), 『국사대요』(1949), 『국사강화』(1950), 『이웃나라의 생활 - 역사 부분』(1950, 1952 증보), 유고집으로 남겨진 『조선역사개설』, 『조선민족사의 진로』, 『우리나라 문화』, 『조선민족사개론 하』, 『한국사 지도』

가 있으며, 민속학 저서로는 『조선고가요집』(1929), 『조선신가유편』(1930), 『조선민담집』(일문, 1930), 『조선 민족설화의 연구』(1947), 그리고 유고집으로 『조선상고문화의 연구』(1926), 『조선무격의 신가』(1936) 등이 있다.

그에 대한 글은 이기백 편, 『남창손진태선생전집』(1981)이 있으며, 손진태의 유고 원고는 최광식이 편하여 『남창 손진태유고집1~3』(1~2는 2002, 3은 2007)로 간행되었으며, 유고집의 체계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당시의 국문과 일문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2012)로 발행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역사민속학회, 『남창 손진태의 역사 민속학 연구』(민속원, 2003)
- 최광식,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 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지식산업사, 2012)

신창호

(申昌鎬, 1928~2003)

하단과 을숙도를 배경으로 한 다수의 풍경화를 그린 일명 을숙도 화가



신창호 화백은 일명 을숙도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을숙도 그림을 많이 그렸으며, 부산 미술사의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28년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동에서 신재갑과 이춘덕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로 출생하였다.

그의 교우관계는 사하구 소재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한 청초 이석우, 윤제 이규옥, 동래야류 탈제작 인간문화재 천재동, 원로화가 송혜수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한편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아 대표적인 제자로는 부산대학교 이민한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와 박세형 교수, 화가 정광화 등이 있다.

신창호의 유년시절은 부모님께서 농사로 생활을 영위하여, 경제적 환경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다고 전한다. 옥포초등학교에 다녔던 신창호는 당시 수재로 불릴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며, 운동 신경도 뛰어나 육상선수로도 활약하였다. 그러던 중 신창호는 누나와 함께 대구로 유학을 가면서 대구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지금은 계성고등학교로 바뀐 5년제 학제인 계성중학교에 진학하여 특별활동으로 미술부에 가입하였다. 그 곳에서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돌아온 서진달 선생에게 데생을 배웠으며, 중학교 미술부 선배 김우조와 김창락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경북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였으나 중퇴하고 독학으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당시에는 체계적인 미술교육을 하는 대학이나 사설 학원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데생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어려웠다. 그러나 중학교 미술부시절에 배운 데생수업과 실기 경험은 이후 그의 작품들의 화풍에 큰 밑바탕이 되었다. 1960년대 초 계성중학교 교사로 있었던 추연근 선생의 권유로 삶의 터전을 부산으로 옮겼다. 아무런 기반도 없던 신창호는 당시 노옹구 선생이 운영하던 동양미술학원의 강사로 발탁되어, 후학에게 석고소묘를 지도하면서 작가생활을 시작하였다. 1968년 중구 중앙동의 현대극장(지금의 제일은행 부산지점 자리) 맞은 편 골목길에 있던 부산 갈비 3층에 지인의 도움으로 아틀리에를 마련한 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이곳저곳 작업실을 이전하면서 학생지도와 작품제작 활동을 병행하였다. 1972년 보수동 책방골목의 유기선 내과 4층에 아틀리에를 마련하면서 미술학원으로서의 기틀을 잡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당시 미술교육의 열풍에 힘입어 지도학생 수가 상당히 많았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간에는 입시학생들을 지도하고 본인의 작품 활동은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하였다.

신창호는 대부분의 작품을 현장에서 스케치하면서 제작하였다. 자연을 보고 느낀 그 순간의 감동을 화폭에 담으려는 생각이었다. 당시는 자가용이 귀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화가는 주로 새벽부터 버스를 이용해 사생을 나갔다. 산길이나 들판을 헤매면서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 다닐 때도 있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를 가리지 않고 사생을 나가다

보니 함께 사생하던 문하생이나 아들, 화우들이 너무 고생스러워 동행하기를 꺼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창호의 열정에 할 수 없이 따라 다닌 적도 많았다고 한다. 신창호는 특히 을숙도와 하단, 낙동강변을 즐겨 찾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부산일보에 기고했던 내용을 보면 잘 드러난다.

“내 마음속에 고향보다 가까이 있는 곳. 지구상의 그 어느 곳보다 내가 좋아하던 곳이 낙동강하구의 하단과 을숙도다.

거기에는 미풍에도 서걱거리는 갈대의 숲이 있었다. 비상하는 철새의 무리가 있으며, 햇볕에 그을린 구리 빛의 농부 얼굴이 있었다.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생명과 자연의 광채를 피부로 느꼈던 곳 또한 그곳이다.

나는 약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을숙도와 하단을 찾아왔다. 작품 속에 담고 싶은 소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을숙도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가 있었기에 더욱 자주 가게 되었다. 그곳의 자연과 생명체들은 하나하나가 마치 흡입관처럼 나의 시선을 빨아들인다. 사시사철 조금씩 모습을 바꾸는 갈대를 쳐다보면서 나는 마치 소년처럼 자연의 오묘함을 찬탄해 마지않았다.

나의 초창기 때 작품은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자연에 집착한 것들이 아니었다. 한때는 인물을 즐겨 그리기도 했고 다소 형태를 해체시키거나 변형시킨 작품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과 친해졌고 그것이 작품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소위, 풍경화가 됐고, 간혹 을숙도화가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내 솔직한 심정을 굳이 말해보자면 화가로 보다는 자연주의자로 불렸으면 하는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는 경북 달성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60년을 조금 넘게 살아온 지금도 아직 그런 촌스러움의 옛 티를 못 벗어내고 있다는 감상주의가 깔려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림을 일제 때 중학교시절 시작했다. 그때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미술반원으로 활동했던 인연이 지금껏 붓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60년대 초 영남재건예술제 최고상을 수상한 때를 전후로 해

서 사실적인 작품과는 차이가 나는 쉽게 말해서 외국의 경향을 차용한 작품을 해보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유행과 나와는 원래부터 인연이 없었던지 내 스스로 그러한 작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요즘 국내화단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것, 종전까지 잘 볼 수 없었던 것만을 창조라고 내세우면서 추켜올리는 경향이 농후하다. 때에 따라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만드는 작가의 수도 상당수다.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는 있겠으나 나는 그러한 작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선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모든 예술을 노래라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애국가나 아리랑과 같이 언제 불러도 좋은 노래여야 한다. 매우 울동적인 가수가 춤을 잘 추어 인기가 높아진다 해도 결국 가수는 노래로써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보수적이고 감상적이라는 말을 들겠지만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을숙도 부근이 너무나 많은 애정을 쏟아 넣은 곳이었던 때문이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조금씩 밝기를 더해가던 농가의 불빛도 이제는 찾을 길 없이 돼버렸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을숙도 부근을 그리고 있다.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을숙도 풍경을 떠올리면서, 특별히 좋아하는 색도 구도도 없이 자연 그 자체가 새로운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부산일보』 (1988. 6. 2.)

신창호의 을숙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이때 신창호는 주위의 화가와 시인, 서예가 등과도 교류를 하였다. 특히 시인 박문하는 신창호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乙淑島에 가면

박문하

싹퍼런 갈대
 물결치는 샛길
 저기 배낭을 메고 누가 온다.
 형벌어진 은 빛 머리칼
 로이드 안경 연신 치키면서,
 강나루 집 근처 양지 쪽에
 전을 편다.
 허기지는 한나절
 목마른 소주한잔
 저물도록 을숙도
 화폭에 담는다.
 철새도 가고 없는 낙동강
 하구안-
 바람 부는 강둑에 서면,
 저기 고수부지 가로질러
 신창호 화백이
 혼자 터벅 터벅 걸어온다.

위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창호는 을숙도를 사랑한 화가이다. 남겨진 유작의 상당수가 을숙도와 하단 풍경이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주로 새벽이나 저녁시간이었다. 새벽은 낮에 비해 바람이 적게 불고 물길 또한 잔잔하여 그림그리기에 편하였고, 저녁의 경우에는 노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케치에 나갈 때는 항상 도시락과 막걸리를 준비하여 그림을 그리느라 지친 몸과 정신을 한잔 술로 위안을 삼았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 술이 부족할 때에는 주변의 재첩국집이나 가게에 들르기도 하였다. 특히 자주 가는 집은 하단 에덴공원 아래쪽에 있는 강나루라는 주점이었다. 오전에 주로 사생을 하고 강나루에 들러 한잔 걸친 채 학원으로 오다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업 하는 일도 많았다. 그때는 학생들

이 매우 긴장하고 수업에 임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평소에 지적하지 못했던 여학생이나 마음 약한 학생들의 미흡한 부분을 가차 없이 지적하면서 평가를 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화판을 던져버리기까지 했는데, 이런 혼런 덕분인지 수강생들의 소묘실력은 나날이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다.

테생을 가르칠 때에는 주로 목탄 테생을 했는데, 흐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다. '밝은 부분의 흐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흐름,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은 항상 같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생을 지도하던 신창호의 오른손 엄지는 지문이 없었다. 목탄으로 그린 부분이 톤을 가지고 목탄지에 묻어 들어가도록 문지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반질반질 빛나고 있었다.

신창호의 하모니카 실력은 수준급이었다. 하모니카를 하게 된 계기는 군에서 악단하다 들어온 동료가 하모니카의 달인이어서 그에게 감동과 영향을 받아 하모니카를 불게 되었다고 한다. 신창호는 기분이 좋을 때나 흥이 오를 때에는 학생들 앞에서 하모니카를 불어주기도 하였다.



「노을지는 을숙도」 73×60cm 1994 (이경훈 소장)

1970년대 신창호 화실은 입시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입시 테생을 제대로 하는 학원이 많이 없었고, 진학률이 타 학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대학교에 진학하는 입시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창호의 생활은 여전히 풍족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고 다니게 했던 것이다.

신창호의 집은 판자로 만든 이층가옥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로로 긴 목조건물이었다. 계단을 비집고 올라간 다락방은 흔들리고 삐걱거리는 좁고 열악한 방이어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앉지도 못했다. 그 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서 1976년도에 사하중학교 뒤의 당리동에 한미로얄맨션에 처음으로 자택을 마련하였다. 이곳은 하단과 을숙도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신창호가 더욱 자주 을숙도와 하단을 그리게 되었고, 임종하기까지 생활한 마지막 장소가 되었다.

당시 한국의 화단은 추상미술이 현대미술의 대세이며 새로운 돌파구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었다. 사실적 화풍을 추구하는 화가들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화가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추상미술과 사실적 화풍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시기였다. 자연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던 신창호는 대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객관적이고 사실주의적인 화풍에서 벗어나 자연의 기운생동을 느낄 수 있는 주관적 사실화풍을 추구했다. 에텐공원과 을숙도를 그린 풍경화의 화면을 보면, 윤곽선을 사용한다거나 대상을 세밀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들, 나무 등을 스케치하듯 툭툭 그려나간다. 그의 붓놀림은 약간의 속도감이 느껴지면서 가볍고 경쾌하다. 던져지듯이 칠하여 남은 붓놀림은 서로 어울리면서 전체 화면을 이루고 있다. 서로 다른 대상들을 같은 필체로 그리면서 대상의 개별성을 억제하고 화면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모든 대상을 똑같은 시각으로 공평하게 쳐다본다는 말이다. 신창호는 대상의 외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형상은 그냥 빌려서 화면에 배치하고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은 자연에서 느껴지는 감흥과 생명의 리듬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었다.

신창호의 초기부터 80년대까지의 화풍은 화면이 정연하고 붓질이 차분하며 대상에 다소 충실한 면이 보인다. 아마 화면 전체의 안정적인 통일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는 통일감보다는 순간적인 스케치의 필치에서 드러나는 화면의 동적인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이면서 부산일보 사장을 역임했던 시인 김상훈은 신창호의 화풍을 다음과 같이 추모하고 있다.

그의 창작 활동은 분전(分錢)을 모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양명(揚名)을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화단의 입지를 강화, 개인의 영달(榮達)이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는 자연을 벗 삼아 그림 그리는 일에 만 혼신을 다하였다. (...중략...)

신창호 화백의 그림에는 첫째 시적 서정이 넘치고 있다. 자연을 소재로 해서 그 오묘(奧妙)하고 유수(幽邃)한 생명의 경이(驚異)와 감동(感動)을 담백하고 잔잔하게 재현하고 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心醉)하고 몰입(沒入)했던 화가였고 자연의 섭리(攝理)와 그 생명의 조화에 외경(畏敬)의 념(念)을 가지고 있었던 화가였으며 그림그리기를 지락(至樂)의 도(道)로 삼았던 화가였다.

둘째, 구상의 본령(本領)을 일탈(逸脫)하지 않고 생동하는 자연의 아름답고 신비한 실경을 보고 느낀 감흥을 강렬한 시각적 호소력으로 재현해 왔다.

셋째, 활달(豁達)하고 대범(大凡)한 필치로 완벽한 작품을 창작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오랜 창작생활에서 능달(能達)해진 그의 높은 표현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그는 모국(母國)의 산과 들,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소요(逍遙)하면서 맑고 서늘한 공기와 투명(透明)한 물빛을 그리는가하면 하늘의 뭉게구름, 새털구름, 나는 새떼 등 다양한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내기도 했다. 그의 그림에 배어 있는 기본 사상은 모국(母國)의 산하(山河)에 대한 고향의식(故鄕意識)이며 귀속감(歸屬感)이다. 고향에 대한 맑고 밝으면서도 강렬한 애착과 집념이다. (...중략...)

첫 번째 구절에서 신창호의 자연과 그림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재료는 유채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양에서 추구하고 있던 정경교용(情景交融) 혹은 물아교용(物我交融)의 세계를 추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에 대한 관찰과 해석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과 대화하며 자연에 몰입함으로써 자연과 일체가 되기를 바라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반기 작품에서는 과감하고 대범하게 움직이는 필치들을 통해 자연대상과 물감과 붓질과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마저도 엿볼 수 있다. 2002년도의 작품 <만추의 을숙도>나 2003년 작품 「하단의 노을」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거의 추상에 가까울 정도의 붓질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넷째 이야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모국(母國)의 산하(山河)에 대한 고향의식(故鄉意識)이며 귀속감(歸屬感)'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사하구의 하단과 낙동강의 풍경을 그리면서 자신의 조형적 특성을 갖춘 작품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낙동강과 하단의 풍경을 새벽, 낮, 저녁 등의 시간대를 묘사한 화면에는 인상주의의 빛과의 관계나 시간성의 문제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인상주의의 빛과 색채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색을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 그의 빛과 색채는 자연중심적인 시각에서 자연의 온화한 생명감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색의 사용에 있어서 인상주의적 영향은 다소 있는 것 같으나, 흰색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자연의 정감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표현상에 차이점이 있다. 화이트(흰색)의 혼색을 통하여 색의 강열함보다는 푸근함을 나타냄으로서 한국의 토속적 감성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부산 화단에서 신창호는 전혁림(全赫林), 추연근, 김종식(金種植), 임호(林湖), 양달석(梁澁錫) 등과 함께 구상화풍을 일으켰다. 1989~1990년 사실적인 묘사와 선이 고운 윤필로 『국제 신문』의 중편 소설 릴레이의 삽화가로 활동하였고, 여러 기획전과 단체전에 초대받았으며, 부산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하였다.

산과 들녘의 청명한 대기와 강과 바다의 투명한 물빛을 소재로 하는 풍경화를 주로 그려 온 그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예술관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하단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여 풍경화 가운데 다수가 하단과 을숙도를 배경으로 하였고, 이 때문에 '을숙도 화가'로 불리기도 하였다. 틈만 나면 야외로 나가 사생을 하며 붓을 들던 그는 고회를 넘긴 2000년 8월에도 개인전을 열어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대외 활동보다는 묵묵

히 작품 활동에 매진하여,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는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의 주요 활동을 시대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67년 중앙동에 아뜰리에 개설, 1973년 「잔영」으로 국전 입선, 1974년 「선」으로 국전 입선, 1975년 「강촌」으로 국전 입선, 1976년 영남 사실 작가회 창립, 1977년 신미술회 회원 가입, 1985년 1회 개인전 (로타리 화랑), 1998년 2회 개인전 (유화랑), 1994년 3회 개인전(타워 미술관), 1997년 4회 개인전(현대 아트홀 초대), 2000년 5회 개인전(열린화랑 초대) 등 꾸준한 활동을 하였다.



「을숙도」 53x41cm 1989 (김성애 소장)

뿐만 아니라 신창호는 1968, 1970, 1987년 부산일보 연재소설에 삽화를 제작하고, 이후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국제신문 연재소설에도 삽화를 작업했다. 2005년에는 신창호 화집 『신동문화』를 발간했다. 그는 1960년대 초 영남 재건예술제 최고상을 수상하고, 1997년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어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 또한 삼고 문화회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열정적 삶을 살았던 신창호 화백은 2003년 5월 13일 오전 8시 지병으로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타계하였으니, 향년 75세였다. 묘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선산에 영면하였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영희 여사와 슬하에 2남 1녀가 있다. 장남 신희직은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한미로얄맨션에서 청년시절을 보냈으며,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전업작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손자 신중훈은 서울미대를 졸업하고 서울 덕원예술고 강의전담교사와 전업작가로 활동 중이다.

2005년에는 그를 기리기 위해 신창호 추모전 (현대 아트홀 9. 27.-10. 3.)

이 진행되었다. 신창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故 신창호 화백 추모전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여, 9월 27일~10월 2일 추모전을 개최하고 신창호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2006년 故 신창호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정광화)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 수목원(구덕 문화 공원) 입구에 ‘화가 신창호 추모비’를 설치하였다. 높이 3.8m 크기에 산을 닮은 형상을 한 추모비는 검은색 오석과 청동으로 만든 고인의 두상으로 추모비의 디자인은 울산대학교 정육장 교수가 맡았고 청동 두상은 신창호 화백의 손자인 조각가 신종훈이 제작했다. 추모비 전면에는 시인 박문하(朴文夏)의 「을숙도에 가면」이란 시를 새겨 넣었다.



화가 신창호 추모비

안학봉

(安學奉, 1904~1962)

조선말부터 대대로 전통신 화혜(靴鞋)를 만드는 가업을 해온 장인

순흥 안씨 집안으로, 선대부터 대대로 신 만드는 일을 하였다. 현재는 아들인 안해표가 가업을 이어받았으며, 손자 역시 가업을 전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화혜장(靴鞋匠)이란 전통신을 만드는 장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화(靴)는 목이 있는 장화 형태의 신발이고, 혜(鞋)는 목이 짧은 신을 뜻한다.

안학봉(安學奉)의 아버지는 1880년대 합천에서 양반이나 관청으로부터 가죽신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장남으로서 기술을 전수받아 가업을 이어나갔다. 손재주가 좋아 신 만드는 외에 동네 굶은일을 도맡아 하였다. 한때 강원도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삼천포로 피난을 하게 되었다. 전수자가 되는 8째 아들 안해표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신을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집에서 신을 만들어 삼천포(현재 사천시) 선구동 중앙시장에서 판매하였다. 가계가 없어 난장을 펼쳐놓고 팔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사람들이 고무신을 신게 되면서 전통 가죽신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많아지자(6남 3녀) 생계는 더욱 빠듯해졌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삼천포에서 부산 영도로 이전하였다.

안학봉은 1962년 부산에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전수자인 아들 안해표가 당시 고작 12세였으므로 많은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였다. 이로

참고문헌

- 故 신창호 추모전 준비위원, 『申昌鎬 : 1928-2003』 (故 신창호 화백 추모전 기념 화집)(신동문화, 2005)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신창호')
- 「스승의 발자취를 가리며...」 『국제신문』, (2005. 9. 15.)

인해 화해 제작기술의 맥이 끊길 뻔하였다.

아들 안해표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전문한 내용과 도구를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 남포동에서 활동하던 신발 장인인 김은경에게 배운 내용을 응용하여 아버지의 전통



전통신발전수관 내부 모습

화해를 만드는 기술을 재현해 내었다. 안해표가 결혼하면서 사하구 감천동 처가로 생활의 터전을 옮기면서 작업실 역시 감천2동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감천문화마을 내에 있는 화해장 전수관은 그 자리에 2013년 개관한 것이다.

현재 안학봉의 기술은 전수자 안해표를 통해 감천2동 화해장 전수관에서 전해지고 있다. 안해표는 전통신 제작과 연구를 거듭하여 2006년 (사)대한명인문화예술교류회에서 명인 인증을 받고, 2010년 9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으며, 각종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전수관에서는 안해표의 아들과 제자에게 전통신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편의성과 타협하기 보다는 전통 신발의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재현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양원국

(梁元局, 1874~1953)

영남지역 최초로 원불교 교당을 하단에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 한 종교인



양원국 선생은 1874년 동래군 사하면 사하리에서 부친 재명과 모친 차법려화의 5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천성이 근실하고 청렴했으며, 일찍이 동네에서 유교경전을 배웠다. 그 뒤로 불법에 귀의하여 독실하게 불법을 믿었다. 이성주화와 결혼하여 원불교를 믿게 되었고,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막내딸인 양도신을 원불교의 교무로 길러냈다. 하단에 부산 지역 최초의 원불교 교당을 설립하는

데 온 정성을 다했다.

불교의 기초경전인 천수경을 외우면서 마음을 닦고 있는 도중에 부인의 권유로 이웃에 살고 있는 원불교 신자인 장적조를 만나게 된다. 장적조는 성미가 괄괄하고 활달한데다 주변성과 붙임성이 좋아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손금을 봐 준다느니 사주를 봐 준다며 육갑을 집다가 끝내는 불법을 전했다.

원기 15년(1929)과 16년(1930)에 하단지역에 30여명에게 불법을 전했는데 그중에 한명인 임정술은 하단지역에 사는 친언니 임현기화를 이끌었고, 임현기화가 한 동네에 사는 양원국의 부인 이성주화를 찾아와 역시 불법공부를 하자고 이끌었다. 장적조는 이성주화에게 전라도에 산부처님이 계시는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사하이 이야기』 (2011)
- 이현주, 「부산지역 전통공예기술의 양상과 전승 연구」 『항도부산』 31(2015)
- 「'화해장' 안해표 씨 전통 신발 전수관 개관」 『부산일보』 (2013. 1. 30.)
- 전승자 안해표 씨 구술(2017. 9. 21.)

데 그분이 불법을 잘 전하는데 맥의 남편이 이분을 만나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인 양원국에게 일단 장적조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였다. 장적조는 양원국을 만나서 설법을 너무 잘하여 '우째 여자의 입에서 저런 좋은 법설이 나온단 말이고, 대체 저 여자의 선생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런 좋은 말이 나올꼬'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게끔 한다. 그래서 양원국은 장적조의 선생을 만나보기로 한다. 장적조는 부산과 하단지역의 교도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 소태산 대종사를 초청하였다.

드디어 원기 16년(1930) 팔월 한가위가 가까워질 무렵에 소태산 종사와 조송광 회장이 기차로 부산을 방문하였다. 양원국은 추석 하루 전 날,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법문을 듣고 3천년 전 석가세존을 빈 듯 환희洋溢하였다.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덩석 오체투지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 마음에 석가세존을 모신지 43년 만에 드디어 생불님을 뵙습니다" 대종사 답하시기를 "처사님 우리 공부는 옛날하고 근본적으로 판이 다릅니다. 총부에 한번 공부하러 오시지요" 라고 했다.

소태산 종사는 양처사의 범명을 '원국'으로 지어 주었다. 양원국은 소태산 종사의 말대로 총부로 올라가 겨울 공부에 참석하여 석 달간 공부하고 부산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천수경 십만 독을 한 공덕으로 정법 회상을 만나고 종사님을 뵙는가 보다." 이후 양원국은 천수경 독송



1933년 하단지부 원불교인들(원불교 하단교당 소장)

시간에는 '심고' '좌선'을 하였고 여러 인연있는 동지들과 협력하여 먼저 기금을 희사하고 불법회관 만들기에 정성을 쏟았다.

하단과 남부민에 사는 원불교를 믿는

교도들은 양원국을 중심으로 성의껏 400원을 모아서 낙동강 하구 하단에 초가 두 채 8칸을 매입하고 수리를 하여 불법연구회 간판을 붙이고, 총무에 교무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기 17년(1931) 5월에 부산지방 초대 교무로 삼산 김기천이 부임하였



옛 하단 원불교 성적지 복원(원불교 부산울산 교구 소장)

다. 이때 양원국은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20년간을 교당 발전에 헌신하였고, 김기천 교무가 재직 중 원기 20년(1934)에 열반하자 원기 23년(1937) 오종태 교무가 부임하기까지 교무 대역을 맡아 교당관리와 회원들을 이끌었다.

1953년에 사망한 뒤 양씨 선산인 지금의 현 부산여고 자리에 묘지를 정했다가, 부산여고가 세워짐에 따라 김해로 이전하였다. 하단에 새로 신축한 교당에 소태산 대종사와 함께 공간을 마련하여 추모하고 있다.



참고문헌

- 원불교100년기념사업회, 『원불교대사전』 (원불교출판사, 201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양재일

(梁在日, 1863~1944)

사하초등학교(구 사립양정학교) 제5대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학자

1863년(철종 14, 계해) 1월 27일 김해군 명지(鳴旨, 현재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서 태어나서, 1944년(갑신) 4월 10일 별세하였다. 본관은 남원이다. 자는 태규(太奎)다. 호는 처음에는 백원(白園)이었으나, 후에 회원(晦園)으로 바꾸었다. 성균관 박사(博士) 직위를 받았다. 호나 박사의 호칭을 따서 '양박사, 양박사회원, 양박사재일, 양회원, 양회원재일' 등으로 불리거나 표기되었다. 할아버지는 양문언(梁文彦), 아버지는 양공환(梁兢煥)이다. 아버지의 자는 영여(永汝), 호는 전은(田隱)이다. 의관(議官) 직위를 받았다. 어머니는 분성 배씨 배한욱(裴漢旭)의 딸이다. 양재일은 삼 형제 가운데 첫째로 태어났다. 동생은 양재혁(梁在奭), 양재교(梁在敎)다. 아내는 김해 김씨 김서택(金瑞澤)의 딸이다. 양재일은 1909년(융희 3, 기유) 9월 회시(會試) 때 시험에 합격하여 47세 나이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 성균관 사업(司業)이 되었다. 아들은 양경석(梁敬錫), 양태석(梁泰錫)이다. 장남은 내부(內部) 주사를 지냈다.

양재일 집안은 김해군 명지에 살다가, 1888년(고종 25)에 하단 당리(堂里, 현재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로 이주하였다. 1863년생인 양재일은 1923년 승학산(乘鶴山) 아래 당리 집에서 회갑을 맞이하였다. 그는 「회갑일 자서(自序)」라는 글을 남겼다. 이로 보아 명지에서 당리로 이주한 이후에는 계속 당리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문기주(文錡周)가 편찬한 『동래군지』(1937년)에도 김해에서 와서 당리에 산다고 기록되어 있다. 같은 책 음사(蔭仕)조를 보면 「양

재일 남원인 박사」라고 적혀 있다. 성씨조(남원 양씨)에는 아버지, 본인, 동생, 아들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효자조에는 양재일이 수록되어 있다. 아버지 병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먹여 하루를 소생하였다고 한다. 유행(儒行)조에는 “문양공 양성지(梁誠之)의 후예이다. 문장을 일찍 이루었다. 간재전우(田愚)에게 사사하였다. 고종조에 박사가 되었다. 학당을 세워 강학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당리에 있었던 학산재(鶴山齋)가 그가 강학하기 위해 세운 학당이다. 승학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학산’이라 이름하였다.

1904년(광무 8) 7월 23일자 『황성신문』에는 「부항(釜港, 부산항) 신사(紳士) 보조금」이란 광고가 실려 있다. 황성신문사가 재정 상태가 나빠서 신문 간행이 중단될 상태가 되자, 부산항 감리(監理) 오구영(吳龜泳)이 중심이 되어 부산항에 있는 관청의 관로나 지역 주민들에게서 보조금을 모금한 내용이다. 사하 지역에서는 평림동, 당리동, 하단동, 구서평동, 다대동, 감천동, 괴정동, 신평동 등이 동 단위로 참여하였다. 개인별로도 모금에 참여하였는데, 양재일의 아버지 양공환(전 의관)도 참여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일본의 차관 공세는 본격화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일본은 후속 조치로 1905년 12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제정 공포하여, 서울에 통감부, 지방의 주요 지점에 이사청을 두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에서 빌린 고율의 국채(國債)가 해마다 증가하였다. 1907년 한국정부는 1,300만엔이란 거액의 외채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부채를 갚지 못하면 우리 국토가 일본의 영유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1907년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부산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산상무회의소 회원이었다.

국채보상운동에는 부산 지역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사하 지역에서는 1907년 3월 다대리, 1907년 5월 다대리, 당리, 하단리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양재일은 이유명, 이유일 등과 함께 1907년 5월 당리 주민의 국채

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양재일은 「경남애국(보)상회 발문」도 지었다. 이 글은 그의 문집인 『회원선생문집』(약칭 『회원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고 류탁일 교수(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가 지은 『한국문헌학연구』라는 책에 제목만 전한다.

1908년 10명의 동래 지역 유지들이 공동 출자하여, 하단에 사립양정(養正)학교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1년씩 교장을 맡았다. 교장은 초대 이유진, 2대 구해룡(具海龍), 3대 이유명, 4대 서석주(徐錫柱), 5대 양재일(梁在日)이다. 이후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사립양정학교는 1919년 3월 하단공립보통학교로, 1919년 10월 사하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다. 이 학교가 현재 사하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대에서 5대까지 교장을 맡은 서석주, 양재일, 이유명, 이유진, 구해룡 등이 설립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회원선생문집(부산대 도서관 소장)

양재일은 「하단 양정학교 취지서」, 「사립양정학교 설립 서(序)」, 「학무회 취지서」, 「동래부 사하면민 청원서」 「본교 졸업식 축사」 등의 글을 지었다. 이들 글 또한 그의 문집인 『회원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앞의 『한국문헌학연구』라는 책에 제목만 전한다. 양재일이 양정학교 설립과, 설립 후 운영에 관한 글을 직접 지은 것으로 보아, 설립자로서 교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5년 9월

29일자를 보면 전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 경영자인 동래기영회가 학교를 관립(官立)으로 변경할 때, 건축비 12만원을 제공한 것과 함께 학교 부지의 땅 고르기 공사비용을 기부한 지역 유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사하 지역에서는 다대리, 감천리, 괴정리, 장림리, 구서평리, 당리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이때 당리에 거주하는 양재일도 10원을 기부하였다.

양재일은 『회원집』(12권 6책, 목활자본)을 남겼다. 문집의 서문은 오진영(吳震泳), 유영선(柳永善)이 지었다. 권1에 부(賦)와 시, 권2~4에 시, 권5·6에 서(書), 권7에 서(序), 권8에 기(記), 발(跋), 권9·10에 제문(祭文), 권11·12에 잡저(雜著) 등이 수록되어 있다.

양재일은 종형(從兄)인 유학자 양재팔(梁在八)의 문집인 『회산집(晦山集)』, 그리고 문성준(文聲駿)의 문집인 『경암사고(耕巖私稿)』의 발문을 지었다. 『경암사고』에는 양재일의 회갑을 축하하는 시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추호 박필재의 문집 『추호유고』에도 회갑연을 축하하는 시와 다수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양재일의 문집에는 「당리재, 학산재, 감천재, 평림재, 다대재, 윤공단, 물운대, 제석곡, 괴정시회」 등 관련 시와 「물운대 중수기, 학산강당기(鶴山講堂記), 다대재 개학기(多大齋開學記), 다대서숙 흥학기(多大書塾興學記), 다대 사정기(多大射亭記), 유학산기(遊鶴山記), 학산재 상량문, 당리재 상량문, 회산재(晦山齋) 상량문, 학산강당 개기(開基) 축문, 제석곡(골) 기우제 축문, 다성 흥폐설(多城興廢說)」 등 사하 지역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양재일은 학교를 세우고 언론을 일으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육관을 강조하였다. 이런 생각은 그가 지은 「시무책(時務策)」에 잘 나타나 있다. 구미 열강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된 나라이므로, 구미의 신학문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자·맹자의 학문을 근본으로 하면서 서양의 문명을 수용하는 문명개화론을 주장하였다.

산소는 사하구 승학산 아래 신천(新川) 선산에 있었다. 이 자리에 부산여고가 들어오면서, 고향인 명지로 이장되었다고 한다. 양재일은 일제시기에

는 안락서원 직원(直員)을 역임하였다. 그는 사하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였다. 그는 해창 김병훈(金秉勳), 경암 문성준, 추호 박필채(朴苾彩), 춘곡 염휘(廉暉), 지전 이광욱(李光昱), 동화 이상흔(李相昕) 등과 함께 당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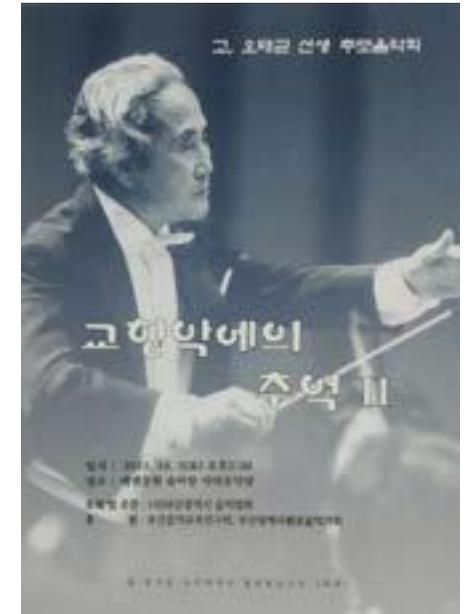
오태균

(吳泰均, 1922~1995)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부산음악발전에 기여한 음악가

오태균(吳泰均)선생은 1922년 4월 27일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오영세(吳寧世)와 어머니 이신덕(李信德)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난 오태균선생은 어릴 적부터 음악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보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33년에 레코드 가게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평생토록 사랑하였다.

1947년경 부산 제2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출하였다가 부산 피난 시절에 그의 재능을 알아본 해군 관계자의 도움으로 일본 동경국제음악학교로 유학을 다녀왔다. 일본 유학 약 3년 동안 바이올린과 지휘법을 배우면서 폭넓게 클래식 세계를 섭렵하였다. 부산으로 돌아온 오태균은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초창기였던 1950년대 부산음악문화의 초석을 다졌다.



오태균 추모음악회 포스터

참고문헌

- 양재일, 『회원선생문집』 (6책)
- 양씨대동보 편찬위원회, 『양씨대동보』 권7(병부공 편)(1979)
- 유탁일, 『한국문화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정경주, 『부산의 고전문학』 『항도부산』 13(1996)
-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20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 (2012)



1953년 부산의 첫 실내악단인 '현악 4중주단'을 창단하고, 1955년에는 미흡한 시설 조건 속에서도 부산대학교 대강당, 남성여자고등학교 강당 등에서 다양한 연주회를 꾸준히 이끌어 갔다. 같은 해 클래식 기타의 중심적 인물인 배영식과 조인트 리사이틀을 남성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1954년에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음악미학과 예술학을 강의하였는데, 당시 부산대학교에는 음악학과가 없었다. 오태균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학생을 모아 1955년 10월 부산에서 규모가 갖추어진 첫 관현악단인 부산대학관현악단을 창설하였다. 그는 부산의 초기 관현악 운동을 주도하였고,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1957년 8월 12일에 부산교향악단이 탄생하였다. 오태균은 다양한 연주회와 함께 제자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지휘자로 왕성한 음악연주활동을 하면서 날카로운 비평 활동과 음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음악 감상회를 열고 해설을 맡기도 하였다. 1962년에는 5년간 이끌어온 부산교향악단이 부산시립교향악단으로 거듭났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약 9년간 활동한 후에 부산여자대학(현 신라대학교) 음악과 교수로서 후진양성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오태균은 대학에서 실내악과 관현악 교육에 열정을 바쳤다. 정기 관현악 연주회를 갖는가 하면 직업 음악인으로 구성된 부산까메라타앙상블을 창단해 부산악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칠 줄 모르고 활동하였다. 故 오태균(吳泰均)선생은 다양한 음악활동(연주자와 지휘자)을 시작으로, 후학양성(음악교육자)과 비평과 음악해설 등으로 부산음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매우 크



오태균 음악비(앞면)



오태균 음악비(뒷면)

다 하겠다.

때는 2013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적절한 시기에 뜻이 통하는 이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 추모식을 거행하는 중이다. 세월의 대부분을 예술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묵묵히 지나온 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를 위해 추모음악회까지 한다는 사실에 겸연쩍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음악회의 장소는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하고 있는 “에텐공원 솔바람 야외음악당” 이고, 추모식은 음악당 옆에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오태균 음악비(吳泰均音樂碑)’이다. 현대 부산의 선구적 음악가였던 오태균을 기리는 이 음악비는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지역 음악계 인사들이 힘을 모아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날의 추모식 진행은 최삼화 회장이 맡았다. 최삼화(2011-2013)는 부산음악협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희끗희끗한 소수의 부산원로음악인들이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추고 있다. 오태균음악비의 측면에는 ‘부지기중 (주)수덕회 에텐원, 건립주최 (사)부산광역시 음악협회 회장 유호석’ 이라 새겨져 있다. 유호석(1999-2004)은 부산음악협회 제9·10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비문 뒤의 추모글에는 오태균 선생이 부산음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윽고 추모식은 막걸리 한잔씩을 비우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야외음악당으로 향했다. 이때 연주에는 부산목관5중주(플루트 장극태, 오보에 권



오태균 추모식 모습

성은, 클라리넷 홍용신, 호른 최준호, 바순 김원식), 소프라노 조윤정, 피아노 유영욱, 바이올린 이라희, 오보에 권성은, 아코디언 송용창이 맡았다. 지금 어느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지그시 눈 감은 채, 바이올린 작품 <서곡과 알레그로(Praeludium and Allegro) 크라이슬러 F. Kreisler(1875-1962)>에 마음을 띄워 보낸다.

오태균의 저술로는 「오페라의 사적 개관(史的概觀)」 『국제신보』 (1957.5.6), 「세기의 거성은 가다」 『국제신보』 (1957.7.14), 「방송 음악의 갈 길」 『국제신보』 (1959.9.29), 「교향악 운동의 방향-시민 생활의 정서 유지를 중심으로」 『부산일보』 (1961.3.6), 「유현한 천사의 노래」 『국제신보』 (1962.5.6), 「이상근 씨의 논평을 박(駁)함」 『국제신보』 (1963.2.2), 「수식 없는 음악 어법」 『부산일보』 (1963.9.21), 「광명에의 찬가」 『국제신보』 (1967.11.25), 「열과 성의의 결정(結晶)」 『국제신보』 (1967.12.2), 「매혹의 서정시」 『부산일보』 (1967.3.16), 「미국의 현대 음악」 『부산일보』 (1968.6.22), 「눈부신 교향악 운동」 『국제신보』 (1968.7.6), 「명맥 이어온 활동」 『부산일보』 (1969.12.19), 「잡음은 공해다[유신 씨의 망언에 답함]」 『국제신보』 (1970.7.7), 「역성미(力性美) 무너뜨린 아쉬움」 『부산일보』 (1971.6.2), 「뿌리내리는 음악 풍토-하루새 부산에 세 음악회가 열렸다」 『부산일보』 (1971.6.30), 「젊음이 과시한 서정미」 『부산일보』 (1974.4.23), 「나이를 넘어선 열연」 『부산일보』 (1974.5.21), 「성숙된 음악관, 악곡의 구석구석까지 관조」 『국제신보』 (1974.5.25), 「명쾌한 가연(佳演)」 『부산일보』 (1974.7.16), 「회심(會心)의 열연」 『부산일보』 (1975.4.8), 「기적의 전주곡들」 『부산일보』 (1975.8.23), 「의욕찬 새 예술관 정립」 『국제신보』 (1976.4.30), 「울면서 부른 애국가」 『국제신보』 (1976.7.8), 「우아하고 유현한 음울」 『국제신보』 (1980.11.28) 등이 있다.

오태균은 1958년 8월에 경남지사로부터 문화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1964년 6월에는 부산시 문화상, 1970년 8월에는 내무부장관 문화 공로상, 1987년 8월에는 문화부장관 문화 공로상, 1990년 5월에는 대통령 수여 국민 포상을 받았다. 2001년 6월 30일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에덴 공원에 오태균 음악비가 세워졌다.

오태균은 1995년 4월 29일 지병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 1녀가 있으며, 묘소는 선산이 있는 대전의 신탄진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 류혜윤, 『부산음악사(1946~1965)』 『음악과 민족』 16(1998)
- 제갈삼, 『초창기 부산 음악사』, 세종출판사(2004)
- 주은경, 『부산 교향악 운동의 선구자, 오태균』 『음악과 민족』 27(2004)
- 제갈삼, 「지역 음악 유산 탐색」 부산 지역의 음악 문화유산(2), 『음악 저널』 (2006. 9.)

유치환

(柳致環, 1908~1967)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1967년 작고하기까지 시인 겸 교육가



청년 유치환(좌)과 중년의 유치환(우)

유치환의 본관은 진주이며, 호는 청마(靑馬)이다. 그는 1908년 7월 14일 유준수(柳俊秀)와 박우수(朴又守) 사이에 8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유치환의 출생지는 거제 시에서는 거제군 둔덕면 방하리 507-5번지라 하고, 통영시에서는 호적부에 적힌 대로 통영군 통영면 동부동 5통 16호

(현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라고 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법정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 출생지가 확연히 가려지지 않고 학계의 후속 연구 대상으로 남겨져 있다. 형은 극작가인 동랑(東廊) 유치진(柳致眞)이다. 1928년 안동 권씨 권수봉(權守奉)의 딸 권재순(權在順)과 혼인하여 슬하에 3녀를 두었다.

유치환은 김소운, 정지용, 조벽암, 서정주, 김춘수, 이운수, 김동리 등 여러 문인들과 교분을 쌓으며 시작 활동을 전개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조시인 이영도(李永道) 여사와 오랜 기간 연정을 나눈 일은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

다. 유치환이 이영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중 200통을 추려 모은 서간집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1967)가 있다.

유치환은 1930년부터 시작(詩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30년에는 통영에서 형 유치진 등과 함께 회람지 『소제부』를 간행했으며, 1931년 『문예월간』 제2호에 시 「정적」을 발표하고 본격 시작 활동을 전개했다. 1937년 통영협성 상업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한 이후 시 동인지 『생리』를 5호까지 부산에서 간행했으며, 1939년에는 처녀시집 『청마시초』를 펴냈다. 1940년 3월 교사직을 사임하고 만주 빈강성(현 하얼빈시) 연수현으로 이주하여 농장 관리 및 정미소를 경영하다 1945년 6월 통영으로 귀향했다. 유치환이 만주시절에 『국민문학』(1942. 3)에 발표한 시 「수(首)」와 『만선일보』에 발표한 글이 친일 시비를 겪고 있기도 하다. 1945년 귀국하여 통영문화협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1946년에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초대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죽순』지에 시를 다수 발표했다. 그가 작고하기까지 남긴 시집이 『생명의 서』(1947)를 비롯하여 10권이나 되며, 수필집으로 『예루살렘의 닭』(1953), 『나는 고독하지 않다』(1963) 등과 자작시 해설집으로 『구름에 그린다』(1960)가 있다.

유치환이 통영, 평양, 만주, 경주, 대구, 부산 등지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동안 부산과 인연을 맺었던 때는 여러 차례이다. 1925년부터 1927년까지 동래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수학했던 기간, 1934년 화신연쇄점 근무 시절, 1948년 일시(1948. 3. 27 ~ 10. 2) 경남고등학교 교사로 있었던 때, 1950년 6·25전쟁으로 피난 온 때, 그리고 1963년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이후 1967년 향년 60세로 작고하기까지 유치환은 부산에서 생활했다.

1967년 2월 13일,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유치환은 예총일로 몇몇 문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귀가 중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서 도로를 건너다 시내버스에 치어 가까운 목숨을 버렸다. 그의 시신은 사하구 하단동 승학산 기슭에 묻혔다. 그곳을 '청마묘'라 했다. 청마묘는 1970년 동아대학교가 대신동에서 하단동으로 이전할 때 이전 부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기장군 정관면 대정공원묘지로 옮겨졌다가, 1997년 선영의 묘역이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지전당골로 다시 이장되었다.



유치환 시비

부산의 후배 문인들과 교육계 인사들은 청마 유치환이 끼친 시의 업적과 교육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청마시비건립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의 낙동강 하류가 잘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4단의 계단식 기단을 쌓은 위

에 시 「깃발」을 새겨 넣은 ‘청마 유치환 시비’를 세웠다. 글씨는 향파(向破) 이주홍(李周洪)이 썼다.

유치환은 시집으로 『청마시초』(1939), 『생명의 서』(1947), 『울릉도』(1948), 『청령 일기』(1949), 『보병과 더불어』(1951), 『청마시집』(1954), 『유치환시선』(1958),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1960), 『미루나무와 남풍』(1964),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1965) 등이 있다. 수필집으로 『예루살렘의 닭』(1953), 『동방의 느티』(1959), 『나는 고독하지 않다』(1963)와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1967)와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1960)가 있다. 유치환 사후 남송우가 『청마유치환전집(전6권)』(2008)을 펴냈다.

유치환은 제1회 청년문학가협회 시인상(1947), 서울특별시 문화상(1950), 제1회 경상북도 문화상(1956), 아시아재단 자유문화상(1958), 대한민국예술헌상(1962), 부산시 문화상(문학부문, 1964)을 수상하였다. 1974년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 내에 처음 ‘청마유치환시비’가 세워진 이후, 부산 용두산공원, 부산진역 앞 수정가로공원, 통영 남망산조각공원 등과 유치환이 거친 경주, 통영, 부산 등지의 여러 학교에 시비가 세워졌다. 청마 유치환

의 문학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제시에서는 2000년부터 동량청마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둔덕면 산방산 자락에 생가를 복원하고 청마기념관(2008년 개관)을 짓는 한편 청마문학연구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통영시에서도 2000년에 통영시 정량동 망일봉 기슭에 청마문학관을 짓는 한편 청마문학상(2015년부터 통영시문학상에 통합됨)을 제정하여 매년 10월에 시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학동, 『문학기행, 시인의 고향』(새문사, 2000)
- 오세영, 『유치환』(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 남송우 편, 『청마유치환전집』(전6권)(국학자료원, 2008)

윤필호

(?~?)

다대초등학교의 전신인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초대 교장

현재의 다대초등학교는 다대포사립실용학교로서 개교하였다. 다대포사립실용학교는 한경범이 주체가 되어 1902년(고종 39)에 창립하고 1904년(고종 41) 4월 1일에 개교하였다. 설립자 한경범(1826~1913)은 청주 한씨 충성공파 출신으로 조선후기의 문관이었다.



사립실용학교로 사용된 옛 다대진객사

당시 학교의 위치는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 다대동 1140-1번지에 있었다. 이 위치는 과거 다대진에 해당하며, 학교 본관이 세워졌던 공간은 현재 물운대로 옮겨 복원된 다대진 객사가 있던 곳이라고 한다. 침사청 건물 역시 교

실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다대진이 그 기능을 잃은 이후 학교로 전용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연혁지』에 실린 창립 취지를 보면, “다대포는 역사 이래 반도의 가장자리 동쪽 위에 위치한 중요 지역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침사는 무반 3품의 이력

으로 감목관을 겸임하여 군인으로서 민정을 다스렸던 관계로 권학답(勸學畵) 30두지와 권무답(勸武畵) 30두 5도를 관내에 설치 운영하여 학문을 권장하였으므로 그간 문관·수재와 무관들이 계속 배출되어 왔으나, 갑오년과 을미년 두 해에 걸쳐 시국이 변하여 풍조가 급격히 바뀌는 세상의 추이에 따라 옛날 풍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시대에 맞추고자 하는 기류가 차츰 강렬해지므로 학교를 세우고자 함도 이에 따르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 학교의 명칭인 실용은 ‘실지응용(實地應用)’을 줄인 것이다. 윤필호가 초대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교원은 문학박사 한홍수, 일본어 교사 야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05년 윤필호가 사임하고, 이어 공동설립자인 이선홍(2대), 김원배(3대), 김치호(4대) 등이 교장을 역임했다.

다대포사립실용학교는 1909년(융 희 3년) 부산부의 인가를 받았다. 1926년에는 독립운동가 최기성이 실무교장을 맡으며 『다대팔경가(多大八景歌)』를 짓기도 했다. 1936~37년 사이에는 한옥이었던 학교 교사를 양옥으로 증·개축하였다.



현재의 다대초등학교

1939년 5월 1일에 교장 한오동이 다대포실용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41년 2월 28일 국민학교령이 반포되고, 1943년 4월 1일에 설립 인가를 받아 5월 22일에 다대포공립국민학교가 개교되었다. 이후 실용학교는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1945년 4월 1일 다대포국민학교에 합병되었는데, 이러한 실용학교는 일제시기 가장 오래 유지한 사립학교였다.

다대포국민학교는 1953년 8월 6일 다대국민학교로 개칭하였으며 1966년 3월 1일에 장림국민학교를, 1990년 3월 1일에 다선국민학교를 분리하였다.

1996년 3월 1일에 다대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그해 9월 1일에 중현초등학교를, 1997년 3월 1일에 응봉초등학교를 분리하였다. 1998년에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2007년 3월 1일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기존에 교사로 사용하였던 공간은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유명

(李裕明, 1845~?)

사하초등학교(구 사립양정학교)의 제3대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

이유명은 1845년(헌종 11, 을사)에 태어났다. 자(字)는 처명(處明), 본관은 경주다. 아버지는 이정화(李禎華), 할아버지는 이종호(李種浩)다. 이유명, 이유진(李裕眞), 이유일(李裕日) 삼형제 가운데 첫째로 태어났다. 1907년 5월 당시 이유명, 동생 이유일은 당리(堂里)에 살았다. 이유명은 1904년 10월 동래기영회(耆英會, 기영계)에 가입하였다.

문기주(文錡周)가 편찬한 『동래군지』(1937년)의 무관(武官)조에, 아버지 이정화는 동추(同樞, 동지중추부사), 이유명은 경무관(警務官)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유명은 1899년 8월 10일 동래항

(東萊港) 경무관에 임명되었다. 음사(蔭仕)조에는 동생 이유진은 도사(都事), 이유일은 참봉(參奉)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효자조에는 삼형제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들 형제는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어머니 병이 위독하여 이미 죽음에 이르렀는데, 세 명이 차례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반



『동래군지』 효자조의 이유명

참고문헌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다대초등학교' , '다대포실용학교' ,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편, 『부산교육사』 (1986)
- 다대초등학교 총동창회 편, 『다대 백년사』 (20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 (2012)

나절을 소생하였다. 대사성 심구택(沈九澤)이 「일문삼효기(一門三孝記, 한 집 안에 세 명의 효자가 나온 것을 기리는 글)」, 판서 이재현(李載現)이 비문을 지었다.

1904년(광무 8) 7월 23일자 『황성신문』에는 「부항(釜港, 부산항) 신사(紳士) 보조금」이란 광고가 실려 있다. 황성신문사가 재정 상태가 나빠서 신문 간행이 중단될 상태가 되자, 부산항 감리(監理) 오구영(吳龜泳)이 중심이 되어 부산항에 있는 관청의 관료나 지역 주민들에게서 보조금을 모금한 내용이다. 사하 지역에서는 평림동, 당리동, 하단동, 구서평동, 대대동, 감천동, 괴정동, 신평동 등이 동 단위로 참여하였다. 개인별로도 모금에 참여하였는데, 이유명(전 경무관)도 참여하였다.

1906년(광무 10) 11월 17일 면암 최익현(崔益鉉) 선생이 대마도에서 별세하셨다. 11월 20일 최익현 선생의 운구가 대마도를 출발하여 21일 초량나루(草梁津)에 도착한 후, 상무사(商務社)에 안치되었다. 운구가 안치된 상무사는 부산항 상무회의소를 일컫는다. 당시 대표는 이유명이고 사무장은 김영규(金永圭)였다. 상무사 문에는 ‘면암 최선생 호상소(勉菴崔先生護喪所)’라고 크게 써 걸었다. 상무사 회원들은 각각 업무를 나누었다. 유진각(兪鎭珪)·이유명·권순도(權順度)는 호상, 박필채(朴苾彩)·송재석(宋在錫)은 집례, 이응덕(李應憲)·장우석(張禹錫)·안순극(安舜克)은 축(祝), 김교민(金教旻)·손영두(孫永斗)·박봉석(朴鳳錫)은 사서(司書), 김영규·김도익(金道翊)·정시원(鄭時源)은 사화(司貨), 윤명규(尹明奎)·권상희(權爽熙)는 조빈(造殯)을 맡았다. 각각 최익현 선생의 장례를 위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이유명은 부산항 상무회의소 대표로서 호상을 맡으면서 최익현 선생의 장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산항에는 1900년대 초까지 노동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1905년(광무 5) 6월에 부산항 전(前) 경무관인 이유명이 중심이 되어 영신사(永信社, 永信組)라는 노동회사를 설립하였다. 항구의 물자 하역에 필요한 인부를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인 회사다. 1895년 지방제도와 군사제도의 개혁으로 동래 독진(獨鎭)은 물론, 각 영진(營鎭)도 해체되었다. 1881년(고종 18) 설치되었던 절

영도진도 이때 폐지되었다. 영신사는 옛 절영도진의 관청 건물과 목장터를 활용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사장은 이유명, 총무는 추월오(秋月梧)였다.

그런데 이유명이 일본인 도로가와 나오기(泥川正直)에게 사장직을 위임하자, 부산항 역부들이 회의를 열어 추월오를 사장, 강문보(姜文輔)를 총부장에 임명하였다. 영신사 사장이 이유명에서 추월오로 바뀐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영신사 실권(實權)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매일신보』를 보면 추월오가 이유명의 사장직을 빼앗고 회사를 문란하게 만들어, 영신사가 장차 망하게 되었다고 부산항 역부(役夫)들이 광고를 내었다. 이 광고에 대하여 부산항 역부 십장들은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없고, 이것은 이유명이 꾸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영신사 사장직을 둘러싸고 이유명과 추월오와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유명은 동래항(부산항) 경무관을 역임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영신사라는 노동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일본의 차관 공세는 본격화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일본은 후속 조치로 1905년 12월 「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제정 공포하여, 서울에 통감부, 지방의 주요 지점에 이사청을 두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에서 빌린 고율의 국채(國債)가 해마다 증가하였다. 1907년 한국정부는 1,300만 엔(円)이란 거액의 외채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부채를 갚지 못하면 우리 국토가 일본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1907년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부산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산상무회의소 회원이었다. 부산항상무회의소 대표를 역임하였고, 당시 회원이었던 이유명도 1907년 3월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907년 5월에도 동생 이유일과 함께 당리 주민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1908년 10명의 부산 지역 유지들이 공동 출자하여, 하단에 사립양정(養正) 학교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1년씩 교장을 맡았다. 교장은 초대 이유진, 2대 구해룡(具海龍), 3대 이유명, 4대 서석주(徐錫柱), 5대 양재일(梁在日)이다. 이

후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사립양정학교는 1919년 3월 하단공립보통학교로, 1919년 10월 사하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다. 이 학교가 현재 사하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대에서 5대까지 교장을 맡은 서석주(徐錫柱), 양재일, 이유명, 이유진, 구해룡 등이 설립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이유진과 이유명 형제가 각각 제1대, 제3대 교장을 역임한 것이 주목된다.

이유진

(李裕眞, ?~?)

사하초등학교의 전신인 사립양정학교의 초대 교장

이유진은 이유명의 동생으로 아버지는 이정화(李禎華), 할아버지는 이종호(李種浩)다. 문기주(文錡周)가 편찬한 『동래군지』(1937년)의 음사(蔭仕)조에는 이유진은 도사(都事)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효자조에는 이유명, 이유진, 이유일 삼형제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들 형제는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어머니 병이 위독하여 이미 죽음에 이르렀는데, 세 명이 차례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반나절을 소생하였다. 대사성 심구택(沈九澤)이 「일문삼효기(一門三孝記, 한 집안에 세 명의 효자가 나온 것을 기리는 글)」, 판서 이재현(李載現)이 비문을 지었다.

이유진은 사하초등학교의 전신인 사립양정학교(私立養正學校)를 설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사립양정학교는 1908년(순종 2)에 10명의 설립자에 의해 하단동에서 설립되었다. 연혁에 따르면 1대 이유진, 2대 구해룡(具海龍), 3대 이유명(李裕明), 4대 서석주(徐錫柱), 5대 양재일(梁在日) 등이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들은 모두 학교 설립자이며 각 임기가 1년이었기 때문에, 이유진을 포함한 10인의 설립자들이 1년마다 돌아가며 교장직을 맡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사립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설립자가 돌아가며 교장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사립학교 체제로 11년간 졸업생 37명을 배출하였다. 1919년 3월 공립화하여 하단공립보통학교로 이관되었다. 6대 교장으로 일본인 마쓰야마(松山恒

참고문헌

- 문기주, 『동래군지』(1937)(김동철 외, 『동래사료』 3(여강출판사, 1989)에 수록)
- 박용숙·김동철, 『개항기의 부산』 『부산시사』 1(부산직할시, 1989)
- 안용식, 『대한제국관료사연구』(1)(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4)
- 추월영, 『동래기영회 150년사』(동래기영회, 1996)
-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하초등학교 100년사』(20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2012)

| 김동철 |

五郎)가 취임하였는데, 그는 28년 10월 사망 때까지 교장직에 있었다. 소위 문화정치기(1920년대) 조선인이 건립한 사립학교가 공립화한 사례가 많은데, 제국주의 교육을 통해 조선인을 신민화하고자 한 일제 교육정책의 영향이다. 10월에 사하공립보통학교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고, 11월에는 괴정동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새 교사에는 교실 4개와 사무실, 변소, 교장 사택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1회 졸업생(1920년) 사진(『사하초등학교 100년사』)

1938년 4월 1일 사하공립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로 개칭하였다. 심상소학교는 보통학교의 일본 국내식 명칭이다. 1941년 국민학교령이 내려지면서 1943년 4월 1일에 사하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해방 후까지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

1945년 12월 28일에 감천분교와 하단분교를 설치하였으며, 1966년 3월 1일에 낙동국민학교를, 1967년 10월 1일에 신청국민학교를, 1968년 10월 2일에 신평국민학교를, 1970년 3월 1일에 괴정국민학교를, 1983년 9월 17일에 사남국민학교를 분리하였다.

1995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고, 이에 1996년 3월 1일에 사하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정수봉

(鄭樹鳳, 1928~2001)

동아대학교의 제2~4대 총장. 사하 승학캠퍼스 조성에 기여한 교육행정가

정수봉은 1928년 4월 14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동아대학교 설립자인 정재환, 어머니는 창녕 조씨(昌寧曹氏) 조예천(曹譽闡)의 장녀이다. 정수봉의 호는 한림이다.

1946년에 개교한 동아대학교의 제2~4대 총장을 1975년 6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역임하였다. 또한 동아학숙 이사장·명예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 교육·체육 및 전통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진일보 시켰다.



그는 경남중·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내무부 관료에 이어 1961년 동아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다가 1975년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한국대학유도연맹 회장, 범민족올림픽추진 부산시협의회 회장, 부산시교육회 회장,



참고문헌

-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보통학교' , '사하초등학교')
-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편, 『부산교육사』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1987)
-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사하초등학교 100년사』, (200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산시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체육·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양정모·조재기·하형주 등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맨을 적극 지원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동아대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1985년에는 대만문화대학에서 학술·문화교류와 민간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수봉은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며, 교내 석당박물관이 전국 최고의 대학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는 부친 정재환을 이어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동시에, 합천댐 수몰지구와 고성 송학동고분 발굴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정수봉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학발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학규모·체제의 확대 개편, 연구활동과 학술교류의 활성화, 학생활동과 학생복지의 확장 등 여러 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견인하였다. 특히 구덕캠퍼스(서구 동대신동)를 의과대학·동아의료원 등 메디컬센터로 개편하는 동시에, 사하구 하단의 승학산 기슭에 승학캠퍼스를 신축·확충함으로써 '웅비 동아'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승학캠퍼스는 1973~74년 정재환 총장 재임시기부터 부지 정지작업에 착공하였다.

이보다 앞서 사하구에는 동아대학교 농과대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동아대학교에는 1954년 농학부가 설치되었는데, 1959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농과대학이 출범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 괴정동 619의 2번지 일대에 농과대학의 신축교사가 준공되었다. 이를 계기로 동아대학교 농과대학은 부산·경남지역 농업교육과 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공간으로서 발전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농업 근대화와 과학적 영농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구를 담당할 지역적 거점공간이 사하지역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다가 정수봉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1978년부터 공과대학 신축건물의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이듬해 공과대 1·2호관이 완공되고 공대 일부를 구덕캠퍼스에서 승학캠퍼스로 이전하였다. 그 후 1981~85년에는 이과대학·농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동아대학교 홈페이지)

과대학·도서관·대운동장, 교수회관·체육관과 대학본부·문과대학 건물 및 학생회관 등도 준공하여 1985년 8월 대학본부를 서구 동대신동에서 사하구 하단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승학캠퍼스(사하구 하단동) 중심시대를 열었다. 1987~89년에도 학군단·경영대학·공대4호관 및 자연대학 기초과학실험실 건물을 준공하여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서부산 지역의 핵심적인 대학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는 사하구 다대동에 종합운동장을 조성하여 다대지역까지 대학문화를 확장시켜 나갔다. 이러한 승학캠퍼스 시대의 전개는 사하구 지역의 교육·문화와 기반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다.

정수봉은 동아대 총장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2동 840] 승학캠퍼스에서 활동하다가 2001년 11월 13일 서대신동 3가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그의 묘소는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좌이산의

기슭에 있다.

정수봉은 국민훈장모란장과 세계평화대상 및 대한민국 체육상(공로부문) 등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 10월 문화의 날에는 우리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추서 받기도 하였다.

동아대학교에는 초대 총장 정재환, 제2~4대 총장 정수봉의 호를 딴 석당기념관·석당학술원·석당박물관·석당미술관 및 한림생활관·한림도서관 등이 있다.

조철제

(趙哲濟, 1895~1958)

태극도의 창시자이며 감천동에 대규모 신앙촌 조성

조철제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조부와 부친 모두 독립운동에 종사하던 집안에 태어났다. 대를 이어 항일 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조철제 또한 15세 때 만주 심양으로 가서 구국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는 김혁으로부터 강증산(증산도 창시자 강일순) 이야기를 듣고 도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입산수도(入山修道) 중인 23세 때 강증산의 '태극도리'를 읽고 개안 도통하였다. 그리고는 1918년에 전북 태인면 태흥리에서 '무극도'를 창도하고, 증산 사상을 포교하여 많은 신도를 모았다. 그 후로 3년 동안 120여간의 교당을 짓고 10만의 신도를 갖는 대교단을 이루었는데, 세상에서는 보천교의 차경석을 '차천자'라고 하듯이 조철제를 '조천자'라고 불렀다. '진업단'이라는 신도단체를 만들어 충청남도 안면도와 원산도에서 간척공사를 벌여 661만 평방미터(20만평)의 농경지를 확보하고, 원산도에서는 대규모 염전을 만들었다. 1930년도에는 평안북도 무산의 국유림을 채벌하는데 신도 400여명을 보냈으며, 1932년에는 전북완주의 사금광을 개발하고, 충북 음성군의 무극광산도 채굴했다. 이처럼 조철제는 황무지 개척, 수리사업 및 산업장려로 빈민들을 구제하고 자신의 신도로 만드는 포교활동도 함께 하였다.

그러던 1935년 12월초 조선총독이 전라북도 지사 고원훈을 보내어 친서를 전달하고 내선일체와 황민화정책에 동조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철제는 '나의 도는 도인을 해산시키고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한지 이미 오래니

참고문헌

- 「석당선생묘비기(石堂先生墓碑記)」 (정중환, 1978)
- 「한림선생묘비명(漢林先生墓碑銘)」 (심봉근, 200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 (2012)
- 「동아대학교학보」
- 「동아일보」 (각 연도 '정수봉' 기사)
- 「남해신문」 (각 연도 '정수봉' 기사)



1960년대 태극도 대강전과 감천2동 마을(태극도 홈페이지)

다시는 도에 대한 일을 거론하지 말라'며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얼마 후인 1936년에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그의 교단이 몰수되는 큰 위기에 봉착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나는 입산수도 할 것이요 그대들은 각자 귀가하여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라'고 하며 신도들을 귀가시키면서 자신을 믿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후 다시 입산수도 한지 10년이 되는 1945년에 조철제는 과거의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 오늘은 그대들에게 태극의 진리를 도상으로 설명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도의 연원이며 우주 전체의 생성 발전하는 대원리이니라' 말하면서 태극과 팔괘의 도형으로 만든 도기(道旗)를 제시하고 교리를 설명하였고, 증산도와 관계가 '무극과 태극'의 관계라고 하였다.

조철제는 해방 이후 다시 종교 활동을 시작하여 1948년에 본부를 부산 보수동으로 옮겼고, 교단의 이름을 '태극도'로 변경한다. 1955년에는 다시 본부를 감천동으로 옮기고, 3000세대의 신도를 집단 이주시켜서 대규모 신앙촌을 건립했다. 여



조철제 묘소

기가 반달고개 주변인데 이곳이 중심이 되어 1958년에 감천2동이 만들어졌다. 조철제는 여기서 활동하다가 1958년에 사망했다. 그의 사후 교단은 신·구파로 분열된다. 구파는 그의 아들 조영래를 중심으로 혁신 작업을 벌이다가 이갑성에게로 이어졌고, 신파는 박한경이 신도를 거느리고 이탈하여 서울에 대순진리회를 세웠다. 지금은 123개의 교당과 18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다.

조철제의 사상은 증산 사상에 기초를 두고 전개된다. 주된 내용은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真境)을 종지(宗旨)로 하고,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를 4강령(綱領)으로, 성(誠)·경(敬)·신(信)을 3요체(要諦)로 삼았다.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세계개벽(世界開闢)을 목적으로 신도들을 지도하였다.

조철제는 "나는 가노니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범망과 사업을 한 치도 어김없이 잘 행하여 나아가되 일심으로 믿고 닦아서 다시 만나자"라는 유언을 남기고 6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천마산 서쪽 기슭에 안장하고 묘소 이름은 정산릉으로 하였다. 이곳에서는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현재의 태극도 대강전 모습



참고문헌

- 태극도편찬원 편, 『태극도주 조정산 전기』 (태극도 출판부, 199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철제')

최기성

(崔基星, ?~?)

일제강점기인 1929년 다대포사립실용학교(현 다대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동안 「다대팔경가」(1929)를 작사, 작곡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최기성에 대해서는 지금껏 가계는 물론 생몰연도와 출생지역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가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몸담고 있던 3·1운동 당시 경성에서 장종건(張棕鍵, 1885~1966) 등과 협의하여 『독립신문』을 비밀 출판하여 몰래 배포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사실 정도가 알려져 있다. 그의 행적은 다음의 재판 기록에서 나타난다.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 재판〉 (1919년)

장종건은 그 후 이종린(李鍾麟)이 체포되자 스스로 그 조선독립신문 제5호 이하의 발간을 인수, 이를 계속하여 저작하고 관헌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피고 최치환·임승옥 기타 최기성(崔基星)·강태두(姜泰斗) 등과 인쇄할 것을 공모하고 스스로 최기성과 함께 그 발행을 담당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를 반포케 하여 치안을 방해하려고 기도했다. 동년 3월 13일 경 조선독립신문 제5호(증 233호)를 약 700매 인쇄하고 피고 장종건은 최기성과 함께 발행을 담당하여 최기성으로 하여금 타인을 시켜 그 즙음 이를 경성부내의 조선인의 각 집에 배부시켜 반포 발행하고 많은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했다. 동월 15, 6일경 조선독립신문 제6호(증 제236호)를 약 900매 인쇄하였으며 피고 장종건은 최기성과 함께 그 발행을 담당하고 최기성으로 하여금 타인을 사역하여 그 즙음 이를 경성부 내의 조선인 각 집에 반포하여 많은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했다. 조선독립신문 제7호를 수백 매 인쇄하고 최기성은 그 발행을 담당하여 그 즙음 이를 동 부내의 조선인 민가의 각 집에 반포함으로써 많은 군중을 선동하여 치안을 방해했다.

유병륜은 전기 조선독립신문 제9호 및 그 부록은 국헌 문란의 기사가 실려있는 비밀 출판물로서 장종건·최기성 등이 이를 반포하여 치안을 해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반포 죄를 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기도하여 대정 8년 3월 25일 경 남정훈이 위 의 신문지약 2000매를 가마니에 넣어 피고 방에 가지고 와서 최기성에게 교부할 것을 의뢰한 바 최기성이 부재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맡아두고 그 후 최기성이 속소로 돌아오자 동일 이를 피고 방에서 최기성에게 교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타인을 시켜 즉시 이를 경성부 내 각 민가에 발행 반포시켜 그 발행을 방조하였다.

비록 단편적인 사항이지만, 위의 기록을 통해 최기성이 발행책임자 배포책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참고하면, 최기성은 적어도 1900년 이전에 평양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기성이 사하구와 인연을 맺은 때는 1929년 다대포사립실용학교(현 다대초등학교) 제6대 교장으로 부임해 왔을 때인데, 그가 부임 기간에 「다대팔경가(多大八景歌)」를 작사 작곡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919년 3·1운동 당시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 있던 최기성은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여했다. 그리고 천도교 월보 편찬인인 이종린(李鍾麟)으로부터 장종건(張棕鍵, 1895~1966)이 건네받은 『독립신문』을 최치환(崔致煥), 강태두(姜泰斗), 임승옥(林承玉) 등과 협의하여 비밀리에 출판하고, 이를 몰래 배포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는 기록은 없고, 일본 경찰에 쫓겨 전국의 벽지를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기성이 사하구와 인연을 맺은 때는 1929년이다. 1904년 4월 개교한 다대포사립실용학교에 제6대 교장으로 부임한 것이 이때였다. 그런데 최기성이 다대포사립실용학교에 교장으로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대포사립실용학교는 1939년 5월 다대포실용학교로 개명되었다가 그 후 1943년 5월에 다대포공립초등학교, 1953년 8월에 다대초등학교, 1996년 3월에 다대초등학교로 여러 차례 교명이 바뀌는 과정을 겪었는데, 현 다대초

등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기성 교장이 재임했던 기간이 1929년에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다대포사립실용학교에서는 1929년 한 해 동안 재임했던 교장이 3명이나 되었다. 1913년부터 제5대 교장으로 있던 한용화가 1929년에 사임했으며, 제6대 교장으로 이윤영이 부임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그만 두고, 기수가 같은 제6대 교장으로 최기성이 부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제6대 교장으로 이윤영과 최기성 둘이 있었던 점도 특이하고, 둘의 재임 기간이 모두 1929년에 한정되어 있는 점도 특별하다. 1929년 한 해 사이에, 제5대 교장 한용화에 이어 제6대 교장 이윤영이 부임했으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로 사임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윤영에 이어 부임한 최기성도 1929년을 넘기지 못하고 교장직을 그만 둔 것이다. 일설에는 “1929년 4월 3일 홀연히 다대포를 떠났다”고 한다. 이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다대포실용학교 교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립실용학교 제19회 졸업기념 사진. 최기성(앞줄 중앙)

최기성이 교장직을 사임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그가 1919년 3·1운동 참가 등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사정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최기성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혐의와 관련하여 교장직에서 물러났거나 아니면 교장

직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만 할 따름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기성이 다대초등학교의 전신인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다는 점도 사하구와의 인연을 말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다대팔경가(多

大八景歌)」를 작사, 작곡했다는 점이다.

「다대팔경가」는 중국 호남성의 동정호 남쪽에 있는 소상지방의 8경을 노래한 「소상팔경가(瀟湘八景歌)」(조선시대 작가, 연대 미상의 단가)를 본떠 지은 가사이다. 모두 8절로 된 이 가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대팔경가〉

- 제1경 아미완월(峨嵋玩月) 아미산에 뜬 달을 감상하다
- 제2경 야망어창(夜望漁唱) 야망대에서 듣는 멀치잡이 후리소리
- 제3경 두송만취(頭松晚翠) 해질 무렵 두송산의 비취빛 하늘
- 제4경 남림숙하(南林宿霞) 남림, 즉 솔섬을 휘감은 바다안개
- 제5경 팔봉반조(八峯返照) 팔봉산에 비친 저녁노을
- 제6경 화손낙조(花孫落照) 화손대의 저녁놀
- 제7경 삼도귀봉(三島歸帆) 목도, 서도, 귀도의 삼도를 돌아오는 돛단배
- 제8경 물운관해(沒雲觀海) 물운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다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실무교장으로 있던 최기성은 어촌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 학교를 어렵게 다니는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대포의 도로와 학교 주변에 벚나무를 심게 하고, 학생들이 다대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위 「다대팔경가」를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대팔경가」의 노랫말 앞에 “산 높고 물 맑은 금수강산 무궁화동산 남쪽관문, 다대포 옛 성터의 푸르게 깬 이끼가 역사를 말해주어 이 팔경가를 짓노라”라고 했다. 다대포의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대포의 옛 역사를 되새기도록 하겠다는 뜻이 드러난다. 실제로 「다대팔경가」는 다대포의 아름다운 바다 전경과 멀치잡이 후리소리, 저녁노을에 물든 풍경, 바다안개에 잠긴 풍경 등에 관한 감회를 서정적으로 노래하는 한편 임진왜란 때 부산포해전에서 순절한 정운(鄭運: 1543~1591) 장군을 기리는 뜻을 담고 있다.

최기성이 지은 이 「다대팔경가」는 각절 가사가 4행씩 구성되어 있는데, 2/4박자로 리듬이 단순한 동요 형식의 곡이었다. 이후 「다대팔경가」는 2003년 9월 22일 해군교육사 군악대장으로 있던 준위 공윤팔이 4/4박자로 장엄한 느낌이 나도록 편곡하여 오늘날 부르는 「다대팔경가」를 만들었다. 이 곡은 정운 장군을 기리는 다대포 향사에서 산신제를 지낸 다음에 연주되고 있다.

최기성의 행적에 관한 기록으로, 해방 후에 월남한 청년·학생 중심의 극우 반공조직인 백의사(白衣社)에 단원으로 참가하여 김정의, 이희두 등과 함께 1946년 3월 강양욱 목사 테러 등의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앞으로 최기성의 독립운동 등에 관한 자료 발굴과 그에 따른 연구가 과제로 남겨져 있다.

최동원

(崔東原, 1958~2011)

사하구에서 성장한 부산을 대표하는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



최동원은 1958년 부산에서 출생하였다. 어린시절 최동원이 살던 집은 사하구 괴정동 괴정삼거리 근처였다. 아버지 최윤식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고 어머니 김정자는 교사였다.

최동원은 대신동 동신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인 어머니의 전근과 함께 괴정동 사하초등학교로 전학했다. 당시 조부도 사하초등학교의 교장을 하고 있었다. 최동원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45kg이 넘는 정도 몸집이 비대한 편이었다. 사하초등학교에 다녔던 최동원은 어머니의 권유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살을 빼기 위해 축구부에 입단하였다. 학교 성적도 운동부임을 감안하면 우수한 편이었으며, 축구부 생활에도 빨리 적응했다. 하지만 최동원은 5학년이 되던 무렵 점차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 3·1운동사(상)」(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 3·1운동 재판 기록」(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장종건')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list.asp)
- 「다대팔경가」, 네이버 블로그 '정연이네 집' (<http://blog.naver.com/kjyoun24/60051966191>)



야구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마침 어머니가 구덕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자, 최동원 역시 구덕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그곳 야구부에 입단하게 되었다.

구덕초등학교 야구부에 입단 후, 한 달 뒤에 감독이 최동원이 야구에 재능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칭찬을 하였다. 가족회의에서 그가 야구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버지는 괴정에 있는 집 근처에 120평 정도의 밭을 사서 개인 연습장을 만들어주었다. 또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연습장에 600개의 전구를 달아 야간까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으로 일본 프로야구를 보고 일본의 야구이론서를 입수해 쌓은 지식을 통해 아들을 훈련시켰다.

이후 최동원은 토성중학교(현재의 경남중학교)로 진학한 이후 매일같이 이 연습장에서 훈련을 하였다.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루에 공을 3~400개까지 던졌고, 온 가족이 그의 훈련을 도왔다. 아버지는 역동적인 투구 폼을 위해 타이어를 몸에 튜브처럼 걸고 중형차에 연결하여 끌고 다니는 하체단련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당시의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 살던 이웃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후 경남고등학교로 진학하여 2학년이던 1975년에는 17이닝 노히트노런을, 1976년에는 한 경기 20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졸업 이후 연세대로 진학하여 야구인생을 이어나갔다. 국가대표로도 꾸준히 출전했는데, 연속경기 출장을 밥 먹듯 하였다. 1981년 대륙간컵에서 캐나다를 상대로 9회 2아웃까지 퍼펙트 경기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진출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병역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고 고향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실업팀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하게 되었다.

그는 입단 첫해부터 MVP와 다승왕, 최우수신인상을 수상하였다. 학생시절부터 그는 팀이 필요하다면 희생에 가까운 투구를 소화했는데, 1984년 삼성과의 한국시리즈(7전 4승제)에서는 5경기에 등판하여 그 중 4번을 완투하며 4승을 올려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당시 선수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

음을 감안하더라도 희생에 가까운 기록이었다. 이 외에도 데뷔 후 5년간 매년 평균 41경기, 250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16회 이상 완투하면서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였다. 그의 별명이 '무쇠팔'인 이유는 이러한 기록이 말해준다.

1987년 5월 16일에는 라이벌 팀인 해태 타이거즈의 에이스 선동열과 세 번째 맞대결을 하였는데, 두 선수 모두 연장 15회까지 던졌으나 2:2 무승부로 끝이 났다. 이 경기는 후에 영화 「퍼펙트 게임」으로 각색되어 2011년에 개봉되었다.

1988년 프로야구선수회 결성을 주도하다가 실패하고 삼성 라이온즈의 김시진과 맞트레이드 되었다. 젊은 시절 어깨를 희생한 나머지 삼성 시절의 성적은 전만 못했다. 1990년에 통산8시즌 248게임 103승 74패 26세이브, 평균 자책점 2.46 1019탈삼진의 성적을 남기고 은퇴했다. 짧지만 화려한 프로 선수생활 중에도 동료선수의 권익과 주변의 가난한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었다.

이후 최동원은 한화 이글스의 코치, 방송해설가, KBO 경기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고향팀 롯데 자이언츠에서 지도자 생활을 원했으나 선수협 파동 이후 롯데와의 관계는 꺾여버렸다.

드디어 2009년 7월 4일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대 SK 경기가 있던 날, 최동원이 시구자로 나섰다. 푸른 유니폼에 등번호 11번을 달고 사직 마운드에 선 최동원을 보면서 팬들은 감격에 겨워했고 최동원이 롯데 감독을 맡게 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남몰래 투병해온 대장암으로 그의 몸은 회복이 힘든





최동원 동상(부산 사직야구장 내)

지경에 이르렀다. 2011년 올스타전을 앞두고 벌어진 경남고 대 군산상고 경기에서 심하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여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 때에도 자신의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운동을 쉬니 살이 빠졌다”고 말하며 팬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결국 2011년 9월 14일 대장암이 악화되면서 54세로 별세하였다. 최동원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자유로 청아공원에 있다. 9월 30일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롯데 시절 등번호 11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였다.

2009년 그는 부산 사직구장에 자신이 수상했던 각종 트로피·메달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니폼·기념구·글러브·모자 등을 기증했다. 그 물건들은 오늘도 사직구장 내의 자이언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2013년 9월에는 사직야구장 내에 그를 추모하는 동상이 세워졌다. 또 기장군 칠암향에는 야구등대와 미니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2014년에 ‘전국명문고 야구 열전’ MVP에게 수여하는 ‘최동원 선수상’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고인이 된 그는, 그해 9월에 부산시로부터 부산 야구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 54회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참고문헌

- 정범준, 『거인의 추억』 (실크캐슬, 2008)
- 「시골의사 박경철의 총횡무진 인터뷰 최동원 편」 『중앙일보』 (2008. 7. 4.)
- 「불세출의 투수 최동원 별세」 『연합뉴스』 (2011. 9. 14.)
- 「[레전드를 기념하다-故최동원①] '만화애나'나출법한' 지옥훈련」 『중앙일보』 (2011. 9. 26.)
- 「국제초대석 (53) 故 최동원 어머니 김정자 여사」 『국제신문』 (2014. 4. 1.)

| 정영현 |

최화수

(崔和秀, 1947~2017)

사하문인협회를 만들고, 사하구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기사와 글을 쓴 문화인



최화수 기자는 1947년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인 노옥분과 딸 2명이 있다.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시절엔 학보사 기사를 할 만큼 글 쓰는 재주가 남달랐다. 그가 ‘산’을 품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천아하늘정원 아파트이다. 몇 차례 이사를 한 적은 있지만 사하구에서만 30여 년을 살았다. 사하문인협회 창립에 깊이 관여하고 늘그막에는 괴정성당에 출석해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니, 그는 완전한 사하구 주민이었던 셈이다.

최화수는 전 국제신문 논설주간이었고 문화전문기자이자 문학인, 산 사나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그가 살았던 파란만장의 칠십 평생은 인간과 문화를 위한 여정이었다.

글 쓰는 사람을 ‘기자(記者)’라고 할 때, 그는 진정한 기자였다. 시국이나 사건을 분석하고 대상을 묘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글이 정확하고 유장(悠長)했다.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나 대상도 글로써 간명하게 요리하는 재주가 있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많이 썼다. 아직 쓸 게 많다는 듯, 노익장을 과시하던 그는 뜻하지 않은 하늘의 부름을 받고 경황없이 떠나고 말았다. 지상과

의 영영 이별이었다. 사람은 가고 글만 남았다. 문화전문기자 최화수는 전설이 되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전문기자였다. 1970, 80년대 부산 언론계에서 '최화수'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으로 통했다. 그의 취재력이나 집필력은 현장에서 나왔다. 현장은 그의 삶터이자 글밭이었다. 문화계 인사들이 모이는 곳에는 으레 그가 함께 있었다. 그 장소가 포장마차든, 다방이든, 산이든 어디든 상관없었다. 문화계 인사들과의 내밀한 관계와 교류, 그 속에서의 취재는 그가 쓰는 문화 기사의 내공으로 나타났다. 그는 술을 좋아했지만 과음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도 술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술 취하지 않는 이유는 그날이든, 다음날이든 쓸 게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최화수가 기자로 일하면서 써낸 「양산박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의 활동 폭과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이 작품은 부산 원도심의 허름한 포장마차를 일약 전국적 명소로 만들었

다. 최화수 특유의 필치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1982년 월간 『신동아』 논픽션 공모에 당선되어 문단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양산박에 모이는 사람들」은 지역문화 이면사이자 문단 인사들의 내밀한 교류를 다룬 논픽션 소설이었다. 문화계 인사를 만나 실제로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썼기에 현장감과 사실성이 돋보였다. 1980년대 후반에 지상의 포장마차 '양산박'은 시인 임명수가 운영했고, 원래의 운영자였던 윤진상은 가까운



『신동아』 논픽션 우수상 당선 기사(『동아일보』 1982.8.26.)

건물 지하에 터를 잡아 각각 '윤산박' '임산박'으로 불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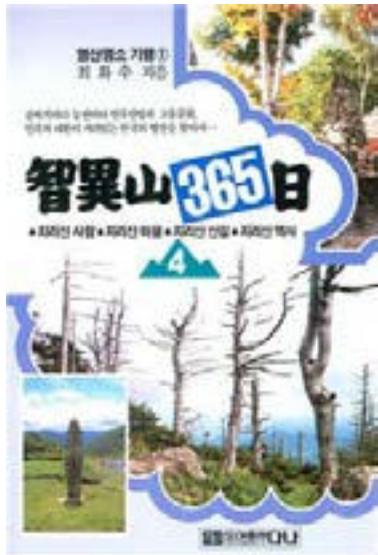
포장마차 '양산박'을 뻥질나게 드나들며 문단 이면을 조명했던 최화수 기자는 1980년대 들어 '산(山)'을 파고든다. 산은 그의 새로운 꿈터이자 일터였다. 그가 주목한 것은 등산이 아니라, 산에 숨은 문화와 역사, 인간, 생태, 그리고 삶의 느껴온 정이었다. 1985년부터 1992년 까지 산악 무크지(Mook紙, 일종의 신조어로 잡지처럼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최신 정보를 담았으나, 책의 형태로 출간하는 것을 의미) 형식으로 펴낸 월간 『우리들의 산』(비매품)은 산꾼들의 문화사랑방 구실을 하면서 등산문화를 바꾸고 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총 82호까지 발행한 월간 『우리들의 산』은 최화수 기자의 산에 대한 끈질긴 탐구와 열정의 산물이었다.

그 후 최화수 기자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매달린다. 단순히 매달린 정도가 아니라, 지리산에 사활을 걸고자 한 사람처럼 맹렬하게 파고들었다. 국제신문 문화부장 시절, 그는 자청하여 '지리산 365일' 기획시리즈를 마련, 매주 전면 기사를 채워나갔다. 그 당시엔 데스크를 보면서 기사를 쓰는 일이 없었다. 최화수 기자는 달랐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어김없이 지리산을 찾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전면 기사가 덩그러니 뽑아져 나왔다. 그에게 휴일은 취재하는 날이었다. 놀라운 투혼이었다.

그렇게 해서 엮어낸 책이 전4권으로 구성된 최화수의 『지리산 365일』(도서출판 다나)이다. 이 책은 지리산의 역사 문화 마을 지리 사람 자연 산길 등을 아우른 지리산 르포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이병주가 대하소설 『지리산』을 썼다면, 최화수는 대하르포 『지리산 365일』을 썼다. 초인적인 집필력이었다. 하루에 한편씩 365일을 씌 없이 이어나간 최화수의 지리산 이야기는 연재 당시 낙양의 지가를 한껏 올렸다.(베스트셀러를 의미함)

최화수 기자는 지리산에만 머물지 않고 설악산과 금정산 관련 인문지리 명저도 남겼다. 산에 대한, 산을 위한 그의 애착과 열정은 활화산과도 같았다. 지금까지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한 일이었다.

최화수는 기자였지만 기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 그는 소설가이자 산꾼이었



『지리산 365일』 4권 표지

고 탁월한 수필가였다. 그의 소설 이력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첫 전작 장편소설 『오후가 길어지는 계절』을 펴냈다. 1982년 월간 『신동아』에 논픽션이 당선된 이후에도 그는 존재 증명을 하듯 간간히 소설을 썼다. 1980년대 초반에는 부산의 무크지 『지평』, 『전망』, 『토박이』 등의 창간호에 단편 소설을 신기도 했다. 또한 콩트집 『우아한 그대』, 『사랑의 랍소디』등도 집필했다. 생전 그는 두 권의 소설집을 묶어냈다. 1990년에 펴낸 『아버지의 목소리』와 2013년 9월에 엮은 『7080화첩(畫帖)』이 그것이다. 『7080화첩』에서 작가는

“그동안 써 왔던 기사, 칼럼, 르포르타주, 에세이 등이 모두 값진 것이긴 하지만 소설을 쓸 때가 나는 가장 신나고 행복하다”며 “그동안 게으름을 부렸던 소설 쓰기에 남은 시간을 바쳐보리라 다짐한다”고 했다. 소설에 대한 애착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화수가 그간 써낸 책은 줄잡아 20여 권. 출지에 병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저서 목록은 몇 권이 늘어났을 것이다. 어쩌랴. 그마저 운명인 것을.

인터넷 공간에는 아직도 최화수의 블로그가 돌아간다. 그가 2015년부터 네이버에 운영해온 <최화수의 산에산에>라는 블로그이다. 주인을 잃은 블로그의 소개글에는 ‘우리들의 산, 특히 지리산과 아침산을 좋아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블로그에는 그가 최근까지 써온 각종 글과 출간되지 않은 원고, 산행일지 또는 일기, 단상, 문단소식 등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최화수가 남긴 ‘문학자료 창고’라 할 만하다. 유족들은 “고인이 끝까지 애착을 갖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산이었다”면서 블로그에 실린 글 가운데 미발표 원고나 출

판 가능한 원고를 모아 ‘유고집’을 발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하구 하단동 에텐공원의 옛 주인 백광덕 씨와도 교분이 두터웠다. 에텐공원은 ‘7080 부산 청년문화의 1번지’라 불리던 곳. 백 씨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클래식 카페 ‘강변’을 열어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했다. 최화수 기자도 제집처럼 이곳을 드나들었다.

당시 국제신문 기자였던 최화수는 자칭·타칭 ‘에텐당’의 일원이었다. 에텐당은 문화계 인사들과의 교분을 좇아 수시로 에텐공원을 드나들며 술자리를 가졌던 언론계 인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중심인물로는 고인이 된 황동규 전 국제신문 이사, 전 부산매일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윤준홍, 그리고 안병화, 변상홍, 최원행 등 국제신문 기자들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에텐당을 자처한 것은 아니었고, 주위에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자칭·타칭 에텐당을 낳은 것이다. 젊은 월급쟁이들에게 에텐공원은 낭만을 즐기면서 놀기에 부담 없는 모임 장소였다.

전언에 의하면, 최화수는 에텐당의 골수 당원이었다. 매일 저녁 간 것은 아니지만,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을 간 적도 있었다. 최화수 기자는 생전에 에텐공원과 에텐당에 대해 이렇게 술회한 적 있다.

“그곳은 부산 문화계 및 언론계 인사들에게 일종의 작은 해방구였어요. 갈대밭 우거진 강변의 운치에다 술값이 그리 비싸지 않았고 심심찮게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청춘들에겐 그곳이 둘도 없는 데이트 코스가 되었지요. 그 시절 술한 아담과 이브들은 갈대밭의 등지에서 사랑을 꽃피우기도 했고요.”

최근 부산시가 에텐공원을 복원하겠다고 나서자, 최화수는 특유의 원숙한 기자적 필치로 자신의 블로그에 ‘추억의 명소-에텐공원’을 재조명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문화계 마당발로, 글쟁이로 자타가 인정했던 기자 최화수. 그의 칠십 평생은 안일(安逸)이 없는 현장의 삶이었다. 그는 부산시 문화상, 부산문학상을 받았으며 타계하기 직전까지 부산문화재단 이사, (사)봉생문화재단 부이사

장으로 일하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힘썼다. 그의 부재는 한국 언론계의 걸출한 기자 한 명을 잃은 것 이상으로 주변을 아쉽고 허전하게 만든다. 지역문단은 물론 산악계의 손실도 적지 않을 테다. 그는 경남 양산시 양산 천주교 공원묘원 하늘공원에 잠들어 있다.

자연인 최화수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문화전문기자 최화수는 여전히 우리 뇌리에서 살아 있다. 그는 이 땅의 산과 들, 문단의 뒷골목, 문화계의 뜨락, 그리고 사하구의 하늘에서 잠들지 않는 전설로, 자유를 노래하는 별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한경범

(韓環範, 1826~1913)

다대초등학교(구 다대포사립실용학교) 설립자 및 교육자

郡	業			東	名郡府
計	私立普通實用學校	私立普通養正學校	私立普通明進學校	趙	慶尙南道(一般)
高等一校 普通七校	金 韓	徐 徐	姜 趙	宇	
	政 外 環	錫 外 錫	大 外 大	名 植	設立者氏名
	鎬 四 名 範	桂 九 名 澁	成 一 名 植		名

사립실용학교의 설립자로서 한경범 이름이 보임.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제52권(대학서원, 1990)

다대동에 대대로 세거지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청주 한씨는 기장군 반룡리에 거주하던 이들이 1720년경 다대동에서 이주하면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다대동 청주 한씨의 입향조는 한도남(韓道南)이다. 한도남의 손자는 다대포 어민의 고통을 없애준 공적이 있는 한광국이며, 한광국 사촌 동생의 후손이



참고문헌

- 최화수, 『양산박』 (지평, 1990)
- '로맨스'가객 최화수 두번째 소설집 『국제신문』 (2013. 8. 3.)
- 네이버 블로그 '최화수의 '산에산에'' (<http://blog.naver.com/8296choi>)
- '하단의 에덴공원', 다음 블로그 '난바다' (<http://blog.daum.net/phh4594/17193961>)

한경범이다. 한경범은 1826년 다대리에서 태어났다.

전통시대 다대진은 군영으로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학문을 권장하고 문무관들의 배출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개항 이후 갑오 및 을미개혁에 따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자 다대리의 청주 한씨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근대적 교육 기관 설립에 나섰다. 이들은 학교 설립 기부금을 조성하는 한편, 권학답(勸學畓)의 매매 대금 등을 통해 다대진침사영 건물을 수리하고 부속된 관유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다대포사립실용학교를 1902년 창립하고 1904년 4월 1일 개교했다. 실용은 '실지응용(實地應用)'을 뜻하는 것처럼 근대적 지식의 적용을 추구했다. 초기 창립을 주도한 것은 한경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교와 함께 한경호는 1909년 부산부로부터 인가를 얻었다. 설립 당시 교장은 윤필호, 교원은 한홍수, 일본어 교사는 야마다(山田)였다. 1939년 3월 28일 교명이 '다대포실용학교'로 바뀌었고 1945년 4월 1일 다대포공립국민학교로 합쳐져 현재의 다대초등학교에 이른다.

한상동

(韓尙東, 1901~1976)

부산 고신대학교를 설립한 교육자, 부산 삼일교회를 설립한 목회자, 신사참배 거부자



한상동은 1901년 7월 30일 현재의 부산시 강서구 명지(鳴旨)에서 한재훈(韓在勳)과 배봉애(裴奉愛) 사이에서 4남 4녀 중 넷째로 출생했다. 5세 때인 1906년에는 5촌 당숙 한금출의 양자로 입적했다.

유년기를 다대포에서 보낸 한상동은 명지의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1910년에는 다대포에 위치한 실용학교(實用學校)에서 수학했다. 이때 교사였던 김성권으로부터 독립과 애

국정신을 배웠다. 1916년 실용학교를 졸업한 그는 동래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단기 수학하고 1918년에는 실용학교 임시 교사로 부임했다. 만 20세였던 1921년 5월 31일에는 동래군 기장면의 김두천의 장녀 김차숙(金次淑)과 혼인하였다. 그해 9월 삶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는 전도사 박창근(朴昌根)의 전도를 받고 1924년 4월경부터 사하구 다대포에 위치한 다대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 조상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고한 유



참고문헌

- 다대초등학교 총동창회, 『다대 백년사』 (20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 (2012)

가적(儒家的) 가풍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았고, 결국 1926년 한씨 문중에서 파양 선고를 받았다. 가족과 문중에게 배척을 받은 한상동은 1927년 호주선교사의 주선으로 진주 광림(光林)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광림학교는 호주선교부에 의해 1906년 설립된 초등학교 과정의 학교였다. 당시 재학생은 약 100여명, 교사는 7, 8명 정도였고 교장은 호주 선교사 예원배(Albert Wright, 체한기간 1912-42)였다. 1년 6개월간 교사로 일한 그는 1928년 서울에 있는 피어선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폐결핵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사하구 다대포로 돌아왔다. 이 때 경남부인전도회는 청년 한상동에게 전도사로 일하도록 주선하였고, 여전도회의 후원으로 경남 고성군 학동(鶴洞)과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진교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다. 1933년 4월에는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일명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수학하고 1937년 제32회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1937년 4월 부산 동구의 초량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다. 1937년 5월에는 강도사가 되었고, 그해 12월 7일에는 경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사가 된 한상동은 마산의 문창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였으나 신사참배(神社參拜) 거부 설교로 6개월 후 사임 한다. '신사' (神社, 神祠)란 일본의 토착종교이자 천황숭배 이념인 신도(神道)의식을 행하는 종교시설물인데, 일제는 1935년부터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했고, 당시 기독교회는 이를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거부했다. 이 일로 한국인 2천여 명이 투옥되었고, 그중에서 목사 주기철을 비롯한 40여명은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었던 한상동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는데, 1937년 10월 24일 "현 정부는 정의 및 신의(神意)에 위반한 우상인 신사참배를 강요하니 오등은 굴하지 말자."라고 신사참배 거부 설교를 한 일로 사임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1938년 9월 10일,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이 가결되자 한상동은 보다 조직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는 1939년 10월 이후 밀양 마산리교회에서 약 2개월간 체류하게 되는데, 이 때 경남지역에서의 신사불참배운동을 조직화했다. 그러나 결국 한상동도 1940년 7월 3일 체포되었고 해방되기까지 5년간 평양감옥에 수감되었다.

해방과 함께 1945년 8월 17일 평양감옥에서 동료 19명과 함께 출옥한 한상동은 주기철이 시무했던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나 곧 월남하였고, 경남지방에서 교회쇄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일제하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쇄신운동이었다.

1946년 6월 12일부터 4일간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남부총회'가 조선신학교를 남부총회 직영 신학교로 가결하자 평양신학교를 계승하는 새로운 신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목사 박윤선의 도움을 입어 1946년 9월 20일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했다. 새로운 신학교육을 통해 한국교회를 쇄신하려는 신학입교(神學立敎)의 의지였다.

고려신학교 설립 후 한상동은 부산 초량교회 담임목사로 일하게 되는데, 고려신학교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은 경남노회의 분열을 초래한다. 한상동은 당시 장로교총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명도(明渡)를 요구받아 초량 교회를 사임하고, 1951년 10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삼일교회를 설립했다. 한상동을 비

뜻한 고려신학교 지지자들이 총회에서 축출되자 이들은 1952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로회, 곧 지금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교단(敎團)]를 조직하였다.

한상동이 설립한 고려신학교는 1968년 2월에는 대학에 준한 각종 학교로, 1969년 9월에는 대학동등학력 인정 지정학교로, 1970년 12월 30일에는 고려신학대학으로 발전하였고, 1993년에는 고신대학교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상동은 1974년 1월 고려신학대학장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28년 동안 고신대학교의 설립, 운영에 참여하고, 교수와 교장, 학장으로 활동했다. 또 1951년 삼일교회 설립 후 1972년까지 목회자로도 활동했다.

한상동의 자전 기록으로는 옥중생활을 기록한 『주님의 사랑』(1954)이 있고, 설교집 『신앙세계와 천국』(1970), 『고난과 승리』(1980)가 있다. 그 외의 대표적인 논설로는 「현하 대한교회에(上)」, 『파수군』 제2호(1950) 등이 있다.

한상동은 ‘한국 교회를 바로 세워 보자’고 하는 교회 건설의 의지로 일생을 살았고, 신사참배 반대와 교회 쇄신을 위해 헌신했던 목회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75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1976년 1월 6일 세상을 떠났다.



참고문헌

- 이상규, 최수경 편, 『한상동 목사, 그의 생애와 신앙』 (글마당, 2000)
-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SFC, 2006)

찾아보기

ㄱ

감리서	34, 35, 37, 41, 44, 140
강대석	112, 113
강용권	136
개성학교	45
건국부녀동맹	121
경편철도	44
고신교회	246
고신대학교	130, 243, 246
공신녹권	12, 19
공창폐지운동	121
곽 제르바시오	175
곽세(藿稅, 미역세)	27
괴정국민학교	218
괴정성당	174, 175, 235
괴정천	50, 143
괴정국민학교	218
교회쇄신운동	245
구해룡	139, 140, 141, 198, 215, 216, 217
김금주	115, 116, 117, 118
김두행	142, 143
김만이	142, 143
김암우	146, 147
김용옥	152, 153
김원선	142, 143
김윤하	155, 157, 158
김정서	8, 9, 10, 11, 12
김정한	159, 160, 161, 162, 163

ㄴ

낙동강	16, 44, 55, 127, 142, 143, 144, 145, 156, 159, 161, 163, 168, 169, 173, 182, 183, 184, 188, 195, 208
낙동강의 파수꾼	73
남립	36, 39, 229
낫개	137
노동회사	214, 215

ㄷ

다대동	13, 22, 26, 28, 61, 96, 98, 197, 210
다대성당	175
다대어촌계	116
다대진	8,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8, 31,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6
다대진성	16, 17, 19, 20, 36
다대진전투	16, 17, 18
다대진침사	8, 9, 10, 16, 18, 19, 20, 2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6, 150, 242
다대초등학교	210, 211, 212, 226, 227, 228, 241, 242
다대팔경가	226, 227, 228, 229, 230
다대포	19, 26, 28, 36, 37, 42, 98, 115, 116, 117, 136, 137, 146, 147, 148, 149, 150, 210, 211, 226, 227, 228, 229
다대포 후리소리	115, 136, 137, 146, 147, 148
다대포국민학교	211
다대포사립실용학교	210, 226, 227, 228, 229, 241, 242
다뎃개	137
당리	37, 38, 56, 61, 108, 128, 164, 186, 189, 196, 197, 19, 213, 214, 215

대야케미컬	106
대티고개	44, 87, 174
도선	143, 144, 153
동매산	30, 31
동명서화원	153
동산유지공업	70, 75
동성화학	76, 78, 79
동아대학교	48, 51, 60, 61, 91, 92, 94, 136, 167, 180, 189, 219, 220, 222
동아전기	106
동주대학교	53, 157
동행일록	35, 39

ㄱ

멸치잡이	115, 116, 136, 137, 147, 148, 149, 229
모래배	144
모래톱 이야기	159, 160, 162, 163
목민장학회	85
물운대	15, 21, 22, 23, 25, 38, 199, 210, 229
무형문화재	116, 136, 145, 146
묵해서예학원	153
민건호	34, 35, 36, 37, 38, 39, 40, 42, 43, 44, 140

ㄴ

박기종	36, 41, 42, 43, 44, 45, 46
박기채	164, 165
박임봉	70, 71
반도목재	96, 98, 99
백의사(白衣社)	230
백제갑	76, 77, 78, 79, 80
백준호	107, 166, 167, 168, 169, 170
별전공신	10
봉래초등학교	45

부방루(浮舫樓)	16
부산객주상법회사	45
부산근대역사관	39, 45
부산냉동냉장업	90
부산상공회의소	45, 84, 85, 93, 95, 104
부산상무소	46
부산수산회사	89, 90
부산시 문화상	138, 204, 208, 234, 239
부산직할시 승격안	64
부산포해전	21, 22
부산항	34, 35, 42, 43, 44, 45, 46, 71, 140, 172, 197, 214, 215
부산항 경무관	42, 45, 46
부영공업(富榮工業)	109
부영신관공업사	106
부하철도회사	45

ㄷ

사남국민학교	218
사립양정학교	139, 140, 141, 171, 172, 196, 198, 213, 216, 217
사태골	28
사하공립보통학교	57, 140, 198, 216, 218
사하공립심상소학교	218
사하양지장학회	106, 108
사하초등학교	139, 172, 196, 213, 216, 217, 218, 231
사하촌	160, 162, 163
삼성여자고등학교	113, 114
삼성학관	113
삼화식품	128, 129
셋별새마을유치원	131
서석재	48, 49, 51
서석주	140, 171, 172, 198, 215, 216, 217

서호영	173, 174, 175
석당박물관	220, 222
석탑산업훈장	84
성장기업	96, 97, 98, 99
소통사	42
손상영	52, 53, 54, 55
손진태	176, 177, 178, 179
솔바람	170, 203
수신사	42
순란사민비	19
순흥 안씨	13, 14, 15, 191
승악산(승학산)	38, 197, 199, 207, 220
시의원	52, 55, 57, 59
신양촌	62, 223, 224
신창호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신촌고등공민학교	131
신촌교회	130
신평국민학교	218

○

안계덕	13, 14, 15
안학봉	191, 192
애아원	112, 113, 114
양원국	193, 194, 195
양재일	140, 196, 197, 198, 199, 215, 216, 217
양한나	119, 120, 121, 122, 123
어업노동요	115, 116
에덴공원	107, 109, 166, 167, 168, 169, 170, 174, 184, 203, 208, 239
에덴당	239
에덴원	167, 168, 203
영생노인복지원	132
오복식품	100, 103, 104, 105

오태균	201, 202, 203, 204, 205
원불교	29, 193, 194
유치환	206, 207, 208
유형문화재	40, 46
윤공단	17, 18, 20, 25, 28
윤흥신	9, 16, 17, 28, 19, 20
윤흥제	16, 17, 19
을숙도	50, 155, 156, 157, 159, 161, 162, 180, 182, 183, 184, 186, 188, 190
을숙도 사연	155, 156, 157
이원갑	81, 82, 83, 84, 85, 86
이유명	140, 197, 198, 213, 214, 215, 216, 217
이유진	140, 172, 198, 213, 216, 217
이윤영	87, 88, 89, 90
이지성	124, 125
일웅도	159, 160, 161, 162
임중생	30, 31
임진전란도	20

ㄱ

장관청	41, 140
전두만	57, 58, 59
정공단	25, 46
정기원	60, 61, 62, 63, 64, 65, 66
정수봉	91, 219, 220, 221, 222
정운	21, 22, 23, 24, 25
정주영	91, 92, 93, 94, 95
정태성	96, 97, 98, 99
정학화	126, 127, 128
정해덕	96, 98, 99
조선부녀총동맹	121
조업	18, 19

조인숙	130, 131, 132
조철제	223, 224, 225
주민자치위원회	25

ㄷ

채동우	100, 101, 102, 104, 105
청주 한씨	26, 210, 241, 242
최기성	211, 226, 227, 228, 229, 230
최동원	231, 232, 233, 234
최막석	106, 107, 108, 109
최화수	235, 236, 237, 238, 239, 240
충렬사지	10, 22, 36

ㄹ

태극도	114, 223, 224
-----	---------------

ㅍ

평택 임씨	30, 31
-------	--------

ㅎ

하구연	168, 184
하단 장시	37
하단선창조선소	145
하단소비조합	57
하단어촌계	143
하단포	43, 44, 140, 142, 174
학산재(鶴山齋)	197, 199
한경범	210, 241, 242
한광국	26, 27, 28, 241
한국광복군	124, 125

한국패류건어물수출협회	128
한국해조염신품수출협회	128
한국화이바	106
한상동	243, 244, 245, 246
한중문자문화관	153
해녀	115, 116, 117, 118
해녀박물관	118
해녀체험학교	118
해은일록	35, 36, 37, 39, 42
향토기업	76, 97, 100
호산나교회	169
화해장	191, 192
황포돛배	144

『사하의 인물』 선정기준

1. 생존자는 제외하였다.
2. 인물은 출생, 거주, 활동 등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선정하였다.
 - 1) 사하구 출생자로, 유명 인물이라도 사하 발전의 공헌도에 따라 선정
 - 2) 사하구 비출생자로,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사하를 빛낸 또는 사하에 공헌한 인물
 - 3) 전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하구 관료의 경우 특정한 법과 제도를 발의했거나 운용하여 역사 발전에 기여한 인물
 - 4) 국가나 사회 개혁에 앞장섰거나, 독립운동가처럼 자기희생을 겪은 인물
3. 『사하구지』(2012), 『사하이야기』,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에 수록된 인물은 검토 후 수록하였다.
4. 사하구와 관련된 인물의 활동시기가 1876년(근대 개항)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전근대, 그 이후이면 근현대 인물로 구분하였다.
5. 사하구에 있는(던) 기업과 관련한 인물을 적극 선정하였다.(예: 성장기업 관련자)
6. 사하구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인물을 적극 선정하였다.(예: 조선장(造船匠), 하단포 객주)
7. 성별, 지위 고하, 신분의 구별 없이 폭넓게 선정하였다.
8. 선정 인물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경우에는 사하구와 가장 밀접하거나 대표적인 분야에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사하의 인물』 인물선정 자문위원 명단(가나다순)

권수혁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전 사하구청 국장)
김대래	신라대학교 교수
김도용	전 동주여자대학교 교수
박경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철하	사하구청 자치행정 국장
전성현	동아대학교 교수
전영애	사하구의회 의원

『사하의 인물』 집필진(가나다순)

권수혁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전 사하구청 국장
김강식	한국해양대학교 HK교수
김대래	신라대학교 교수
김도용	전 동주여자대학교 교수
김동철	부산대학교 교수
박경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원일	작곡가. 한국관악협회 사무국장
박창희	스토리랩 수작 대표
변광석	부산대학교 전임연구원
송봉구	영산대학교 교수
양홍숙	부산대학교 HK교수
이동윤	부산대학교 대학원생
이민한	부산대학교 교수
이상규	고신대학교 교수
이송희	신라대학교 교수
전성현	동아대학교 교수
정영현	부산대학교 강사
최영호	동아대학교 교수

연구진

- 김동철 (책임연구원,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
- 양홍숙 (참여연구원,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박세이 (참여연구원, 부산대 사학과)
- 이동윤 (연구보조원, 부산대 사학과)

사진출처

- 본문 사진 중 출처 표시가 없는 것은 필자가 촬영한 것
- 집필 대상자의 관련 인물이 제공한 것
- 사하구청에서 제공한 것.



발행일	2017. 12.
발행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고집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사하구 문화관광과 051)220-4082
디자인·인쇄	동아TG 051)468-7277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사하구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촬영·제작·번역을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라도 변환·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매품)

